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순종해 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맞지 않는 사람들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5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6월 26일) 2021년 8월 4일 수요일



서방의 연꽃, 사바의 연등 아기부처님의 일곱 걸음을 걷게 한 연꽃에는 많은 의미와 설법이 깃들어 있다. 연꽃만 바라보고 있어도 한걸음 걷는 것이다. 서방정토에서는 만물이 연꽃에서 태어난다. 사바에서 서방을 꿈꾸며 사는 우리에게 연꽃이 핀 오늘은 서방에 태어난 날이다. 서방에서 날려 온 꽃씨들이 법당 마당에 꽃을 피웠다. 그리고 서방에서 다시 보게 될 연꽃 뒤로는 사바의 연등이 걸려있다. 연꽃이 핀 오늘, 서방과 사바가 멀지 않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시대 스승 월주 대종사 적멸의 길로 나아가다

7월 26일 영결식·다비식
불교계 대표 지도자 운집
각계 인사들 조문 이어져
국내외 조전 이례적 규모
49재 매주 수요일 봉행돼



조계종 제17 · 28대 총무원장이자 불교계 안팎으로 숱한 족적을 남긴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마지막 길에는 생전 대종사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대중들이 운집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조문 및 영결식 참석인원 최소화 방침을 세웠지만,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줄을 이었고 국내외를 넘나드는 추모사와 조전도 이례적인 규모였다.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7월 26일 김제 금산사 처영문화기념관과 금산사 다비장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태공당 월주대종사 종단장 장의위원장 원행 스님의 영결사에 이어,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와 원로회의 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경우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일오 스님 등 종단 주요스님들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지도자 등 불교계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추모사와 조사로써 애도의 뜻을 밝혔다.

생전 '깨달음의 사회회'를 주창한 뒤 종교계 대사회 활동을 이끈 만큼, 이례적으로 불교계 외부 인사들의 추모행렬도 눈길을 끌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한 이웃종교 수장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이 앞다퉈 추모의 뜻을 밝혔다. 정세균 前 국무총리와 이낙연 前 국무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前 감사원장,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前 법무부 장관 등 대선주자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장의위원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영결사를 통해 "오늘 저는 저의 은사이자 한국불교의 큰 스승이신 태공당 월주 대종사를 적요의 세계로 보내드려야 한다"며 "1961년 금산사 도량에 주지로 부임한 후 60여 년간 손수 어루만지시던 돌덩이와 초목은 지금도 제자리인데 대종사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라며 스승을 떠나보내는 비통함을 전했다.

원행 스님은 "월주 대종사는 일평생 우리 종단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정진했던 '종문(宗門)의 사표(師表)'였기에 남기신 자취가 너무도 크고 무겁게 다가온다"며 "매사 공심을 앞세우며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그 삶은 종단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전을 통해 "한국불교와 나라의 큰 어른이신 월주 대종사께서는 구도의 삶과 이웃의 고통을 품어주는 이타행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셨다"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아프고 힘든 이웃을 보듬고 함께한다면 우리 국민은 코로나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그 정신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영결식에 앞서 분향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무더위도 사부대중의 추모를 막을 수 없었다. 대중들은 다비장이 엄수되는 연화대를 둘러싸고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했다.

월주 대종사는 떠났지만 한국불교 근현대사 곳곳에 스민 월주 대종사의 삶은 하나의 명료한 가르침으로 남았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는 육조혜능 선사의 가르침 그대로를 삶으로 증명했고, 이를 임종게로 남긴 월주 대종사의 삶은 마지막까지 후학들에게 큰 울림을 전했다.

월주 대종사의 49재는 7월 27일 초재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7차례 이어진다. 2재는 8월 4일 오전 10시 완주 송광사, 3재는 8월 11일 오전 10시 남원 실상사, 4재는 8월 18일 오전 10시 군산 은적사, 5재는 8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 6재는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영화사, 49재는 9월 8일 오전 10시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된다.

송지희 기자

〈추모특집 4 · 5면〉

여름휴가 관계로 다음주 신문 쉽니다.

'원효 화쟁' 전문 연구소 설립된다

영산대, 국내 최초 '화쟁연구소' 설립 · 운영

박태원교수, 소장으로 취임
올해 하반기부터 활동 시작
화쟁+동 · 서양철학 통섭한
'화쟁의 인문학' 구현에 초점
'원효전서' 英譯사업도 추진
오는 10·12월 학술대회 예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원효 스님이 주창한 '화쟁사상'을 통섭적 연구를 통해 '화쟁 인문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 설립된다.

영산대는 올해 하반기부터 '화쟁 인문학' 구현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인 '화쟁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

영산대 화쟁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는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가 취임한다. 올해 상반기 정년을 맞은 박 교수는 울산대에서 영산대로 자리를 옮겨 연구를 총괄 진행한다. 박 교수는 국내 원효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지난 2018년 울산대에 '원효학토대연구소'를 설립하고 〈원효 전서〉를 발행하는 등 원효 스님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간 원효 스님 관련 연구기관은 울산대 원효학토대연구소를 비롯해 분황사의 원효학연구원, 심재열 박사가 설립한 원효사상연구소가 있었지만, 원효 스님의 주요 사상인 '화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설립되는 것은 영산대 화쟁연구소가 처음이다.

영산대 화쟁연구소는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과 동 · 서양 철학을 근간으로 '화쟁학'과 '화쟁 인문학'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차이들의 배타적 분쟁'을 해소 · 화해시키는 한국적 자생 인문학을 만들겠다"는 것이 박 교수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쟁연구소는 오는 10, 12월에 두 차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화쟁 인문학의 전망과 연구방법론'을 주제로 열리는 두 번의 학술대회에서는 불교를 넘어 동 · 서양철학에서 화쟁 사상과 접점을 모색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10월에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기조발제로 '화쟁학의 의미와 전망- 붓다 · 불교 · 원효와 화쟁 인문학(박태원)'이 발표되며 '프랑스 차이담론의 화쟁학적 탐구(안은희)', '초기불교의 화쟁학적 탐구(우동필)', '대승불교의 화쟁학적 탐구(김현구)', '만해의 화쟁학적 탐구(이선이)'가 각각 발표된다.

12월에 개최되는 2차 학술대회에서는 '니체철학의 화쟁학적 탐구(정현철)', '한국사회 차이 쟁론과 화쟁학적 탐구-성 · 세대 · 지역 · 이념 · 남북 · 인종 등(이혁주)', '선불교의 화쟁학적 탐구(마해륜)', '화엄철학의 화쟁학적 탐구-화쟁의 문화콘텐츠를 전망하며(최원섭)', '만해 연구의 연구사적 검토와 화쟁학적 전망(김진병)'이 소개된다.

박 교수는 "한반도 전통지성의 거봉(巨峯) 원효 스님은 '차이들의 열린 화해'(通攝)를 위한 화쟁의 통찰을 정밀하게 펼치고 있다. 원효가 천명하는 '통섭적 화쟁'은 차이 갈등문제를 풀어가려는 한반도 인문 지성의 탁월한 성취"라며 "화쟁연구소는 원효의 통섭적 화쟁에 관한 통찰을 과거와 현재의 동 · 서양 인문 지성의 모든 영역과 연결 · 탐구함으로써, '지금 여기'의 차이 갈등문제에 대처하는 '화쟁의 보편인문학'을 수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화쟁 인문학'의 구현을 통해 연구소는 '화쟁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창설도 목표로 삼고 있다. '화쟁 아너 소사이어티'는 한국사회의 화쟁에 필요한 담론의 장을 제공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종교 등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일종의 공동체다.

박 교수는 "향후 창설될 '화쟁 아너 소사이어티'를 한국사회의 공신력 있는 지식 가치 실천의 공동체로 만들 계획"이라며 "전국 규모의 오피니언 리더 소사이어티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산대 화쟁연구소는 △〈원효 전서〉 영역(英譯) 사업 △원효학 수립 △화쟁 인문학 수립 위한 학술지 발간 및 프로그램 개발 · 보급 △화쟁 인문학 전문가 양성 · 활용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교수는 "토대연구사업으로 번역이 완료된 〈원효 전서〉는 해석학적 번역이기 때문에 영역작업에 최적화 돼 있다"면서 "〈원효 전서〉가 영역되면 단기간에 영어권 학자들의 원효 스님 관련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원효 전서〉 영역 사업에는 뜻있는 단체와의 협력도 기대한다. 연구소 발전에 협력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참여도 바란다"고 제언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대 · 28대 총무원장, 금산사 조실

태공당 월주 대종사 종단장 봉행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대 · 28대 총무원장, 금산사 조실
태공당 월주 대종사께서 지난 7월 22일 오전 9시 45분 금산사 만월당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에 7월 26일 영결식과 다비식을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장으로 엄숙하게 봉행하였습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종정예하, 대덕 스님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과
각계 기관장님, 불자 및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큰스님께서는 평소 자비심으로 요익중생(饒益衆生)하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바로 실천에 옮기라고도 하셨습니다. 큰스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가르침을 따르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추모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불기 2565년 7월 28일
문도일동

태공당 월주 대종사 추모 일정

▪ 초	재	2021년 7월 28일	10시	금산사(김제)
▪ 2	재	2021년 8월 4일	10시	송광사(완주)
▪ 3	재	2021년 8월 11일	10시	실상사(남원)
▪ 4	재	2021년 8월 18일	10시	은적사(군산)
▪ 5	재	2021년 8월 25일	10시	조계사(서울)
▪ 6	재	2021년 9월 1일	10시	영화사(서울)
▪ 4 9	재	2021년 9월 8일	10시	금산사(김제)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전화 063) 548~4440~2

법화종 안정사 주지 A스님 승적 논란

2015년에 탈종했던 B스님과 승적번호 · 입종시기 동일해
승려 승적부 같은 페이지서 A스님 사진 · 인적사항 달라

A스님, 2014년 법화종 전종 수계 은사 승헌스님은 당시 체탈도첩 징계로 자격 없어
총무원 "면밀 조사 진행 중"


토지 증여에 이어 주지스님 승적으로 논란이 일고있는 법화종 종찰 안정사 전경.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법화종을 대표하는 종찰이자 천년고찰인 안정사 주지 A스님과 관련, 승적 논란이 일고 있다. A스님의 승적번호와 입종시기가 지금은 법화종을 탈종한 B스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승적등록 부상 뒤늦게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법화종 총무원은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승적번호는 법화종에 승려로 등록할 때 부여되는 고유번호다. 특히 해당 승려의 법화종 승적 취득시기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공찰 주지 및 종무직 소임의 자격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따라서 승적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향후 A스님의 안정사 주지 자격 여부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승적등록부상 A스님의 승적번호는 76**번, 법화종 승적 취득 및 입적일은 2014년 1월 15일로 확인된다. 은사는 안정사 前 주지 승헌 스님으로, 2014년 2월 10일 의상암에서 승헌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승헌 스님은 최근 안정사 부지를 증여받아 논란이 일었던 (사)영산재보존위원회 이사장이기도 하다.

〈本紙 1349호 참조〉

이번 논란의 핵심은 A스님의 승적번호와 승적 취득시점이, 과거 법화종 승려였던 B스님과 동일하다는 점에 있다. B스님 역시 승적번호 76**번으로, 승적 취득시점은 2014는 1월 15일로 확인됐다.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수기 기록을 하는 법화종 시스템상 일부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두 스님의 승적번호와 승적 취득시점이 완전히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승려등록부와 주지승적등록부를 보면 같은 위치에 사람만 다르게 기록된 점도 납득이 어렵다. 때문에 B스님이 탈종한 후 해당 승적을 말소시키지 않고 A스님으로 덮어씌우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법화종 승적부는 한 페이지당 3명의 스님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는 방식이다. 한 스님당 승적번호와 사진, 소속사찰과 인적사항 등이 양식에 따라 수기로 기재되는데, 문제가 된 A스님과 B스님의 기록위치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해당의혹을 조사 중인 총무원 관계자는 "A스님이 기재된 페이지와 B스님이 기재된 페이지가 똑같고 다른 두 스님의 기록내용도 동일한데, 그 중 한 사람의 사진과 인적사항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B스님은 2014년 입종 당시 다른 종단에서 법화종으로 전종하면서 개인사암을 법화종 사찰로 등록하고 주지 임명을 받았다. 그리고 1년 뒤인 2015년 "법화종의 종지종풍을 따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화종을 탈종했다.

탈종시 해당 승려에게 부여된 승적번호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과적으로 여전히 승적번호가 남아 A스님의 승적번호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B스님은 "2015년 탈종 당시 직접 법화종 총무원을 방문해서 등록을 말소시켰고 승려증을 반납했다"며 "당시 사무행정을 보던 사람에게 승려증을 반납한 뒤 확인서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A스님이 2014년 승헌 스님을 은사로 수계를 받고 법화종에 입종한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 승헌 스님은 2013년 종단으로부터 체탈도첩의 징계를 받아 2014년 1월 당시 소속 승려로서의 권한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법화종 총무원 측은 "A스님의 승적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쟁점사항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어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후속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더위 여름나기 불교콘텐츠 눈길

조계종포교원, 특별웹진
'오분순삭, 찰나멸' 발간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불교 크리에이터 창작물을 엮어 SNS에 소개하는 특별웹진을 제작했다. 포교원은 최근 '불교 콘텐츠로 오분순삭, 찰나멸'이라는 웹진을 발간했다. 이번 웹진에서는 '마음을 그리는 붓' 장세경 씨의 '나를 일깨우는 맑은향기, 연꽃 민화그리기', '동해바다와 낙산사 사찰풍경 & 해수관음 그리기', 영재영 유튜브 채널의 'Drawing Meditation' 등 조계종 포교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와 크리에이터 심심불교의 인스타그램 컷툰 '세상에서 제일 시원함', 크리에이터 네일셔닝의 인스타그램 네일아트전 '불교 멋쟁이라면' 등이 소개됐다.

이번 웹진 콘텐츠는 한여름 무더위를 불교 수행이나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극복하는 것을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장세경 씨의 '나를 일깨우는 맑은향기, 연꽃 민화그리기'에서는 동해 삼화사 사찰과 삼화사 계곡 풍경, 사찰에서 불화를 그리는 모습과 완성된 작품이 함께 소개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포교원의 불교콘텐츠 웹진 발간은 조계종 포교원의 제2기 불교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일환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올해 5월 7일 제2기 불교크리에이터로 영상 콘텐츠 '마음을 그리는 붓'의 장세경 씨와 웹툰 콘텐츠 '만신화'의 이재영 씨 등 2명을 비롯해 우수 크리에이터로 자홍 스님 · 이연수 · 장수현 씨 등을 선정한 바 있다. 포교원은 온라인 웹진을 매주 발행해 불교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포교원은 "불교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해 육성하여 불교 콘텐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보다 다양한 불교콘텐츠를 불자들이 SNS 등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진흥원, 〈불교문화〉 8월호 발간

'불교와 리더십' 특집 다뤄
암자기행, 불교 詩 읽기도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불교 포교를 위해 발행하는 대중 문화지 〈불교문화〉 8월호(통권 제152호)가 발간됐다.

8월호 특집은 '불교와 리더십'으로 리더십으로서 원효의 화쟁 회통 논법과 서산대사의 승병활동을 중심으로 국가 위기에 나타난 불교의 리더십을 살펴보고 불자로서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세와 마음가짐, 붓다와 예수의 리더십 등 역사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와 기업, 종교에 요구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전문가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집에 참여한 전문가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 백원기 동방대학원대학 교수.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이다.

이밖에도 문화 속에 깃든 불교와 철학이야기들이 담긴 기획들도 눈길을 끈다. △ 작은 절 큰 믿음, 암자기행- 하늘에서 본 경주남산 보리사 △상생의 철학으로 제안하는 '2021년 '육식을 줄이자' 캠페인 △차차석 교수의 〈법화경〉 강의 △한자경 교수의 '유식이란 무엇인가' △나의 불교 이야기- 불교를 만나 삶의 현장을 수행의 장으로 삼은 성태용 거사 △불교와 신경과학의 세계 △일상 속 건강 지키기 △불교 詩 읽기 등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도쿄 올림픽 불자선수 승전보 잇따라

7월 28일 펜싱 대표팀 2연패
남자사브르 단체전서 금메달
여성 양궁대표팀도 '금' 획득

불자 선수들의 도쿄올림픽에서의 승전보가 이어지고 있다. 불자선수들이 이끄는 남자 펜싱 대표팀은 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2연패 쾌거를 이뤘다.

불자선수인 김정환, 구본길 선수는 7월 28일 오상욱, 김준호 선수와 함께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에서 이탈리아 대표팀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펜싱 대표팀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도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우승한 바 있다. 특히 불자인 김정환 선수는 38세의 고령에도 사브르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한국 펜싱 사상 최초 올림픽 메달 3회 획득 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단체전 메달로 총 4회 메달 획득이란 기록을 세웠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양궁에서도 불자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 졌다. 세계랭킹 1위 강채영과 장민희, 안산으로 구성된 여자 양궁대표팀은 7월 24일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러시아 대표팀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양궁대표팀 구성원은 모두 불자다. 특히 강채영 선수는 평소 진천선수촌 법당을 자주 찾는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다.

또 불자인 김제덕 남자 양궁 선수도 7월 24일 양궁 혼성단체전에서 네덜란드 대표팀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 불자 선수는 펜싱 김지연, 체조 양학선 등 70여 명으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장인화 올림픽 선수단장, 정성숙 진천 선수촌 부촌장 등 불자지도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펜싱대표팀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체육회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장 퇴휴 스님은 "국가를 대표해 이들이 4년간 흘린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기원할 것"이라며 "전법단에서도 응원과 기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7대 종교 평신도 '탄소 중립' 실천

8월 23일 제자리 찾기 운동 선포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이 포함된 7대 종교 평신도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대표회장 손병선)는 비대면 종교화합, 이웃사랑과 탄소중립 실천 등 제자리찾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7월 23일 56차 임시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과 세부실천 내용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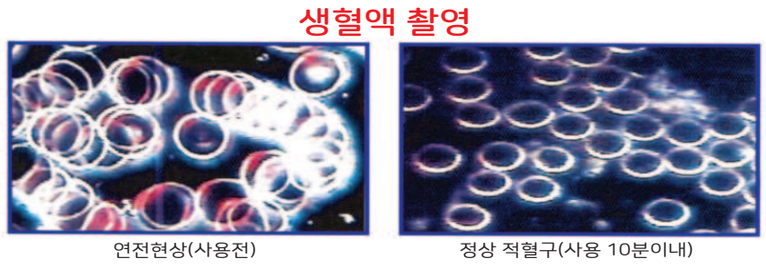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올해 '가정 · 생명' '정의 · 평화' '기후 · 환경' '소통 · 치유' 등 4가지를 목표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팬데믹의 근본 원인인 기후환경 개선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각 종교 평신도들은 8월 23일 제자리 찾기 운동을 선포하고 4대 덕목의 분야별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실천발표회를 열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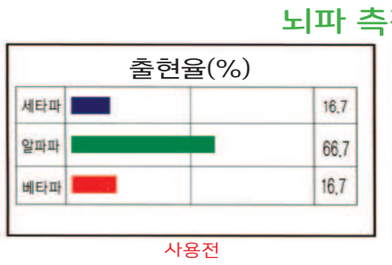
세정제인 비누가 감기, 몸살,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과 아토피, 무좀을 없애주며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누!!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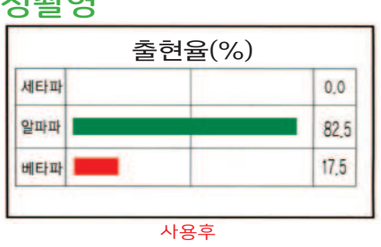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폐렴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정균 감소 기능을 지닌 비누 · 치약

＊＊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어깨, 목, 허리 통증을 없애주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비누와 ORAL MATE® 치약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 시킬수는 없을까요?

1.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옷이나 머리카락에 붙어있어 BLOOD MATE® 비누로 씻어주면 바이러스를 중화시킬수 있다. 옷은 세탁이나 햇빛으로 중화시킨다.
2.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어도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3~4일 정도를 목에 붙어있다가 폐로 들어가므로 그 기간 동안에 ORAL MATE® 치약으로 양치후 뱉어내지 않고 삼키면 폐나 장으로 들어가는 바이러스를 중화시킬수 있을 것이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향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핑크색:120g 12개 3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3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

불교계, 미얀마 모금 활발…현지 전달 '관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로터스월드 · 더프라미스 등
현지 지부를 통해 전달 추진
함께하는세상, 카렌족 지원
아름다운동행 · 불교행동 등
안전한 전달 방법도 모색 중
재한 유학생 생계 지원 시작

미얀마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확산과 홍수까지 '3중고'가 겹치면서 미얀마 국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군부를 향한 반발을 대변하는 시민불복종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현재 미얀마에는 의료와 금융 등 필수적인 기능들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곳곳에서 미얀마를 위한 다양한 모연 활동이 진행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금융이 마비된 상황에서 현지 전달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일부 단체의 경우 현지 지부 및 해외구호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당수 모연단체들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전달경로를 모색하는 데 골몰하는 모양새다.

국제구호협력기구인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보)는 미얀마 식량지원을 위한 긴급모금을 진행 중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산과 군부 쿠데타 발생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 UN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340만 명이 굶주림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이에 더프라미스는 이번 모금을 통해 미얀마 빤따노지역의 7개 마을에 1가구당 쌀 50kg 기준으로 총 495가구 주민 2544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돗자리를 제작해 판매하거나 농업과 관련된 일용직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캠페인은 긴급 식량 지원기금 1만 달러(한화 1130만 원 상당)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쿠데타 현지 상황에 따라 사업 수행이 지연될 수 있다. 쌀 1포대 기준 3만 원부터 동참가능하다.

신한은행 100-027-597795, (사)더프라미스



로터스월드와 전국비구니회가 최근 긴급지원에 나선 미얀마 양곤 샨마띠다 사원학교.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현재 사찰 지원 긴급캠페인 '탁발이 어려워진 이웃 불교국가 스님들의 발심출가를 지켜주세요'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남방불교계 사찰 운영의 근본적인 토대인 탁발공양 자체가 불가능해 지면서, 심각한 생계문제에 내몰린 스님들을 위한 캠페인이다. 특히 미얀마의 경우 쿠데타와 홍수로 인한 고충이 더욱 심각해, 사찰을 중심으로 산하 고아원 등 인근 지역민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02)725-4277, 농협 301-0059-6339-11 예금주 로터스월드

비영리단체 세상과함께(이사장 유연)도 미얀마긴급구호를 위한 후원금 모연을 진행 중이다. 세상과함께는 7월 15일 "모연금으로 미얀마 카렌족 난민촌에 9000달러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쌀을 포함한 식료품이 난민 7000명이 거주하는 마을에 전달됐다"며 "카렌 난민들의 상황을 계속 살펴 긴급구호로 추가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터스월드는 7월 초 미얀마 양곤의 샨마띠다(San Mya Thida) 사원학교에 1차 지원을 완료했으며, 후원금 모금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모연되는 상황과 연동해 우선순위 사찰들에 대한 지원을 순차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쿠데타 이후 긴급구호모금을 시작한 세상과함께는 이후 미얀마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안전한 루트를 모색하기 위해 미얀마와 관련된 국내외 NGO단체들과 소통해 왔다. 그 중 미얀마 군부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카렌족(미얀마 소수민족)을 지원하고 있는 KCK(Karen Community Korea), 태국 COERR NGO와 KRC(카렌난민위원회)를 통해 쿠데타 이후 두 배로 증가된 카렌족 난민촌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찾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얀마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와 이에 대항하는 시민저항세력의 전투가 지속되면서 어린이, 노인, 여성들이 밀림 속으로 피난해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은 험한 밀림 속에서 식량과 약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긴급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산소대란'을 겪고 있는 양곤 따봐와 센터에 산소통을 전달하기 위한 모금도 추가로 진행 중이다.

농협 301-0192-4967-71, 후원링크 https://bit.ly/3kihJ6F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3월부터 6월 30일까지 '미얀마에 자비와 평화가 오기를' 제하의 미얀마 민주화 긴급 모금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온정이 모였지만, 현지 전달 경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전달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편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유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미얀마 유학생을 위한 기초생활장학금을 긴급지원키로 한 것. 이는 재한미얀마유학생들이 쿠데타 여파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본지 기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本紙 1334호 참조) 미얀마 유학생들은 미얀마 국내 정세 악화로 현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국외 외화송금이 제한돼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저원태 재한미얀마학생연합회장은 "미얀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현대불교신문 덕분에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평화' 발원 모은다

민추본, 10월13일까지 캠페인
신계사 복원 14주년을 앞두고
'일만 이천 서명 운동' 형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자들의 발원을 하나로 모은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는 7월 27일부터 금강산관광 재개와 한반도 평화의 발원을 다시 모으는 '금강산관광 재개 발원 캠페인' (이하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진>

캠페인 선포일인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민추본은 이날을 시작으로 금강산 신계사 복원 14주년 기념일인 10월 13일까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일환으로 금강산관광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일만 이천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금강산 일만 이천 봉우리마다 불자들의 평화 발원을 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선포식은 생략됐으며, 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라 현장 캠페인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 동참 퍼포먼스를 비롯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준비 중이다. 취합된 서명 명단은 추후 통일부에 전달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그동안 조계종이 대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신계사 템플스테이와 금강산 불교문화재 보수, 복원사업 등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북한도 개성공단 재개와 더불어 금강산관광 재개를 남북합의 이행의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게 민추본 측의 설명이다.

특히 조계종은 지난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에도 매년 금강산 신계사 복원 기념일을 맞아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신계사에서 봉행해 왔다. 그러나 2015년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금강산 신계사에서의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는 중단된 상태다.

이에 민추본은 "남북교류와 민족화해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금강산관광을 재조명하고 금강산 및 신계사 순례의 염원을 다시 모으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라는 당국의 과제를 불교계가 견인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캠페인 취지를 전했다.

서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며, 오프라인 서명의 경우 민추본 홈페이지에서 서명용지를 내려 받거나 사무처로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

02)720-0531, https://bit.ly/3kIrv24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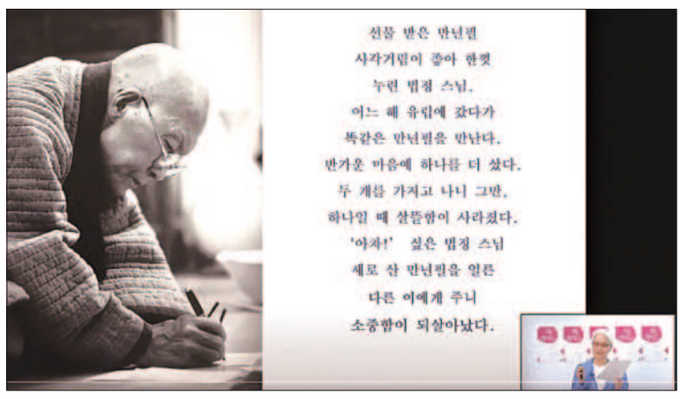
"내가 버린 '옷'도 기후위기에 영향"

7월 27일 종교환경회의서
대화마당 '衣를 의식하라'
'소욕지족의 패션법' 공유

"당신은 옷을 몇 벌이나 갖고 계신가요? 1년이면 옷을 얼마나 버리시나요? 우리가 버린 옷은 어디로 갔을까요?"

계절에 따라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옷은 패션의 완성조건인 동시에, 우리의 일상 속에 의식하지 않고 사용되는 대표적인 물건이다. 아무렇지 않게 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지는 이 옷들만 감소해도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어떨까.

종교환경회의가 7월 27일 '생태위기를 해결하고 탄소중립사회를 만들어가는 종교인 대화마당'에서 '衣를 의식하라'를 주제로 대화의 장을 열었다.<사진> 〈법정 스님 숨결〉의 저자인 변택주 작가가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플렉스'를 주제로 포문을 열었고, 이어 20대 회사원 최수안 씨가 '내 옷장을 부탁해', 〈불편하게 삽시다〉의 저자 권숙현 작가가 '속부터 미니멀리즘'을 주제로 최소한의 옷으로 패션도 지키고 지구도 살리는 해법을 공유했다.



대화마당은 무소유와 소욕지족의 종교철학으로 어떻게 옷을 사고 입을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종교환경회의는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와 오염, 기후위기 등 총체적인 생태위기 속에서 의류산업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며 "옷은 단순하게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실용성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당 주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양의 옷들이 버려지는 원인은 과잉생산과 과잉소비"라며 "플라스틱을 재료로 한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옷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버려지고 소각되는 옷들은 온실가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송지희 기자

신간

현실은 영원이다

"우리는 모두 죽으면 그만일까?
이번 한 생으로 정녕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삶의 영원성을 강렬하게 체득케하는 죽음의 반격!

우리는 죽음이 눈앞에 닥쳐올 때까지 삶에 취해 죽음을 잊고 삽니다. 죽음에 대한 아무런 대비없이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길을 떠납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생각지 않은 채 살아 갑니다. 육신의 감옥에서 매일 매일 죽음을 잊은 채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원력을 지닌 자들은 현실 가운데 영원을 생각합니다. 허공 가운데, 축복 아닌 것은 없습니다. 고통조차, 죽음조차 축복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숙케 하려는 허공의 지극하신 배려요, 우리를 단련시키고 강하게 만들려는 영원의 선물입니다. 코로나로 떠나가신 많은 영혼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광스님 지음 280쪽, 값 15000원
구입문의 577-5800(교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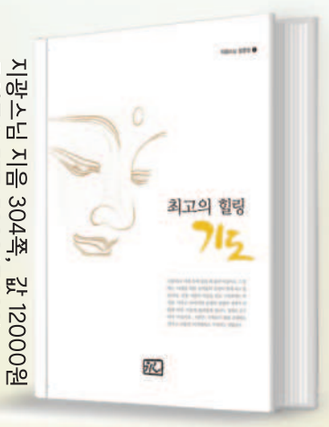


저자 지광스님
현 능인선원장,
서울대학원 철학박사, 한국일보 해직기자
하버드, 프린스턴, 소르본느대 등의 강연,
「법고대통」,「정진」등 다수출간

최고의 힐링, 기도

"고통이나 시련속에 있을 때 울지 마십시오.
미래를 위한 즐거움의 숨결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 마십시오! 시련은 극복을 위한 것입니다



지광스님 지음 304쪽, 값 12000원
구입문의 577-5800(교300)

이 책은 나의 인생 자체입니다. 기도 생활이 그대로 녹아 있으며 기도 체험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처절한 고통과 쓰라림 속에서 그를 이겨내려 발버둥 치며 기도했던 나날들! 내 영혼의 뒷모습이 스스로 안쓰러워 많이도 슬펐습니다. 내가 그러했듯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으며 어떠한 고통과 쓰라림 속에서도 하나님과 부처님을 만나시기를, 그래서 그분께 온 힘을 다해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는 영원을 믿고 부처님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에도 이 시대 등불의 길을 가려는 숭고한 마음, 존엄한 영혼을 지닌 이들이 어딘가에 꼭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같은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픈 내용이 이 책에 담겨있습니다.

지광스님의 위로TV 유튜브에서 지광스님의 위로 검색하세요

법어



庭前楊柳春來靑(정전양류춘래청)이나
人生一去更來難(인생일기갱래난)이라.
欲免生死輪廻苦(욕면생사륜회고)인댄
聞得正法明此事(문득정법명차사)로다.

뜰 앞에 버드나무는 봄이 오면 저절로 푸르지만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렵도다. 누구든지 생사윤회의 고통을 면하고자 할진댄 정법(正法)을 듣고 이 일을 밝힐지니라.

어떠한 것이 이 일이냐?
脚下三尺(각하삼척)이라.
다리 아래 석 자로다.

산승(山僧)이 금일 태공당 월주 대종사 각령(覺靈)전에 법공양을 올리오니, 잘 받아 간직하시어 역겁(歷劫)에 매(味)하지 않고 진리의 삼매락(三昧樂)을 누리소서.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반산보적(盤山寶積) 스님이 남달리 발심(發心)하여 정진에 전력을 쏟던 중, 어느 해제일에 다른 처소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걸음걸음 화두를 놓지 않고 가는데 우연히 시장을 지나가다가 식육점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어떤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와서, "깨끗한 고기 한 근 주시오." 하니, 주인이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차수(叉手)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깨끗하지 못한 고기입니까?"

이 말이 들려오는 순간, 보적 스님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과 여러 도인께서 설해 놓으신 낱낱 법문에 활발발지(活鏡鏡地)를 얻지 못하여, 또 애를 써서 공부를 지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동구 밖을 지나가다가 상여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여꾼들이 노제(路祭)를 지내고 상구(喪具)를 매면서 선소리 하기를, "청천(靑天)의 붉은 수레는 서쪽으로 기울어가건마는, 알지 못하겠구나. 금일 영혼은 어디로 가는고?" 하니, 상주들이 일제히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哭)을 하였습니다.

이 곡하는 소리에 보적 스님은 확철히 깨달았습니다. 그 길로 마조(馬祖) 선사를 찾아가 뵙고 문답이 상통(相通)되어 마조 선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필경(畢竟)에 진리의 일구(一句)는 어떠한고?
到頭霜夜月(도두상야월)이
任運落前溪(임운낙전계)이로다.
마침내 늦가을 달이
집 앞 개울에 떨어져 출렁임이로다.

불기 2565년 7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분향

조전



한국불교와 나라의 큰 어른이신 월주 큰스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구도의 삶과, 이웃의 고통을 품어주는 이타행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신 스님의 입적이 안타깝습니다.

스님의 삶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현대사였습니다. 민주주의 실현, 남북 평화, 양극화 해소, 환경보호, 국제 구호를 위해 온갖 궂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셨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때는, 직접 광주를 방문하여 다친 시민과 군인을 보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아프고 힘든 이웃을 보듬고 함께한다면 우리 국민은 코로나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큰스님의 정신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7월 2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영결 · 다비식이 7월 26일 김제 금산사서 봉행됐다. 사진은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가 영결식에서 법어를 하고 있는 모습.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7월 22일 원적에 들었다. 월주 대종사는 종단 개혁을 이끌며 현재 조계종 종무행정 체계의 기틀을 잡은 현대 한국불교사의 산 증인이다.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하며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활동하며 방향성을 제시해 큰 족적을 남겼다. 대종사의 삶 자체가 임종게였다고 할 만하다. 세연을 다한 대종사는 적멸의 길로 나아갔다. 7월 26일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된 영결식과 다비식 현장을 담았다.

〈편집자 주〉



장의위원장인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영결사를 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종단 대표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김희중 천주교광주대교구장이 대종사 영전에 헌화하고 있다.



안숙선 명창이 대종사가 생전 좋아했던 심청가를 조가로 부르고 있다.

"'깨달음의 사회화' 대종사 유훈 계승 최선"

월주 대종사 문도 대표 스님들 7월 25일 금산사서 기자간담회

"평생 '깨달음 사회화' 강조 큰가르침을 전했던 선지식" 활동계승 논의 지속하겠다

김제 금산사=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월주 대종사 문도 스님들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원적에 든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제자들이 대종사의 생전 가르침을 회고하고 이를 계승·선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님들은 특히 "체구는 작으셨지만 정말 거인같은 스승이셨다"며 "가르침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한국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금산사 총무국장 화평 스님 등 문도 대표들은 7월 25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종사 입적 이후 처음으로 문도 스님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별도로 준비한 문건 없이 기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자유롭게 진행됐다.

일원 스님은 "황망하게 큰스님을 보낸 제자들은 그 슬픔을 감출 길이 없다"며 "많은 분들이 추모의 뜻을 전해오고 있어 영결식을 앞두고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스님들은 은사 월주 대종사와의 일화를 회상하며 크나큰 가르침을 재차 되새겼다. 특히 "한평생 발디딘 곳에서 보살도를 실천하셨기에 그 삶이 곧 수행과 둘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대승보살의 삶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화평 스님은 대종사의 빈자리를 묻는 질문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동안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스님은 "대종사의 빈자리를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며 "복지관장 소임을 맡고 있던 제게 항상 '보살행이 바로 복지이며 복지를 잘 하는 것이 보살행'이라고 강조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귀일심원 요익중생'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복지에 형식적으로 임하지 말고 매순간 모두를 진심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다"고 밝혔다.

생전 나눔의집 사태로 인한 상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들에 따르면 월주 대종사는 생전 "할머니들을 잘 모시는 일이야 말로 제2의 항일운동"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스님들은 "한평생 진심으로 삶을 살아왔던 분이시고 명예를 중시했기에 나눔의집 사태와 관련한 상심도 적지 않았다"며 "직무정지까지 당하면서 명예가 실추되고 지난 29년간의 원력까지 부인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다"고 설명했다.

나눔의집과 관련한 명예회복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자연스레 정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우 스님은 "나눔의집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또 현재의 혼란이 어떤 결과를 맺을까에 대해서는 향후 지켜볼 일"이라며 "대종사께서는 나눔의집을 운영하는 29년 간 한 번도 보수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헌신하셨지만, 스스로 헌신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셨다. 그 원력이 언젠가 진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평 스님도 "나눔의집을 보면 그 역사적 인식이나 의미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과 신뢰, 지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아쉽게도 업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상처가 되고 혼란이 야기됐다. 저희 입장에서는 혼란은 있었지만 앞으로, 잘 정리하고 해결해서 어떻게 다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계 안팎으로 큰 족적을 남긴 만큼, 이를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한 고민도 적지 않았다.

도법 스님은 "대종사의 사상이나 정신, 이를 구현한 활동과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만만한 일들이 아니다"며 "더욱이 대종사께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현재 대종사의 임종을 맞이하고 상을 치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쁘다. 앞으로 어떻게 계승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 방향성을 심층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평생 모든 가르침을 삶 그 자체로 드러냈기에, 제자스님들의 뇌리에 각인된 일화들도 적지 않았다.

도법 스님은 "일생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과 가르침은 양적으로 대단히 많다. 핵심적으로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이고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평생 살아오셨고 제자들에게도 이를 당부하셨다"며 "입적을 앞두고도 대종사께서는 일생 동안 살아온 삶 자체가, 당신이 남긴 가장 정직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굳이 열반송을 따로 남길 필요가 있겠냐는 입장도 보이셨다"고 전했다.

성우 스님은 "일상적이고 대단히 소박하지만 매순간 철저하게 삶을 바꾸어 나가신 분"이라며 "식생활을 비롯해 실생활 하나하나에서 매우 절제된 삶을 사셨다. 일반적인 수행은 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형태이지만, 대종사는 삶 자체를 수행으로서 가꾸어 나가셨다"고 회고했다.

일원 스님도 "한평생 한 입으로 두 말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며 "저의 삶을 지탱해 주는 큰 가르침을 넘치게 받았다. 이를 따르기 위해 한평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들은 월주 대종사의 수행자적 면모에 대해서도 현대적인 시각에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대종사의 삶은 매우 총체적이고 심층적이기에, 전통적인 불교수행의 시각에서 보면 수행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나지 않지만 삶 자체가 이미 수행이었다"고 회상했다.

스님은 "일생 당신이 서 있는 현장을 떠나신 적이 없으며 늘 지금 여기 딛고 서있는 현장에서 삶을 가꾸어 오신 분"이라며 "더러운 연못에서도 피어난 향기로운 연꽃과 같이 오염의 현장에서 당신의 삶을 더욱 청정하게 피워내신 분이다. 그분의 수행은 특별한 형식이 아닌, 삶이 곧 수행이 되고 삶과 수행이 일치하는 데 닿아있다. 곧 대승보살도의 삶"이라고 추모했다.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영결 · 다비식이 7월 26일 김제 금산사서 봉행됐다. 월주 대종사의 법구가 안치된 연화대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대종사는 그렇게 적멸의 세계로 나아갔다.



월주 대종사 문도들이 만장을 들면서 법구를 이운하고 있다.



문도 대표 스님들이 법구가 안치된 연화대에 거화를 하고 있다.



불자들은 아미타불 염송을 하며 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월주 대종사의 법구는 연화대로 안치되기 전 대종사의 손길이 묻어있는 금산사를 돌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이 시대의 인로왕보살… 속환사바 하소서”

7월 26일 태공당 월주 대종사 영결 · 다비식 엄수

종정 예하 증명… 법어에서 상찬
불교계 안팎서 각계 인사들 참석
조사·추모사서 가르침 계승 다짐
美대사관 등 해외서도 애도 물결

조계종 제17대 · 28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불교계 안팎으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 만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최소화 방침에도 생전 스님과 각별한 인연을 기억하는 각계 인사들이 금산사를 찾아 스님의 가르침을 기렸다.

특히 각계의 추모사와 추도사, 조사와 조전 등이 수없이 이어졌을 뿐 아니라, 대만 불광산사와 미국 대사관 등 해외에서도 이례적으로 조전을 보내와 국내외, 분야에 한정되지 않았던 대종사의 넓은 활동상을 유추할 수 있게 했다.

태공당 월주 대종사 종단장 장의위원회(장의위원장 원행)는 7월 26일 김제 금산사 처영문화기념관에서 월주 대종사 영결식을 봉행했다. 만월당에 안치됐던 대종사의 법구가 처영문화기념관으로 운구된 데 이어, 오전 10시 명종 5타와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영결식이 시작됐다.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기념관 내에는 50명만 자리했으며, 그 외 대중들은 외부에 마련된 스크린을 통해 스님의 떠나는 길을 마음으로 배웅했다.

영결식은 조계종 어산종장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이어졌다. 인묵 스님과 덕산 스님의 영결법요에 이어 상좌 대표 도영 스님과 도법 스님이 헌다와 헌향으로 스승을 추모했다. 이어 지명 스님의 행장 소개 후, 월주 대종사의 생전육성법문을 통해 드높았던 가르침을 재차 되새겼다.

월주 대종사의 삶은 한국불교 근현대사 곳곳에 스며 있었다. 종단 내부로는 불교정화와 종단 개혁의 중심에 섰다. 10.27법난으로 아픔을 겪은 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첫 총무원장으로 개혁종단을 이끌며 정교분리 원칙을 바로 세워 종단의 위상을 제고했고 종단의 행정체계와 교육시스템을 개혁해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동시에 대사회적으로는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며 큰 족적을 남겼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는 육조혜능 선사의 가르침 그대로를 삶으로 증명했을 뿐 아니라, 그 삶 자체를 임종게로 남겨 후학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다.

장의위원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영결사를 통해 “오늘 저는 저의 은사이자 한국불교의 큰 스승이신 태공당 월주 대종사를 적요의 세계로 보내드려야 한다”며 “1961년 금산사 도량에 주지로 부임한 후 60여년 간 손수 어루만지시던 돌덩이와 초목은 지금도 제자리인데 대종사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라며 스승을 떠나보내는 비통함을 전했다.

원행 스님은 “월주 대종사는 일평생 우리 종단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정진했던 ‘종문(宗門)의 사표(師表)’였기에 남기신 자취가 너무도 크고 무겁게 다가온다”며 “매사 공심을 앞세우며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그 삶은 종단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월주 대종사는 생사무상의 고통을 느끼고 출가를 단행하신 이래 수행과 포교와 중생구제가 다르지 않음을 일생일관(一生一貫)으로 실천하신 선지식이었다”며 “또 산중불교만이 아닌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중생교화를 위해 몸소 사바세계에 뛰어들어 중생과 함께하며 동체대비의 보현행원을 시현했다”고 상찬했다.

조계종 원로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는 추도사에서 “월주 대종사는 현대불교사를 이끌어 온 산 증인이자 살아있는 역사, 정신적 기둥이었으며 또한 불교의 미래를 여는 혜등이요, 인로왕보살이었다”며 “지금 종도들은 정신적 기둥을 잃고 대들보와 서까래가 무너진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생몰이 없고 오고감이 없는 기용(機用)으로 은현자재(隱現自在)함을 한 번 보여달라”고 전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문 스님은 조사에서 “모든 날을 마지막 날처럼 살았다고 하시는 스님의 일생은 보살의 삶 그 자체였다”며 “삶의 모든 순간은 찰라 생하고 찰라 멸하니,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이며 행복한 세상이다. 오늘 이 자리는 슬픔으로 가득하지만 또한 원각도량인 것”이라고 추모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경우 스님(선운사 주지)는 “무시무종(無始無終)하며 시종(始終)이라 할 것도 없으니 이 또한 진공묘유의 가르침으로 여기며 속환사바하여 환희증명해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했으며,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일오 스님은 “모악 영산에 달빛 무성하고 금산 동천에 물소리 흥겨운 성하지절(盛夏之節)에 평생 문수의 머리와 보현의 손발로 입전수수(入廛垂手)하시던 자애로운 큰스님 영전에 일주청향(一炷淸香)으로 삼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월주 대종사께서 조계종 28대 총무원장에 선출된 직후 고단한 한국불교계를 으뜸으로 이끄셨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며 “스님의 한걸음 한걸음은 대한민국을 선진사회로 이끄는 초석이 됐다, 스님의 큰 뜻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전에서 “한국불교와 나라의 큰어른이신 월주 대종사께서는 구도의 삶과 이웃의 고통을 품어주는 이타행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셨다”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아프고 힘든 이웃을 보듬고 함께한다면 우리 국민은 코로나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그 정신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종사 원적 직후 7월 23일 분향소를 직접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표 스님들, 불교계 주요 스님들 뿐 아니라 김희중 천주교광주대교구장 등 이웃종교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前 법무부장관과 윤석렬 前 검찰총장 등 주요 대권주자들도 자리했다. 또 이원욱 국회정각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박준배 김제시장, 안숙선 명창 등 월주 대종사와 인연이 깊었던 인사들이 찾아와 조사를 통해 스님의 입적을 애도했다.

영결식 이후에는 다비식이 이어졌다. 대종사의 법구는 영결식이 진행된 처영문화기념관을 나서 보제루와 범종각, 대장전, 대적광전을 지나, 미륵전, 적묵당 등 대종사의 손길이 담긴 경내 곳곳을 돌아 연화대로 이운됐다. 수백기의 만장이 줄지어 장엄한 가운데 장의위원 스님과 문도들이 위패와 영정을 안고 함께했다.

“불, 법, 승! 스님 불 들어갑니다.” “속환사바하소서!”

다비의례에 이어 대종사의 법구가 거화됐다. 연화대에 안치된 대종사의 법구에 불꽃이 타오르고 연기가 산화하기 시작했다. 연화대를 둘러싼 사부대중은 합장한 채 염불을 하며 대종사의 속환사바를 발원했다. 눈물을 훔치거나 흐느낌으로 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불자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세간과 출세간을 넘나들며 가르침을 전한 태공당 월주 대종사는 그렇게 영원한 적멸의 세계에 들었다. 그가 남긴 고고한 가르침은 중생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 생생히 이어질 것이다.

특별취재팀=신성민 · 노덕현 · 송지희 기자
조동제 전북지사장

추도사



이 山中의 主人이 세연을 접고 원적을 이루자 母岳山이 솔바람 소리를 멈추고 비통함에 젖어 울고 있습니다. 만물도 슬픔을 참지 못해 몸을 뒤척이며 산 빛도 빛을 바꾸어 슬픔에 젖었습니다.

이렇게 森羅萬象이 옷깃을 여미고 애도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어두운 가슴을 깨달음으로 밝혀주고 無生의 智慧를 가르쳐 주시던 우리 宗門의 눈 밝은 宗匠인 太空堂 月珠大宗師께서 圓寂을 이루어 還歸本處하셨기 때문입니다.

큰스님!

스님은 우리 현대불교사를 이끌어온 산 證人이요 살아있는 역사요 정신적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미래를 여는 慧燈이요, 引路王菩薩이었습니다. 스님의 隨緣行化는 너무 광활하고 大方無外하여 역임한 자리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金山寺 住持를 비롯, 宗團의 높고 낮은 地位를 모두 거치고 宗會議長, 元老議員은 물론이고 總務院長을 두 번이나 역임하면서 宗團中興의 礎石을 놓고 改革을 추진하여 오늘의 宗團을 安定시켰습니다.

昨夜石女生獅子(작야석녀생사자)
今朝鶴舞飛蒼天(금조학무비창천)
어젯밤에 석녀가 사자 한 마리를 낳더니
오늘 아침에는 학이 춤을 추고 하늘로 날아가네.

불기 2565(2021)년 7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수봉 세민 분향

영결사



오늘 저는 저의 은사이자 한국불교의 큰 스승이신 태공당 월주 대종사를 적요의 세계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50여 성상을 넘게 보아온 모악산의 산자락은 오늘 왜 이리도 처연하고 적막할 뿐입니까? 출가사문으로 생사와 별리의 경계는 마땅히 넘어서야 하겠지만, 스승을 보내드려야 하는 이 비통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태공당 월주 대종사는 일평생 우리 종단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정진하셨던 ‘종문(宗門)의 사표(師表)’이십니다. 대종사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종단의 대소 소임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두 차례에 걸쳐 조계종 총무원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대종사는 이 시대의 진정한 보현보살이셨습니다. 대종사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의 삶은 보살도(菩薩道)와 보현행원(普賢行願)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월주 대종사의 보현행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과 ‘지구촌공생회 운동으로 대표됩니다. 대종사께서는 항상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던 시절, 대종사께서는 경기도 광주에 나눔의 집을 건립하여 할머님들을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대종사께서 남기신 자취가 너무도 크고 무겁게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이제 남겨진 저희 종도(宗徒)들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회의 아픔과 이 시대의 고통은 이제 누구에게 의지하여 치유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태공당 월주 대종사이시여!
속환사바(速還婆婆)하소서 !

불기 2565(2021)년 7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벽산 원행 경배(敬拜)

태공당 월주 대종사 영결 · 다비식 영상 뉴스는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불교계, 환경운동 본격 나섰다

녹색사찰 선정 및 네트워크를 구축

도림사, 제 1호 녹색사찰 지정
반야선원, 포교사단과 캠페인
9월 불교 환경연대 지부 창설
사찰 환경네트워크 구축 기대


반야선원에서 포교사들이 쓰레기 줍기를 하며 생활 속 환경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계가 환경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팬더믹의 근본 원인이 기후변화로 지목되는 가운데, 높아진 환경 보존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사찰 환경단체 구성과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 동래구 도림사(주지 정찬)는 7월 12일 불교환경연대 부산 제1호 녹색사찰로 지정, 현판식을 봉행했다.

도림사는 그동안 환경운동을 전개해 개인 물컵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빈그릇 운동 실천하기 등 부산지역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펼쳐왔다. 이날 현판식에는 주지 정찬 스님을 비롯해 주순희 부산동래구의회 의장, 강명임 사회도시위원장, 신도 20여 명이 참석했다.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은 현판식에서 "무소유와 생명존중은 부처님이 일러준 공존의 가르침"이라며 "특히 자연보호와 같은 환경보존은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인 교육으로 생활 속 실천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찬 스님은 "도림사 대중은 적극적인 환경 수호 활동으로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사찰에서 환경법회와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찰은 부산 해운대 반야선원(주지 허공)이다.

반야선원은 정기적으로 녹색불교아카데미와 환경법회를 열고 있다. 반야선원 환경법회에는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중동부지역(총괄팀장 최우성) 소속 80여 명이 참석한다.

반야선원 녹색불교아카데미는 올해 4월부터 매월 진행 중으로 전문가를 초청한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특강은 '기후위기시대 불교의 생명살림 사상과 실천', '불교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생명살림의 지혜', '환경위기시대 불자들의 역할과 생활양식' 등으로 8월 8일 오전 10시에는 '선(禪)적인 깨달음과 생태주의'를 주제로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강연할 예정이다.

녹색불교아카데미서는 9월 19일 최송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의 '숲을 지키고 가꿔온 사찰의 문화와 산림보존' 강의, 10월 24일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돌아본다' 강의, 11월 21일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의 '불교의 전통과 사찰의 생명존중의 가르침' 강의, 12월 12일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 소장의 '축복받은 불안, 거룩한 불편, 희망 만들기'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반야선원 환경법회와 녹색불교아카데미 특강에 참여하는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중동부지역은 환경수호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매일 반야선원 인근서 쓰레기 줍기 및 텀블러 나누기를 진행한다. 텀블러 나누기는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새 텀블러를 모아 시민들에게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최우성 총괄팀장은 "반야선원 주지 허공 스님의 환경에 대한 원력에 함께 마음을 내게 되었다"며 "매월 열리는 환경법회서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방법을 알게 돼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최 총괄팀장은 이어 "이 지역은 위락시설이 많아 피서철이면 환경 훼손이 많다. 지역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보호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9월이면 부산지역 사찰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불교환경연대 부산지부도 탄생할 전망이다. 불교환경연대 부산지부에는 반야선원, 도림사 등 사찰이 참여한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부산불교계에서 지역 환경활동 필요성에 지부 창립 목소리가 높았다"며 "9월 창립 이후 녹색사찰 네트워크 구축 및 생활캠페인 전개, 워크샵, 아카데미 개최 등으로 환경의식 개선과 실천을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태종 광명사, 25일 생명존중법회 봉행

춘광 스님 "자살 예방 구체적 노력 이어가야"


부산 광명사는 7월 25일 3층 지관전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 행복나눔 특별법회'를 개최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는 7월 25일 3층 지관전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 행복나눔 특별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서 주지 춘광 스님은 "자살 고위험군, 특히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인신난득 불법난봉(人身難得 佛法難逢)이라 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어렵다. 자살로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불자들이 나서고 생명 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이번 법회를 시작으로 생명보호를 위한 전문 상담과 강연 등 구체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 후에는 강연이 이어졌으며, 이필원 동국대 교수가 진행했다.

이 교수는 "주변에서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는 친구나 가족, 이웃들이 있다면 보살의 마음으로 손잡아 주어야 한다. '알아차림'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신건강 정책으로 학교, 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상담을 통한 예방을 강조한다. 종교단체에서도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EM활용으로 지구를 살려요"

울산 용화사, 7월 24일 기후학교 EM특강 개최

한마음선원 혜눌 스님 강연
EM활용 의미 및 방법 설명


한마음선원 혜눌 스님이 강연 후 EM발효기를 사찰측에 전달하고 있다.

울산 용화사(주지 현덕)는 7월 24일 용화사 반야선원에서 '찾아가는 기후학교 EM으로 환경을 살린다' 특별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는 용화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한마음선원 혜눌 스님, 부산 도림사 선담 스님, 변수정 불교환경연대 울산지부 사무처장 등 사부대중 30여명이 동참했다.

한마음선원 혜눌 스님이 진행한 이날 강좌에서는 단체소개 및 EM발효통 전달, EM만들기 시연 등이 진행됐다.

혜눌 스님은 "지구 무사고 발원으로 한마음선원은 EM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실천만이 지구를 사랑하는 첫 단계, 시작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저희 사부대중은 합성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EM 친환경 세제와 EM치약, EM비누 등을 개발하고 사용 중이다. 아울러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EM 발효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혜눌 스님은 이어 "EM은 지구를 살리는 신비한 미생물이다. 생활악취 제거 및 수질개선 효능이 뛰어나다. 직접 EM 발효액을 만들고 환경보존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용화사 주지 현덕 스님은 "환경의 중요함을 알고 정확하게 배우고 익혀 불자들의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일상에서 나오는 쌀뜨물을 버리면 수질오염이 되지만 EM을 만들어 사용하면 기후위기를 대비 할 수 있다"며 "불편하지만 솔선수범해 사용하고 수질개선에도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한편, 찾아가는 기후학교 EM 강좌는 울산환경연대와 한마음선원 혜눌 스님이 지구환경 보호 및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강좌 신청은 울산환경연대를 통해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생명나눔 부산, 15주년 기념 강좌 개최

7월 22일 영광도서 문화홀서 '장기기증 필요성' 주제로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7월 22일 서면 영광도서 문화홀에서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 강좌-장기기증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특별 강좌를 열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는 7월 22일 서면 영광도서 문화홀에서 창립 15주년을 맞아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 강좌-장기기증의 필요성' 특별 강좌를 개최했다.

강좌는 크게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박동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이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했으며 2부에서는 복춘희 前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영남지부장이 뇌사자판정 및 기증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했다. 3부에서는 생명나눔 특별강좌 수료증 및 기념품 전달이 진행됐다.

수료증 전달에서 부본부장 자인 스님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 지키기에 함께 동참 노력해야 한다"며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장기기증, 난치병 환아돕기 등 다채로운 생명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템플스테이 인스타그램 이벤트

#두근두근템플스테이 #우리지역_힐링드림

접수 방법
1.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가보고 싶은 사찰 찾기
2. 인근 관광지를 연계해 여행 코스 계획 후 카드뉴스 제작 6장 이상(표지 - 여행 코스 - 관광지 소개 3장 - 마무리)
3. 참가자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간단한 소개와 함께 업로드(계정은 공개 상태로 설정)
   필수 해시태그: #두근두근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힐링템플드림 @templestay 계정 태그 필수
4. 주소창에서 **템플스테이.COM** 접속 후 **참가신청서 등록**하면 참여 완료

진행 일정
접수 기간: 2021년 8월 2일(월) ~ 23일(월) AM 11:00
결과 발표: 2021년 9월 중 개별 안내(시상식 진행 예정)

유의사항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미지 활용해 콘텐츠 제작.
수상 이력이 있는 작품이거나 표절 작품은 수상할 수 없음.

시상 내용

1등	1명	상금 50만 원 + 템플스테이 체험권 2매 + 상품
2등	2명	상금 30만 원 + 템플스테이 체험권 2매 + 상품
3등	3명	상금 10만 원 + 템플스테이 체험권 2매 + 상품
인기상	4명	모바일 기프티콘 + 템플스테이 체험권 2매 + 상품
입 선	30명	모바일 기프티콘 + 본디나 기념품

* 본디나 기념품은 수상자 전원에게 지급합니다.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
* 상품: 소정의 이벤트 기념품
* 모바일 기프티콘: 1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

문의처
TEL: 070-4366-7013
E-MAIL: jin@eggpr.co.kr



참가신청서 등록 바로가기

“지역 봉사자 자녀 학업도 지원해요”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 7월 28일 장학금 전달해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는 7월 28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자녀 2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오른쪽은 진성 스님이 봉사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

지역 봉사자 가족 23명 선정

학업장학금 810만원 전달해

25년까지 매년 1천만원 약정

지역 봉사자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회가 있어 화제다.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는 7월 28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최주연) 봉사자 자녀 23명에게 장학금 81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갑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사회부장 현담 스님, 천지사 주지 현진 스님, 전 춘성 진안군수, 김광수 진안군의회의장, 서거석 前 전북대 총장, 박금태 복성개발 회장, 최주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재현 나누우리 봉사단장, 윤복길 마이산탑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은 자원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자원봉사로 행복해지는 진안 만들기’ 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한 공이 큰 진안군 자원봉사자 자녀 등으로 진안군 23개 자원봉사단체 및 협약기관에 의해 추천 선발됐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갑룡장학회의 장학금 전달은 봉사자들의 가족까지 돕겠다는 의미로 호평을 받고 있다.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은 “봉사 정신이 투철한 학생과 부모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린다. 이와 함께 이들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장학 후원 사업을 20년 넘게 꾸준히 실천한 갑룡장학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거석 前 전북대 총장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축사를 통해 “진안이 작은 지역임에도 전국 제일의 자원봉사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훌륭하신 봉사자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전국 어디에도 없는 봉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봉사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온 갑룡장학회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빛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장학금 전달식 후에는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이 장기 장학협약을 맺었다.

이날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매년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후원한다.

이사장 진성 스님은 “자라나는 세대에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안사랑장학재단과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미래세대 장학지원사업을 5년간 함께 진행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 일시적인 금전적 후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전춘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진성 스님과 진안사랑장학재단이 인연을 맺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갑룡장학회에서 후원한 장학금은 지역의 미래를 위하고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소원정사 독거어르신 삼계탕 전달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가 7월 26일 광주 서구 상무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200여 독거어르신에게 삼계탕을 나눴다.

자비신행회(대표 이화영)와 남도식품(대표 이계수)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계 스님을 비롯해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 서대석 서구청장, 이현옥 자비신행회 이사, 손회숙 서구청불자회장 등이 함께했다.

도계 스님은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아름다운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더운 날 건강을 챙기자”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날 어르신들에게 전달된 삼계탕은 소원정사 신도와 자비신행회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조리한 것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계, 방역 위로 선물 전달



소원정사, 원효사,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스님과 신도들이 과일을 전달하며 공무원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

1200여 공무원에게 과일 전달

더운 여름 방역활동에 지친 공무원들 위로하기 위한 선물이 전달돼 화제다.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 원효사(주지 해청),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 자비신행회(대표 이화영) 등 4개의 사찰과 단체는 7월 23일 광주 서구청(청장 서대석)을 방문해 최근 확진자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방역활동과 폭염대비 근무로 지친 1200여 공무원에게 여름철 신선한 과일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 서대석 서구청장, 손회숙 서구청불자회장과 회원들이 참여했다.

도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요새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방역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피로도는 더욱 심할 것이다. 작은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담아 과일선물을 준비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혜월 스님도 “더운 여름 늘 건강하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함께 한 해청 스님도 “작은 선물이지만 맛있게 드시길 소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대석 청장은 “불교계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다.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달된 과일은 수박을 비롯한 여름철 인기 과일 3종류로, 각개 포장돼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원 돌부처의 美 나투다

남원 향토박물관 9월 1일까지

불교유적, 석불상 사진전 개최



7월 28일 시민들이 석불상 사진전을 둘러보고 있다.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9월 1일까지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에서 ‘남원의 불교유적, 석불상(石佛像)’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석불상 사진전은 남원지역에 산재해 있는 석불상 20여 점의 사진 자료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다.

남원시는 7월 28일 “남원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유적이 분포한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며 “특히 남원에는 각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석불상과 불교미술품 등이 산재해 있다. 사진전은 이러한 남원의 불교유적을 소개하는 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2015년 지정문화재 불상 사진 전시전에 이은 두 번째 기획전으로 당시 소개되지 못한 석불상과 2010년대 이후 재발견된 석불상 등이 소개된다.

특히 노적봉, 덕음암, 사석리, 제바위, 사촌리, 유암리사리, 호기리, 신흥사지, 신계리 월계, 내척동, 서곡리, 용정, 극락사, 창덕암, 덕치리 등 남원 각처에 산재한 석불입상들의 사진이 공개된다. 이중 월계, 사촌리, 유암리사지 석불 등은 2010년대 이후 지역연구자들에 의해 재발견되고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불상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나눔문화재단, 나눔의 쌀 1100kg전달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사장 양동호)은 7월 19일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에 나눔의 쌀 1100kg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 보은사 주지 도제 스님을 비롯해 이용빈 국회의원 부인 김미영 여사, 최창인 보은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부한 쌀은 김미영 여사가 사찰에 공양미를 올리는 마음으로 마련했다.

김미영 여사는 “평소 부처님에게 늘 공양을 올리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번에 올린 공양미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좋은 곳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성 스님은 “기부하신 쌀은 외국불자들과 지역 불교계에서 소중한 곳에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안동불교, 교도소에 생수 5000병 보시

안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륜, 대원사 주지)는 7월 8일 안동교도소 재소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생수 5,000병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생수 5000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면회와 법회 등 외부 접촉이 제한된 수용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교도소 측은 생수를 얼려 수용자들에게 매일 1병씩 제공한다.

이번 전달식에는 코로나로 인해 안동불교사암연합회장 도륜 스님과 김영주 안동사암연 사무국장, 교도소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도륜 스님은 “코로나19로 법회와 면회가 중단 되는 등 어려운 사정에 처한 수용자를 위해 앞으로 법회가 열리면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번 생수가 연일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의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수업참여 오프라인(황룡원), 온라인(Zoom)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불교의 현대적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9월 8일, 수)	2일차 (9월 9일, 목)	3일차 (9월 10일, 금)
09:00~12:00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마음과 과학 특강
14:00~17:00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현대인을 위한 포교	
18:30~20:30	한마음 교육의 원리 ‘나로부터의 시작’	온택트 시대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8~8/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조선이여 법의 등불을 밝혀라	원행 스님	불교신문사	6	현실은 영원이다	지광	위로
2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7	부처님 건강법	현담 스님	선
3	지옥에서 연꽃을 피운 수도자 아내의 수기	변영희	바른법연구원	8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4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합본)	초펠	하늘호수	9	진리와 자유의 길	법정 스님	지식을 만드는 지식
5	술술 읽으며 깨쳐가는 금강경	하도겸/정호선 외	운주사	10	모든 발걸음마다 평화	틱낫한	불광

책세상

"'화' 철저히 통찰할 때 자유로워져"



화, 이해하면 사라진다
일묵 스님 지음
불광 펴냄/1만6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화를 다스리는 고금의 수많은 지혜와 현대의 정신의학적 조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화' 때문에 괴롭고 불행하다. 인간은 정말 화 없이 살 수 없는 것인가. 불교를 철학적 기반에 두고 삶의 핵심을 꿰뚫는 저서와 강연으로 꾸준히 대중과 소통해온 일묵 스님은 말한다.

"훌륭한 뇌과학자나 심리학자도 화를 참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법으로 화를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6년간 봉암사를 비롯해 미얀마 영국 프랑스 등 굴지의 수행처서 체득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화의 모든 것' 이 담겨 있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듯이, 저자는 우리 마음의 심층 구조를 낱낱이 분석해 화의 정체와 원인을 밝히고 그 처방(화를 다스리는 법)까지 완벽하게 제시한다. 무엇보다 화를 다스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화를 없앤 그 자리에 우리를 자유와 행복으로 이끄는 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동안 세 권의 저서를 통해 붓다의 오래된 지혜를 바탕으로 괴로움 없는 삶의 길을 안내해 온 일묵 스님의 네 번째 결과물이다. 저자가 '화' 에 주목한 것은 인간의 모든 고(苦, 괴로움)가 '화' 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삶이 되는 불교' 를 강조한 저자는 이 책서 화의 발생 기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스스로 수행하며 체득하고 점검한 '화를 다스리는 법' 을 제시한다. '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철저히 통찰할 때 비로소 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가 바로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

우울, 짜증, 절망, 불안은 '화'의 다른 모습

우리는 화에 대해 오인하고 있다. 분노와 격노, 미움과 악의는 화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화는 너무나 많은 형태와 이름으로 우리 마음을 괴롭히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화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한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이것이 '화' 인 줄 알아야만 화를 없애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화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저자는 '화' 와 '화 없음' 을 구분하기 위한 두 가지 척도로, '정신적 고통의 동반' 과 '대상을 싫어하는 경향' 을 제시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화의 스펙트럼은 넓어진다. 불만이나 짜증, 따분함과 같은 미세한 정신적 불만족은 물론 분노 우울 공포 두려움 비탄 절망

'화'와 '화없음' 구분척도…'정신적 고통동반' '대상 싫어하는 경향'
화 극복하려면?…화의 정체와 원인, 예방법 등 철저히 이해해야

허무 등 다소 강한 정신적 괴로움까지 '화' 의 범주로 볼 수 있다. 화의 속성과 범위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해로운 마음인지, 유익한 마음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해로운 마음은 소멸시키고, 유익한 마음은 계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있는 것이다.

내뿜거나, 참아봐야 괴로울 뿐인 '화'

우리는 화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에 나름 체득한 방식으로 화에 대처하며 살아간다.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등 감각적 욕망을 즐기기도 하고, 상대에 대해 화를 분출하고 폭력을 쓰기도 한다. 극단적으로 자해를 하기도 한다. 반대로 화를 억누르고 참으려 노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각적으로 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욕망을 더욱 커지게 하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반작용으로 정신적 불만족도 커지게 된다. 화를 터트리는 것은 나와 타인 모두를 괴롭게 만드는 최악의 방법이다. 화를 억누르고 참으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화를 해소하는 이런 본능적인 방법은 결국 화를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세상 바꿀 수 없지만 마음 바꿀 수 있어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대상' 을 변화시키려 한다. 그러나 대상(세상)은 수많은 존재가 가진 욕망과 수많은 외부 조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이뤄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란 불가능하다.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이다. 또 불행의 원인을 제공하는 대상 자체엔 고정된 괴로움이나 행복의 속성이 내재해 있지 않으므로 내 뜻대로 바뀐다고 해도 그 대상을 통해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의 대상을 두고 행복하기도, 불행하기도 한 '마음' 은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분별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마음은 인식한 대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행복을 위한 마음의 조건을 만들고, 불행의 원인인 해로운 마음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화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한 본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화가 일어나는 두 가지 조건

화를 극복하려면 화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화의 정체는 무엇이고, 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화를 버리는 방법과 화가 버려진 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화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등 화의 모든 것을 철저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이해가 충분히 숙지 되어야만 마음에 떠오르는 화를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다. 화를 인지한 다음에는, 화에 가려진 해로운 마음을 통찰해야 한다. 여기에 화의 원인인 집착(탐욕)과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된다. 욕심과 어리석음은 화가 일어나는 핵심 요소이다.

화가 사라진 자리에 지혜 드러나

우리는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는다. 이후에는 환자의 노력이 뒤따라야 병이 나을 수 있다. 지식은 실천할 때 지혜가 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화의 구조와 원리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 실천법을 안내한다. 화를 버리는 다양한 지혜와 함께 호흡수행과 마음관찰, 자애명상 등 구체적인 수행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저자가 수행의 단계까지 제안하는 까닭은 그만큼 화를 버리고 다스리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다.

당신의 행복은 세상을 바꾼다

화를 없애는 일이란 결국 자애를 계발하는 일이다. 자애는 화의 대척점에 놓인 유익한 마음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화를 없애는 지혜 중 하나로 '자애의 이익을 통찰하라' 고 제안한다. 그 중 첫 번째가 '자애는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한다' 는 것이다. 화를 극복하려는 일차적인 이유는 나 자신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데 있지만, 그러한 노력은 유익한 마음을 연쇄적으로 일으켜 세상을 향한 선의의 마음으로 확장되기에 이른다.

불교는 이 세상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서로 의지해서 생겨난다고 말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난 화는 나 자신은 물론 내 주변, 더 나아가 모든 존재에게 고통을 준다. 반대로 내 안에서 일어난 유익한 마음은 나 자신은 물론 내 주변, 더 나아가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준다. 이기주의가 난무하고, 인간애는 실종되어 공동체 의식의 변질을 걱정하는 요즘, 팬데믹으로 지쳐가는 현대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가르침이다.

백유경, 나를 비춰보는 거울



백일동안 백가지 이야기
이현수 지음/이미령 감수
담앤북스 펴냄/1만4천원

모두 네 권으로 구성된 〈백유경〉은 본래 100가지 우화를 모은 것이었지만, 후대에 두 가지가 소실되어 전해지는 아흔여덟 가지 이야기에 머리글과 권말 게송을 합해 '百喩(백유)' 라 명명하였다. 이 책은 먼저 유머와 풍자성을 갖춘 이야기를 들려 준 다음, 이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경계하는 것인지에 대해 풀어 쓰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유고집이 되어버린 이 책에는 저자의 진솔함과 성실함이 문장 곳곳에 배어있다. 저자는 작고하기까지 〈백유경〉 한문 원서를 영역본과 대조해가며 매주 한 편씩 읽고 써 내려갔다. 저자의 문장은 불도를 닦는 수행자처럼 진지하면서도 '나를 돌아보는 읽기' 로 부드럽고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래 〈백유경〉은 인도 승려 가사나(伽斯那)가 5세기경 지은 불교 우언집으로 그의 제자 구나비지(求那毗地)가 한역하여 〈백구 비유경〉이라는 이름으로 중원에 전한 것이다. 〈백유경〉 이야기 대부분이 풍자와 해학이 돋보이는 비유에 교리를 원용한 해설을 덧붙인 2단 논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자가 현대인에게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만의 특유한 문체로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백유경〉 한역 경전 4권의 구성을 따라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반추(反芻) 장에는 나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 깊이 새겨보면 좋을 어리석은 사람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 담겼으며, 두 번째 정진(精進) 장에는 쉽게 열반을 이루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라는 가르침의 이야기를 담았다. 세 번째 불도(佛道) 장에는 욕심과 집착에 물들어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범부 이야기를, 네 번째 허상(虛像) 장에서는 거짓과 허상에 매여 자신과 삶을 망치는 반면교사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는 독자들에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일독이 아니라 이독, 삼독, 다독하며 비유 이야기에 담긴 독자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매일 이야기 한 편씩 100일 동안 꾸준히, 나

백유경, 100가지 우화 모은 것
한역경전 4권 구성따라 총 4장

를 비춰 보고 내 삶을 비춰 보는 거울로 삼아 읽어 나간다면 삶이 조금씩 맑아지리라 생각된다. 저자 역시 그러한 믿음으로 써 내려가며 비워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저자는 "경전에 쓰인 문자적 가르침이나 스승의 말과 행으로 받는 가르침 모두 불교적 지혜를 완성하는 도구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혜의 완성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빠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나' 와 '나의 삶' "이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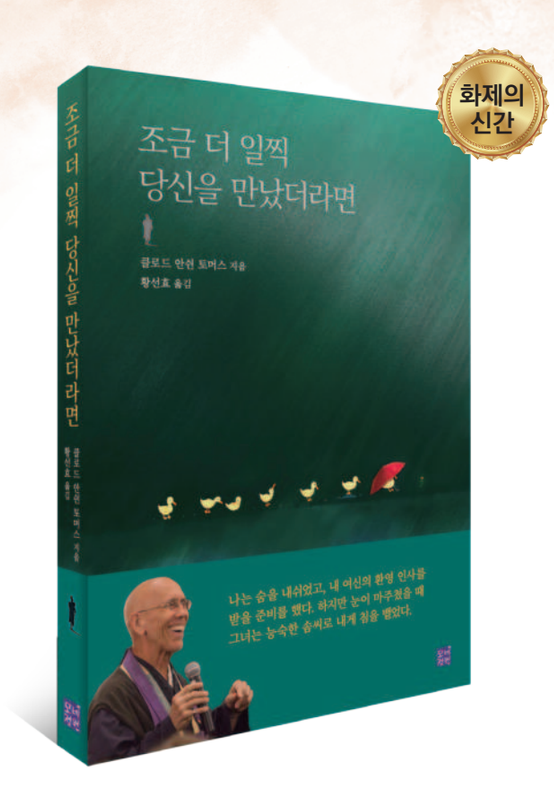
이어 감수를 맡은 이미령씨도 "장중하고 심오한 내용으로 가득 찬 다른 불교 경전에 비해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읽히는 까닭에 〈백유경〉을 어린이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 경은 어른이 읽어야 할 경전"이라며 "말 그대로 세상의 '어른' 인 것처럼 구는 우리네 보통 사람들이 한 번쯤 진지하게 읽고 그 맛을 오래도록 보면서 자신의 민낯과 만나게 하는 경전이 바로 〈백유경〉"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저자 **이현수**는?

수필가인 저자는 1954년 전북 고창서 태어났다. 2005년 〈만시지탄〉 외 9편으로 〈대한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30여 년의 SK케미칼 연구소 생활을 마치고 좋은 글과 차와 음악을 벗하며 지냈다. 불교를 만난 후에는 경전을 읽고 칼럼을 쓰며 부지런히 불자 수필가의 삶을 살아왔다. 근위축증으로 하루하루 근육의 힘을 잃어가서 관풍이라 이름 붙인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지내야 했지만 부인이 날마다 찍어오는 사진에 글을 덧붙여 블로그에 올리는 부지런함에 지인들에게는 커다란 즐거움을 안겨 주었다. 2020년 12월 28일, 사랑하는 가족과 작별인사를 나눈 뒤 잠자듯 조용히 세상과 인연을 내려놓았다. 저서로는 〈강물처럼 흘러 바람처럼 거닐다〉 〈풀어쓴 티벳 현자의 말씀〉이 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부탄재단, 불교유적 자료 아카이브 시작

부디스트도어
7월 16일 활동 보도해

동부부탄의 유적지 보존 일환
보호 관리 · 데이터 취합 전개
차세대 전문가들 교육도 진행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유적을 조사하는 부탄재단 연구원. 사진출처=부탄재단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GNH)를 위해 부탄에 세워진 '부탄재단(Bhutan Foundation)'이 최근 동부 부탄에 산재한 20여 곳의 불교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한 유적 자료 아카이브를 시작했다. 불교 전문 온라인매체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7월 16일, 특별 보도를 통해 부탄재단의 활동을 소개했다.

부탄재단은 1986년 설립돼 2002년 재출범한 국제 비영리 기구다. 부탄재단은 부탄정부의 주요 국책인 GNH의 증진, 부탄의 환경보전과 문화보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부탄재단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2015년부터 주인도 미국대사관이 출자한 '문화보존을 위한 대사 기금(AFCP)' 지원 하에 동부 부탄지역 불교유적지들의 조사와 데이터 아카이빙을 진행하고 있다.

부탄재단 측은 "이 프로젝트는 부탄 문화부와 지역 유지들과 각 사원의 스님들의 협력을 받고 있다. 최근 문화부 소속의 선임 건축가가 이끄는 전문가, 건축가, 연구원 10명으로 구성된 팀이 붐탕 북부에 산재한 20곳의 불교유적지에 대한 현장 조사와 유적지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팀에는 또 3명의 전문 여성연구원이 포함돼 주목을 끌었다. 재단은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및, 차세대 전문가 교육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부탄재단은 2015년 왕뒤촐링(WangDue Choling) 왕궁을 시작으로 붐탕(Bumthang), 몽가르(Monggar), 타시강(Trashigang) 3개 지구 54곳의 유적지에 대한 단계적 문서화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특히 동부 부탄인 붐탕지역은 현재의 부탄왕조가 시작한 곳으로 부탄의 불교와 역사가 함께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재단은 "문서화되지 않은 유적지들은 대부분 구전과 설화로 역사가 전승되고 있어 중요한 역사적 사료를 상실하거나, 관리의 소홀로 파괴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부탄의 급속한 사회적, 경제적 개발은 유형 및 무형 문화유산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황에서 유적과 유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후대에 문화를 전달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지금껏 부탄은 적절한 데이터베이스와 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한적이 없었다"며 문서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부탄 문화부는 작성되는 목록과 자료들을 통해 지속적인 문화유산의 관리를 비롯해, 새로운 문화재에 대한 등록과 지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부탄재단은 앞으로도 유사한 현장조사와 문서화가 몇 달 안에 인근지역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문서화된 20곳의 유적지 중 일부는 7세기경에 조성됐으며, 대부분 유적지는 부탄에 불교가 들어오던 시기에 불교를 전한 스님들이나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日호류지 금당, 가상현실로 만나다

쇼토쿠 태자 원적 1400주년
특별전 중 프로그램

도쿄국립박물관에 VR장치
금당 내 장엄 디지털 재현


VR구현을 위해 호류지 금당을 실측하고 있다. 사진출처=니혼게이자이 신문

607년 창건되어 고대불교사의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는 호류지(法隆寺). 개산조인 쇼토쿠 태자(聖德太子)의 원적 1400주기를 맞이한 올해, 다양한 행사와 특별전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심법당인 금당이 가상현실(VR)로 재현됐다. 특히 이번 가상현실전은 본래의 모습을 판별하기 어려운 부분을 복원하는 등의 노력이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끈다.

7월 13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 '엑사이트 뉴스' 등은 가상현실로 복원된 금당의 모습을 보도했다.

호류지 금당은 세계최고(最古) 목조건축군인 호류지 서원(西院) 가람의 중심 건물이다. 중앙의 본존불인 금동석가여래삼존상을 비롯해 협시로 모셔진 약사여래상과 사천왕상은 물론, 벽화와 천장의 장엄구들까지 모두 문화재로 지정된 보물고다. 비록 일반 참배객들에게 공개되어 있긴 하나, 현지에서는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주변의 회랑에서 철망 너머로만 예불을 드릴 수 있다.

호류지 측은 쇼토쿠 태자 원적 1400주년을 맞아 도쿄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되는 특별전 '쇼토쿠태자와 호류지'展에 맞춰 금당을 가상현실로 재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도쿄국립박물관, 국립문화재활용센터, 톳판 인쇄주식회사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나섰다. 먼저 호류지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감수 아래 금당 내부의 불상과 벽화, 장엄구까지 모든 공간과 사물들을 대상으로 입체형상 측정 및 초고해상도 촬영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모인 디지털 이미지를 기반으로 가상현실이 제작됐다. 지금까지 유물과 내부에 대한 실측과 촬영은 여러 차례 진행됐으나, 내부의 천장구조를 포함해 장엄구까지 치밀하게 촬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작된 가상현실은 단순히 현재 상태를 측정하고 구현한 것뿐만 아니라, 세월의 경과로 판별하기 어려워진 그림이나 장엄구 등의 복원 재현도 함께 이뤄졌다. 대표적인 예로 금당 내에 봉안된 여러 불상 중 본존의 좌측에 봉안된 약사여래상의 좌대는 조성당시 다양한 색깔로 채색된 그림이 그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안료의 박락과 퇴색으로 인해 육안으로는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에 가상현실의 학술감수를 담당한 도쿄국립박물관의 미타 카쿠유키 주임 연구원이 만든 추정 복원도를 기본으로 원래의 모습대로 재현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가상현실 제작은 1949년의 화재로 소실되어 알 수 없는 벽화들과 불상의 배치, 비단벌레의 날개를 이용해 만든 장엄구 등도 추정 재현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호류지 금당에 대한 학술적 연구결과들을 가시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상현실로 구현된 호류지 금당은 '호류지 국보금당-쇼토쿠 태자의 마음'이라는 작품명을 달고 7월 13일부터 도쿄국립박물관 관내극장에서 공개됐다. 쇼토쿠 태자 특별전 기간 동안 상연되는 이번 가상현실 금당에 대해 제작사인 톳판 인쇄사는 "일반적으론 들어갈 수 없는 금당을 생생하기 관람하고, 또 함께 진행하는 특별전을 통해 호류지와 그 관련 문화재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란다"고 제작 의의를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자재공덕회, 대만 코로나 백신 계약 체결

중국과 갈등 속 민간단체로 백신 확보


자재공덕회 불자들이 2019년 5월 12일 대만 타이베이 자유광장에서 열린 부처님 탄생 기념식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로이터 통신

'로이터 통신'은 7월 21일 대만 불교단체가 500만회 분의 코로나 백신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대만 불교단체는 '자재공덕회'로, 독일 백신 생산 기업 '바이오엔테크'의 중국협업사인 푸싱제약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

협력유통사인 화이자의 이름을 딴 화이자 백신으로 알려진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중국 판권은 바이오엔테크사가 갖고 있으며 바이오엔테크사는 중국 내 판매의 경우 중국 푸싱제약과 협업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대만은 중국 입장에서 정식 국가가 아니기에 이 화이자 백신 구입에 난항을 겪어왔다. 대만 정부 차원에서의 화이자 백신 구입에 중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하자, 대만 정부는 기업과 민간단체에 백신 구입을 위탁했다.

자재공덕회는 6월 백신 입찰에 나서 정부를 대신에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자재공덕회는 푸싱제약으로부터 확보한 백신을 대만 정부에 기부할 계획이다.

자재공덕회는 페이스북 공식페이지에 올린 성명서에서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백신 판권을 가진 중국 푸싱제약과 계약을 맺었다. 구매한 백신은 대만정부에 기증해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오엔테크사도 성명을 통해 "본사와 푸싱제약은 자재공덕회에 더 많은 백신을 공급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로핑청 대만 내각대변인은 "자재공덕회가 정확한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1500만회 분량이 일괄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대만 정부의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수급 난항 속에 미국은 미국 백신회사인 모더나 백신을, 일본은 자국민 접종에서 제외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증했다. 대만정부는 중국 측이 백신 확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베트남 승가, 호치민 시에 산소호흡기 기증

호치민시 외 2개 지역에도 기증해


틱 티엔 논 스님이 응우옌 티르 여사에게 다기능 인공호흡기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출처=베트남 플러스

베트남 일간지 '베트남 플러스'는 7월 23일 베트남 승가의 인공호흡기 기부 소식을 전했다. 베트남 불교계를 대표하는 '베트남 승가(VBS)'는 호치민시에 40억 동(우리 돈 2억 원 상당)이 넘는 다기능 산소호흡기 6대를 기증했다.

베트남 승가의 집행위원장 틱 티엔논(Thich Thien Nhon) 스님은 7월 23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티르(Nguyen Thi Le) 여사에게 다기능 인공호흡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

틱 티엔 논 스님은 "전국 불교계 고위인사들과 불자들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다기능 인공호흡기가 호치민시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지원으로 각 지역 주민들이 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베트남 승가 중앙위원회는 호치민시 외에도 베트남 남부 빈 즈엉 성과 롱안 성에도 각각 2대의 다기능 인공호흡기를 기증했다.

인공호흡기를 기증받은 호치민시는, 응우옌 티르의 명의로 "베트남 승가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호치민시를 도와 코로나19 예방과 통제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많은 불교 승려와 불자들이 도시 전역의 병원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의 사투를 자원해 도시를 돕고 있다"며 베트남 승가와 베트남 불교신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베트남 승가의 다기능 인공호흡기 기증은 베트남 불교가 오랜 역사 속에 이어온 국가와의 연대라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승가의 지원을 받은 의료장비로 코로나19 환자들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78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78만원

국보 · 보물, 근현대미술로 조명한 한국의 美

‘DNA :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展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10월 10일까지

일섭 ‘미륵불도’ 백남준 ‘반야심경’ 등 250여 점 전시
국보 · 보물 등 35점, 근현대미술 130점, 자료 80점
聖 · 雅 · 俗 · 和 4가지 테마 키워드로 전시 구성해
연구가 44명 ‘한국미술 다시읽기’ 시도한 도록 발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의 미(美), 그 근간은 무엇일까. 한국의 문화재와 근현대미술의 유기적 관계 고찰로 한국의 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은 7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展을 개최한다.

국보, 보물 등 문화재 35점과 근현대미술 130여 점, 자료 80여 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는 ‘한국의 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박물관의 문화재와 미술관의 미술작품을 서로 마주하고 대응시킴으로써, 한국 미의 DNA를 찾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근대의 미학자인 고유섭, 최순우, 김용준 등의 한국미론을 통해 한국의 대표 문화재 10점을 선정하고, 전통이 근현대 미술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관찰한다.

전시는 동아시아 미학의 핵심이자 근현대 미술가들의 전통 인식에 이정표 역할을 해온 4가지 키워드인 성(聖, Sacred and Ideal)’, ‘아(雅, Elegant and Simple)’, ‘속(俗, Decorative and Worldly)’, ‘화(和, Dynamic and Hybrid)’로 나뉘어 펼쳐진다.

△1부 ‘성(聖)’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의 이상주의적 미감이 근대 이후의 우리 미술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떤 형태로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고려청자의 뛰어난 장식 기법과 도상들이 이중섭의 작품 속 파격미와 전통미에 직간접으로 무관하지 않음을 발견하고, 고구려 고분벽화에 담긴 죽음 너머의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생각, 통일신라 시대 석굴암에서 볼 수 있는 부처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의 갈망에서 동아시아 미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스러움으로서의 미술을 발견한다. ‘강서대묘 현무 모사도(고구려 6세기 말~7세기)’, 이중섭의 ‘봄의 아동(1952~1953)’ 등이 전시된다.


백남준, 반야심경, 1988, 혼합재료, 133(h)×50.6×94cm

△2부 ‘아(雅)’에서는 해방 이후 화가들이 서구 모더니즘에 대한 반향으로 한국적 모더니즘을 추구하고 국제 미술계와 교류하며 한국 미술의 정체성 찾기에 고군분투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비정형의 미감이라는 차원에서 추구됐던 한국의 졸박미(拙朴美)와 한국적 표현주의를 살펴본다. 자연에 동화되어 그린 겸재의 진경산수화, 생각과 마음을 지적으로 그려 내려했던 추사의 문인화에서 격조를 추구하는 심미적 취향을 발견하고, 달항아리의 불완전성과 비정형성에서는 순수함과 무(無)의 조형성을 발견한다. 이러한 문인화와 백자가 만들어낸 전통론은 실제 1970~1980년대 한국의 단색조 추상 열풍과 백색담론으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겸재 정선의 ‘금강산도(조선 17세기)’, ‘백자대호’ 등이 전시된다.

△3부 ‘속(俗)’에서는 서양미술과 조선 및 근현대 주류 미술에 대한 반작용으로 표현주의적이고 강렬한 미감이 추구되던 장식미(裝飾美)를 살펴본다. 김홍도의 풍속화와 신윤복의 미인도가 어떻게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전통으로 자리매김했는지, 근대 이후 화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추적한다. 또한 ‘속’은 대중을 위한 불교를 추구했던 조선 시대 불교회화의 정신 및 미감과도 통한다. 조선 시대 감로도나 시왕도 등은 당대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반영하며 고달픈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면모들은 1980년대 민중예술에도 계승되어 강렬한 채색화가 유행하는 데 기반이 됐다. 일섭 스님의 ‘미륵불도(송광사성보박물관 소장)’, 신윤복의 ‘미인도’ 등이 전시된다.

△4부 ‘화(和)’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추구하며 다양한 가치와 미감이 공존하고 역동적으로 변모하던 1990년대 이후 한국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다. 신라금관(보물 제339호)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작품들은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전통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헌정되는지를 보여준다. 한국 미술의 어제와 오늘이 수천 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한국미를 대표하는 성(聖) · 아(雅) · 속(俗) · 화(和)’의 미감 속에 조화롭게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백남준 作 ‘반야심경’, ‘경주 남산 약수곡 석불좌상 불두’ 등이 전시된다.

한편, 전통미술과 근현대미술 연구가 44명이 참여해 한국미를 대표하는 문화재 10점을 중심으로 공동의 연구주제로 풀어낸 650쪽 분량의 도록이 발간된다. 전통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에 대한 근현대미술의 반응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연구한 48편의 칼럼과 논고를 통해 한국미술 다시 읽기를 시도한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국보와 보물이 현대미술작품과 함께 전시되는 보기 드문 전시‘라며 ”관람객들이 전시장에 펼쳐놓은 다채로운 미감의 한국미술을 감상하며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한국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02)2022-0600.

全 세계 우수 불교영화 한자리에



2021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서울 대한극장 8월 26~30일

15개국 62편 비경쟁초청 진행
전 세계 우수 불교영화 상영해
THE CUP · 아홉 스님, 개폐막
국제학술세미나 등 부대행사도

전 세계의 우수한 불교영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영화제가 열린다. (사)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은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2021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OIBFF)’를 개최한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자 및 국민들에게 불교 콘텐츠를 활용한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교 콘텐츠의 다양화와 대중성을 확보, 불교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영화제는 15개국의 영화 62편을 선정하여 비경쟁초청으로 진행되며, 연꽃, 라일락, 동백꽃, 수선화, 미얀마 특별전 등 총 5개의 섹션을 통해 단편, 장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전 세계의 우수한 불교영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영화제와 더불어 국제학술세미나, 청소년 영화캠프, 교구 상영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영화제 타이틀인 세계일화(世界一花, One World One Flower)는 ‘온 세상이 한 송이의 꽃’이라는 뜻으로 공식 포스터는 연꽃과 만다라를 모티브로 디자인했으며, 단청색을 사용하여 불교문화의 정체성과 미학을 담았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원장 이원덕)이 함께하는 이번 영화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증명으로 하여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학교 총장이 공동조직위원장, 차승채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가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한다. 한편, 영화제 기간 동안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해 자체 코로나19대책위원회를 설립, 대응할 방침이다. 개막식은 8월 26일 오후 4시 대한극장 7관에서 내빈과 일반 관객 약 160명(대한극장 7관 최대 수용인원 320명의 50%) 참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작은 부탄 영화로 ‘THE CUP(1999년, 94분)’이다.

폐막식은 8월 30일 오후 5시에 대한극장 2관에서 내빈과 일반관객 약 80명 참석으로 열릴 예정이다. 영화제 결과보고 및 4개 부문(연꽃, 라일락, 동백, 수선화) 시상식이 열리며 폐막작으로 ‘아홉 스님(감독/ 윤성준, 2020, 72분)’이 상영될 예정이다. 9월 10일에는 동국대학교 혜화관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와 미디어와의 접합점 탐구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9월~10월 중에는 동국대 및 충무로 일대에서 룸비니 청소년 영화캠프가 열릴 예정이다. 영화 콘텐츠 제작 참여와 경험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열리는 영화캠프는 국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불자들이 불교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4교구 상영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의 정의** : 나와 다른 음의 에너지(죽은사람 · 동물 · 식물 · 기타 모든 영적 기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 **빙의문제의 해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음적 에너지(영가기운)를 몸으로부터 분리, 천도해 주어야 이상증세, 이상행동이 바로 잡아짐(퇴마와는 다름).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도 효과가 나타남.

■ **여러 빙의증세 및 음적 에너지(영가기운)의 여러가지 영향**

① **이사후 집이나 가게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집에 우환 발생, 꿈자리 사나움, 가위눌림, 가족간 불화, 가게터와 사업장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장사가 안됨, 사고나 싸움이 잦음)

② **사람에게 빙의된 경우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데 증세는 여전한 경우**
가위눌림(밤마다 또는 가끔씩, 수많은 꿈에 시달림, 비몽사몽, 자고나도 몸이 무거움. 토끼(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 불면증(잠못 이룸)

③ **환청(이상한 소리 들림), 환각 증세 일어남**
자살충동, 과다한 음주, 폭식, 불안증세, 우울증, 대인기피증, 알수 없는 통증,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집중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④ **장례식장, 상갓집, 국내 및 해외여행 다녀온 후 이상 증세 있는 경우**

⑤ **동물영가가 들어온 경우**
많이 키우고 10년넘게 장사한 경우(집안에 급병, 급사, 우환, 각종사고), 집에 키우던 개, 기타 동물 잡아먹은 경우, 뱀술 등을 먹은 후 이상증세 있는 경우

⑥ **식물영가 (거목 및 꽃나무를 베어낸 경우)가 몸에 들어온 경우**
- 머리, 가슴, 팔, 다리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신기운에 의한 신병, 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광증 있으신 분
· 병원 다니고 여러번 굿하고 천도재 해도 효과 못보신 분 · 정신과병원 오래 다녀도 차도가 없으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천도가능함) ·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타종교인, 무종교인 상담도 가능

■ **환자상태를 상담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진행 - 육지에 계신 분 당일천도(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가능!**
■ 차후 지속관리 상담해 드림 (또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빙의치유전문상담사 (전문자격 갖춤) - 전생빙의 트레이너과정 수료!**
■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 신기운 제령 최고의 권위 실력 갖춤 - **20여년 경력, 임상 노하우 갖춤!**
■ **원격치유가능 (외국에 있는 환자도 치유가능,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빙의 진단 및 해결)**
◉ 오시는 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 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상담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 영가천도 전문상담원 문의전화 (064)746-0789



“만해 한글사랑, 석주 스님 역경불사로 계승”

만해학회 ‘석주 스님과 만해사상’ 학술대회

김광식, 석주 스님 생애 분석
평생걸친 헌신적인 역경사업
‘만해 정신’ 계승하려는 행보
포교 · 교육 업적조명 논문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석주 스님<사진>은 ‘현대 한국불교의 산증인’ 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대 한국불교의 중심에 있었다. 역경불사를 비롯해 불교정화, 사회복지, 어린이 · 청소년 포교 등 스님의 손을 거치치 않는 분야가 없기도 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불교정화운동에 매진하고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힘썼던 석주 스님의 생애와 만해 사상의 연관성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만해학회(회장 한중옥)는 8월 9일 인제 동국대 만해마을에서 ‘희망 극복의 시대, 석주 스님의 생애와 만해사상’ 을 주제로 제21차 만해축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는 ‘석주의 삶과 한용운’ 을 통해 석주 스님의 생애를 구술사로 분석하고 만해 한용운 스님과의 접점을 찾았다.

언론과 잡지 등의 기록을 살펴본 김 교수에 따르면 석주 스님과 만해 스님의 접점은 1923~1928년의 6년이었다. 그 당시 만해 스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석주 스님은 만해 스님을 선구자로 전제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석주 스님은 만해 스님이 민족운동, 문학, 불교사상 실천의 측면의 업적에서 선구자가 분명하다고 보면서, 만해 노선이 가장 바른 방향이었음을 피력했다”면서 “석주 스님은 만해 정신을 불교유산운동과 대중불교 운동의 실현, 선교(禪敎) 일치의 불교사상, 보살사상 구현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자 석주 스님은 서울로 상경한다. 당시 석주 스님은 선학원에 머물면서 불교 혁신 활동을 하였는데, 불교혁신론자들과 조계사에서 매주 모여, 불교 혁신책을 연구하고 이를 총무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교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재야 혁신단체가 모여 불교혁신총연맹을 결성했다.



총연맹을 주도했던 핵심인물들은 모두 만해 스님의 제자였다. 총연맹 대표는 선학원 이사장이었던 경봉 스님(통도사)이었고, 선학원 부이사장 김용담(망월사) 스님은 총무로 활동했다. 그 연결고리를 만든 인물이 바로 석주 스님이다.

김 교수는 “해방공간에서 불교혁신 활동에는 만해 스님의 제자들이 참가했다”면서 “석주 스님의 불교혁신 활동은 만해의 불교혁신 사상을 계승 · 구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석주 스님이 평생에 걸쳐 행한 역경불사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석주 스님의 최초 역경활동은 해방공간의 국문선학간행회였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운허 스님과 석주 스님이 의기투합해 단체의 원장과 부원장을 각각 맡아 국문으로 된 선서(禪書)를 번역했다.

1960년대부터는 법보원을 설립해 역경 사업에 매진했다. 대부분 운허 스님의 번역을 출간했지만, 탄허 스님의 〈보조법어〉 · 박한영의 〈석전문초〉 등도 발간됐다. 故 법정 스님은 법보원이 1960년대 유일 불교 출판사라고 평하기도 했다.

이후 석주 스님은 동국역경원 부원장(1964), 동국역경사업진흥회장(1989), 동국역경원 역경사업 후원회장(1995)을 역임하며 역경불사에 헌신했다.

김 교수는 석주 스님이 이처럼 역경불사 매진한 이유에 대해 “만해의 한글에 대한 사랑과 역경에 대한 소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봤다.

3.1운동을 주도한 만해 스님은 수감됐다가 출옥한 직후인 1922년 9월에 역경단체인 법보회를 창립했다. 법보회는 팔만대장경의 순우리말 번역과 고승 학설을 수집해 발간하기 위한 것이었다. 1937년에는 ‘역경의 급무’ 라는 글을 〈불교〉 신제3집에 기고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만해의 역경정신이 석주에게 이어졌을 것”이라면서 “석주 스님의 제자 송운 스님은 만해의 시문학에서 석주의 한글화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석주 스님의 역경사업은 만해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행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석주의 생애와 포교사상’,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석주 정일대종사의 교육활동과 중앙승가대’,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석주 스님의 불교혁신 활동’ 등이 발표된다.

속리산 법주사서 펼쳐지는 빛의 향연

문화재청 오는 8월 29일까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첫 선
야경 결합 쌍방향 콘텐츠 구성
미륵사지 · 정림사지서도 예정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법주사 대웅보전에 ‘법주사 창건설화’ 를 주제로 펼쳐진 미디어 파사드 구현 모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7개 사찰 중 한 곳인 보은 법주사가 첨단 미디어아트로 장엄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는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의 첫 시작인 ‘속리산 법주사 빛의 향연’이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충북 보은 법주사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7월 26일 밝혔다.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세계유산에 적용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문화재청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공모사업이자 한국판 뉴딜의 하나다. 올해에는 보은 법주사를 비롯해 익산 미륵사지, 부여 정림사지, 수원 화성, 공주 공산성에서 개최된다.

‘속리산 빛의 향연’ 에서는 세계유산 법주사의 문화재를 활용해 야경과 결합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선보인다. “법주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를 첨단기술에 담아 문화유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오리숲길, 수정교, 사천왕문, 종루 등 사찰 경내 · 외에 참배객과 상호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기법으로 꾸며진 야간경관을 관람할 수 있다. 행사 중 매일 오후 8시 10분부터 국보 팔상전에서는 ‘무명의 바람을 만나 번뇌의 바다를 헤매다’ 와 ‘팔상도와 미륵불’ 이라는 주제로, 보물 대웅보전에서는 ‘법주사 창건설화’ 라는 주제로 ‘미디어 파사드’ 가 펼쳐질 예정이다. ‘미디어 파사드’ 는 건축물 외벽을 가리키는 파사드(Facade)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로, 건축물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미디어 영상을 보여주는 기법이다.

사전예약을 통해 입장객은 오후 5시 이후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 관람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한다. 사전예약 접수는 7월 23일부터 보은군청, 법주사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받고 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참여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구성하기 위해 공모 선정 사업들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상담해 왔다”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야외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관람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유산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해 정부 혁신과 적극 행정의 우수사례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국보 반가사유상 100일 휴식 들어간다

국립중앙博 새 전시관 준비
10월 28일까지 수장고 격납
별도 전용 전시관 마련 예정
‘국립博 브랜드 문화재’ 계획



새로운 전용 전시 공간 마련을 위해 이운되는 국보 금동반가사유상. 10월 28일 새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국보 제78 · 83호 금동반가사유상이 100일 간의 휴식에 들어간다. 두 금동반가사유상의 새로운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조치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새로운 전시 공간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반가사유상 전시실 개관 D-100일을 맞아 불교조각실에 전시 중이던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을 수장고에 격납했다”고 7월 26일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국보 제78 · 83호 금동반가사유상을 같은 공간에서 상설전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올해 국립중앙박물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확인됐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은 반가사유상 전시실을 기존 3층 불교조각실에서 2층 기증관 입구로 이동하고 약 440㎡ 규모의 전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반가사유상을 ‘국립박물관 브랜드 문화재’ 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병찬 관장은 “시공을 초월해 감동과 영감을 주는 반가사유상의 보편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가미된 전시 공간을 만들겠다”면서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 전시실을 보러 프랑스 파리를 가듯 국립중앙박물관의 두 반가사유상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브랜드화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가사유상 전용 전시실은 오는 10월 28일 최적의 건축디자인과 설비를 갖추고 새롭게 공개된다. 새로운 전시를 앞두고 수장고에 격납된 반가사유상은 상태 점검을 포함해 촬영, 조명 테스트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실은 관람객 한 사람 한 사람이 반가사유상의 ‘미소’ 와 ‘사유’ 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유물관리 전문가들의 세심한 손길 아래 전시실에서 수장고로 이동하며 100일 동안의 휴식에 들어가는 반가사유상의 모습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신성민 기자



혜암
미술 공예품
개·점·안·내

5월 10일, 불상·불화·만다라·도자기등을 전시 판매하고자 **경북 포항시 기북면 불원사 경내에 혜암 미술 공예품 매장을 오픈** 하였습니다. 불상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소장성이 많은 희귀불상, 티벳 불상, 현대불상 불화는 티벳, 네팔에서 직접 구입한 여러 가지 만다라를 전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혜암 미술 공예품을 찾아 주시는 스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찾는 불화나 불상이 있으시면 찾아 드리겠습니다.

혜암 미술 공예품 대표 **신 재 훈** 배상

네비게이션에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855번지 불원사”** 로 검색 하십시오.

문의 010-5652-0174, 010-4504-017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8월 17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6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9



▶ 30회 예고
베디샤데비는 하녀들을 데리고 오후 내내 웃자인 전통음식인 달과 바플라를 만든다. 아쇼까 식탁에 웃자인 전통음식을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쇼까가 그녀의 아버지 베디샤데바에게 호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

아쇼까, 웃자인 반란군을 진압

웃자인 공격을 앞두고 아쇼까는 참모들과 함께 작전회의를 했다. 참모들이란 진압군의 각 부대장들이었다. 행군 중에 베디샤에서 가네샤신 축제를 만나 지연된 것 말고는 특별한 차질은 없었다. 임시군막 안쪽에 앉아 있던 아쇼까는 선봉대장에게 먼저 보고를 받았다.

"정찰조를 웃자인 성 안팎으로 보내 수시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웃자인 경비부대 부대장이 성 밖의 군사를 안으로 미리 보내 진압군이 공격할 때 성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쇼까가 공격전술을 정해서 명했다.

"코끼리부대가 첫 공격을 하면 반란군들이 혼비백산할 것이오. 두 번째 공격은 기마부대가 번개처럼 달려가 반란군이 저항하지 못하게 소탕하시오. 마지막으로 보병이 들어가 샅샅이 수색해 반란군 수괴와 숨은 반란군들을 생포하시오."

아쇼까는 군수부대 부대장에게 확인했다.

"코끼리와 말 먹이는 문제가 없소?"

"사실 코끼리나 말들이 이틀 동안 풀과 물을 충분히 먹지 못했습니다. 기동성이 떨어져 있으니 저는 지금 웃자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것이오?"

"웃자인에 도착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행군이 우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풀과 물을 먹지 못한 전투코끼리와 군마들의 사기는 극도로 떨어져 있었다. 갈증이 난 전투코끼리들이 물을 찾아서 코를 이리저리 휘두르거나 상아로 땅을 파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댔다. 군마들도 마찬가지였다. 날카롭게 괴성을 지르며 헛발질을 했다. 아쇼까는 참모를 질책하지 않고 공격을 지연시켰다.

"사기가 떨어진 코끼리와 군마를 돌진시키는 것은 무모한 일이오. 그러니 코끼리와 군마에게 충분한 풀과 물을 먹이시오."

아쇼까가 공격을 하루 늦추는 이유는 코끼리가 풀이든 물이든 엄청나게 먹어치운다는 사실을 보아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전투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풀의 양은 세 수레, 마시는 물은 커다란 토기항아리 열 동이쯤이었다. 그러니 전투코끼리는 눈을 뜨고 움직이는 시간 내내 입을 우물거리고 있는 셈이었다. 군마가 먹는 풀과 물은 전투코끼리에 비해 30배 정도 작았지만 이도 역시 적은 양은 아니었다. 전투코끼리가 집채만큼 많이 먹고 마시기 때문이었다. 선봉대장이 아쇼까의 명을 전달했다.

"군사는 성 밖의 웃자인 경계군사처럼 위장하라."

"코끼리와 군마들은 일몰 후에 강변으로 이동시켜라."

진압군은 공격을 하루 늦추면서 시프라강 강변으로 후퇴했다. 시프라강은 웃자인을 관통하여 강가강에 합류하는 강이었다. 진압군 군사들이 웃자인 반란군에게 노출돼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 어두운 강변에 도착한 전투코끼리와 군마들은 시프라강 강물을 다 빨아들일 듯 정신없이 마시곤 했다. 배가 불룩해진 뒤에야 강변으로 나와 어린 갈대와 잡풀들을 면도하듯 아삭아삭 먹어치웠다.

밤중에 웃자인 경비부대 부대장이 정찰조 조장과 함께 아쇼까의 임시군막을 찾아왔다. 아쇼까는 불을 켜지 않고 있었다. 군막 창을 열자 달빛이 밤안개처럼 흘러들었다. 반란군 부대장이 말했다.

"정찰조 조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성문을 열 뻔했습니다."

"공격을 늦추려고 조장을 보냈소."

"부왕이시여, 내일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모레부터는 웃자인에 축제가 있습니다. 시프라강에 성민들이 모두 뛰어들 것입니다. 부왕님의 군사들이 공격한다면 성민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좋소. 내일 새벽에 공격할 것이니 그때 성문을 열어주시오."

부대장이 돌아간 뒤 정찰조 조장이 아쇼까에게 말했다.

"반란군 부대장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문으로 들어갈 때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는 우리 편이 됐으니 믿어도 된다. 내 부하가 되어 군막을 드나들지 않느냐? 성 밖의 웃자인 경계군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도 그 자의 공이다."

그래도 정찰조 조장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반란군 부대장을 감시하도록 정찰조 군사를 붙여 미행시켰다. 그러나 웃자인 반란군 부대장은 먼동이 틀 무렵 부하들을 시켜 일제히 성문을 열었다. 성문지기 군사들은 낯익은 부대장의 지시를 따랐다. 성 밖의 경계군사들이 교대하러 들어오는 줄 알고 성문을 열었다. 성 안의 성민들은 아직 잠에 빠져 있었다. 축제 준비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대부분 골아 떨어졌다. 성 안을 수비하는 군사들도 창을 든 채 꾸벅꾸벅 졸았다.

전투코끼리들이 괴성을 지르며 천둥치듯 성 안으로 돌진했다. 졸고 있던 반란군들이 혼비백산했다. 일부 반란군들이 활을 쏘며 저항했지만 곧바로 전투코끼리에 밟혀 죽었다. 시신들이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바위가 굴러와 압사한 것처럼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배가 터져 창자가 튀어나왔다.

동서남북 네 개의 성문으로 들이닥친 전투코끼리들은 성 안의 거리를 여지없이 짓밟아버렸다. 왕궁 정문이 전투코끼리 상아에 들이받혀 부서지고 꽃들이 만개한 왕궁정원은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변했다. 붉은 꽃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핏자국처럼 보였다. 반란군들의 저항은 날이 밝아지자 빠르게 수그러들었다.

이번에는 기마부대가 번개처럼 들어와 성 안 진지들을 휘젓고 다녔다. 거칠기로 소문난 웃자인 성민들이었지만 두려워서 아무도 문을 열고 나오지 못했다. 아침 해가 솟구치자 아쇼까의 보병들이 조별로 들어와 왕궁부터 대신과 장수들의 사택까지 샅샅이 수색했다. 피신했던 반란군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했다. 왕 노릇을 하던 반란수괴는 맨 나중에 왕궁 지하실에서 붙잡혔다. 항복한 대신이 밀고해서 생포할 수 있었다. 왕궁 지하실에는 성 밖으로 나가는 비밀통로가 있었던 것이다.



반란수괴가 붙잡히자 반란군 진압작전도 끝이 났다. 선봉대장이 밧줄에 묶인 반란수괴를 넘겨받았다.

"네가 웃자인 왕궁 경비부대 대장인가?"

"웃자인 성민들이 왕으로 추대했으니 왕 대우를 하라."

옆에 있던 부대장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뭐라고? 난폭한 살인자 놈아!"

"넌 내 부하였지. 나는 너를 반드시 웃자인 왕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이다."

"아직도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군!"

부대장이 또 다시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살인마 같은 놈! 너의 공이라곤 웃자인의 공동묘지를 넓힌 것뿐이지."

아쇼까 진압군이 반란수괴를 시프라강 강변으로 끌고 갔다. 강변에는 어느 새 진압군 군사들이 통나무로 교수대를 만들어 세워놓고 있었다. 웃자인 성민들이 하나 둘 강변으로 모여들었다. 다른 어느 성민들보다 성격이 급하고 거친 사람들이었다. 아반띠국의 예전 왕들도 성격이 거칠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붓다를 초청한 적이 있는 빳조따 왕은 성격이 난폭하여 짠다빳조따로 불리기까지 했던 것이다. 반란수괴에게 보석을 상납하지 않고 늘 술만 마신다고 '멍청한 주정뱅이'라고 수모를 당했던 한 장사꾼이 소리쳤다.

"지금도 보석을 원하는가?"

"....."

그의 머리 위로는 올가미 밧줄이 대롱대롱 내려와 있었다. 선봉대장이 그의 얼굴에 검은 천을 씌우기 전이었다. 선봉대장이 검은 천을 들고 다가서자 갑자기 반란수괴가 외쳤다.

"목이 마르니 술을 한 잔 주시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소. 술은 술이지만 섞어버린 술이오."

장사꾼 친구가 히죽히죽 웃었다. 술주정뱅이 장사꾼이 준비한 술병에는 그의 오줌이 들어 있었다. 술병을 건네자 반란수괴가 단숨에 들이켰다. 오줌을 들이킨 그의 얼굴에 희미하게 웃음기가 어렸다. 그러나 바로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장사꾼이 소리쳤다.

"섞은 술맛이 어떤가?"

그러나 선봉대장은 그의 대답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반란수괴의 얼굴에 검은 천을 씌우고 목에는 올가미 밧줄을 걸었다. 이윽고 의자에 앉아 있던 아쇼까가 한 손을 들자 순식간에 그의 몸은 허공으로 치솟았고 나무토막처럼 뻣뻣해졌다. 성민들이 반란수괴에게 야유와 조롱을 퍼부었다. 경비부대 부대장이 소리쳤다.

"웃자인 성민이여! 지금부터는 이분이 웃자인의 왕이십니다."

아쇼까는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한 손바닥을 펴면서 흔들었다. 반란수괴에게 야유와 조롱을 퍼부었던 성민들이 이번에는 박수를 치며 함성을 질렀다. 아쇼까는 두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면서 화답했다.

"나는 마우리아국 대왕님의 명을 받고 웃자인에 온 부왕이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웃자인 성민을 사랑할 것이오. 마우리아국의 법을 따른다면 신분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 사랑할 것이오. 나는 성민과 군사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나에게 위임한 권한을 남김없이 행사할 것이오."

웃자인 성민과 군사들의 함성이 시프라강을 넘어 퍼졌다. 하루가 지나면 모두가 시프라강에 뛰어들 성민들이었다. 강물에 몸을 담그는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었다. 아쇼까 진압군이 새벽 일찍이 공격해 반란군들을 소탕한 것도 내일 열리는 축제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진압군 중에는 브라흐민들이 많았다. 그들은 강물에 몸을 씻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이유인즉 신들과 아수라들이 싸우다가 성스러운 강이 되어 생겨난 축제였다.

먼 옛날이었다. 브라흐마교 성자 두르바사가 길을 가던 중 코끼리를 타고 가던 신들의 왕 인드라 신과 마주쳤다. 두르바사는 존경을 표하며 목에 걸고 있던 꽃목걸이를 인드라 신에게 바쳤다. 그런데 인드라 신은 자신의 목에 걸지 않고 코끼리 코에 걸어주었다. 잠시 후 꽃목걸이는 땅에 떨어져 코끼리 발에 짓밟혀 부서졌다. 모욕감을 느낀 두르바사는 인드라 신에게 저주를 내렸다. 그러자 인드라 신은 천상, 허공, 지상, 즉 삼계를 지배하는 권위를 잃어버리면서 신들과 아수라들과의 싸움에서 불리해지고 말았다. 위기에 처한 신들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비슈누 신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비슈누 신은 신들과 아수라들이 싸우지 않도록 맹약을 주선하고는 서로가 우유의 바다, 끄시라 사가르를 휘젓게 했다. 그러자 신비로운 것들이 떠올랐다. 그 가운데는 불사의 영약인 암리따가 담긴 항아리도 있었다. 이에 욕심을 낸 아수라들이 약속을 깨고 항아리를 차지하려고 들었다. 이때부터 치열한 싸움이 12일간 벌어졌다. 싸우는 동안 항아리에서 암리따 네 방울이 지상에 떨어졌다. 강가강, 시프라강, 고다바리강, 강가강과 야무나강과 사라스와티강이 만나는 곳에 한 방울씩 떨어져 누구라도 네 곳의 강물에 몸을 담그기만 하면 전생부터 지은 죄가 씻어지고 윤회의 굴레를 벗어났다.

아쇼까가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면서 선봉대장에게 말했다.

"내일 해가 뜨면 가장 먼저 강물에 들어갈 것이오."

"부왕이시여,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이제 부왕님은 해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아쇼까는 아침 해가 빛을 뿌리는 순간 가장 먼저 강물에 몸을 적실 터였다. 그런 뒤 어두운 꼭두새벽부터 일출을 기다리고 있던 나체사두, 수행자, 브라흐민 제관, 성민들 순서로 시프라강에 들어가 몸을 씻을 것이었다. 〈계속〉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⑮ 고려시대 선법의 선교관

▶ 한줄 요약
고려시대 선법에서는 선과 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특수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대체적으로 선교차별(禪敎差別)의 입장이었지만 일방적인 차별이라기보다는 융합의 면모도 아울러 보여주었다.



禪主敎從 입장서 전개된 '선교융합'

1. 고려시대의 선교관

한국의 선종사에서 고려시대는 이전 시대에 수입 · 전승된 선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곧 사굴산문(闍崛山門)과 가지산문(迦智山門)을 중심으로 구산문이 고려말기까지 면면히 전승되었는가 하면, 새로운 선수행법으로 간화선(看話禪)이 도입되었으며, 보조 지눌(普照 知訥)로부터 비롯된 선리에 대한 저술 및 진각 혜심(眞覺 慧諶)으로부터 비롯된 순수 조사어록이 출현하였고, 공안선(公案禪)과 문자선(文字禪)의 유행으로 인하여 선리와 수행에 대한 이해의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전등사서의 수입과 편찬에 근거하여 전등법맥에 대한 의식이 정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려선법의 특수성이 부각되어갔다.

이와 더불어 고려시대 선법에서는 선과 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특수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나말여초에는 선법의 초기 시대에 해당하는 만큼 의도적인 선교차별이 출현하였는데, 그 까닭은 선법이 정착을 모색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고려시대의 전반적인 모습은 대체적으로 선교차별(禪敎差別)의 입장이었지만 일방적인 차별이라기보다는 융합의 면모도 아울러 보여주었다. 고려의 전기 및 중기까지는 선교의 차별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전개되었던 시기에 해당한다.

2. 지눌의 선교관 형성

지눌은 그의 저술에 드러난 내용으로 보면 당대의 규봉 종밀(圭峰 宗密, 780~841)에게서 많은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선교의 관계에 대한 견해이다. 종밀은 불법의 일대시교(一代時敎)에 대하여 교학에 대한 삼교(三敎)와 선종에 대한 삼종(三宗)으로 대비시켜 설명함으로써 선과 교를 전수전간(全收全揀)하여 그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선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經)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듯이, 종밀은 선교의 융합 내지 일치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었다. 나아가서 종밀은 다양한 선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등급을 매겨두었다. 이것은 소위 달마의 일화에서 보이는 피 · 육 · 골 · 수(皮 · 肉 · 骨 · 髓)의 관념이 선문의 각 종파에 대한 우열을 비교한 장치로 활용되었던 것처럼, 종밀은 다양한 선문의 각각에 대한 우열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마니주(摩尼珠)의 비유를 제시하였다.

이를테면 마니주는 투명하고 둥근 옥이기 때문에 곁에 있는 색을 반영하여 그 색이 물들어 보인다. 첫째로 마니주가 무명(無明)을 상징하는 흑색으로 물든 경우에 흑색이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떼어내고 아름답고 투명한 명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망념을 벗어나서 깨치려는 북종(北宗)의 견해이다. 둘째로 흑색이 마니주 자체이므로 본래 투명성은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체의 행위가 그대로 깨침이라는 홍주종(洪州宗)의 견해이다. 셋째로 구슬의 흑색이 허망할 뿐만 아니라 명주 그 자체도 공(空)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체개공을 주장하는 우두종(牛頭宗)의 견해이다. 넷째로 마니주의 흑색은 공이지만 마니주는 불공(不空)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여 마니주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투명성을 잘 알아차리는 것은 영지(靈知)를 강조하는 하택종(荷澤宗)의 견해이다. 따라서 번뇌를 그대로 긍정하는 것이 홍주종이라면, 하택종은 번뇌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공적영지(空寂靈知)를 강조하여 이를테면 투명성이 현재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바로 지눌은 이와 같은 종밀의 견해를 대부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따라서 종밀의 견해에서 보이듯이 지눌의 견해도 또한 여러 선문에 대한 입장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선과 교에 대하여 상호보완적인 입장에 근거하여 선교융합의 면모가 드러나 있다. 그러면서도 지눌의 견해가 전체적으로 선을 중심에 놓아두고 그에 상응하는 차원으로 교를 이해하는 견해가 농후하다는 것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그것이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에서 "나 지눌이 교학자를 보건대, 권교(權敎)의 설명에 막혀서 진(眞)과 망(妄)을 별개의 것으로 집착함으로써 스스로 퇴굴심(退屈心)을 일으키고, 혹 입으로 사사무애(事事無碍)를 말하면서도 관행(觀行)을 닦지 않으며, 자심에 오(悟) · 입(入)의 비결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선자들이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경우에는 곧 돈교(頓敎)의 이언(離言)이라는 이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원만한 깨침과 본래심, 불변과 수연, 성(性)과 상(相), 체(體)와 용(用), 안락과 부귀 등이 제불의 의도와 동일한 줄을 모르고 있으니, 그 교학자들을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지눌은 규봉 종밀에게서 많은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전 선법 본격적으로 전개 시기
사굴·가지산문 중심 구산문 전승
새로운 선수행법 간화선의 도입
선교차별 입장 속 융합적 면모도

물론 이 대목은 교학자와 선학자의 병폐를 싸잡아 평가하는 대목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교학에 대한 지눌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가는 짐작해볼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수심결(修心訣)〉에서는 "만약 자심(自心) 밖에 부처가 있고 자성(自性) 밖에 깨침이 있다고 말하며 굳게 그런 생각을 고집하면서 불도를 추구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설령 진사겁(塵沙劫)이 지나도록 몸을 태우고 팔을 불리며 뼈를 부수어 골수를 캐며 피를 뽑아 사경을 하며 앉아만 있고 눕지 않으며 하루 가운데 묘시에 한 끼만 먹으며 내지 일대장경(一大藏經)을 달달 외우며 갖가지 고행을 닦는다 할지라도,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단지 수고만 더할 뿐이다. 그러나 무릇 이 자심을 알게 되면 항사(恒沙)의 법문과 끝없이 오묘한 뜻을 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터득된다"고 말한다. 지눌은 선교의 관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그 융합적이고 보완적인 측면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극적인 깨침으로 나아가는 경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별의 입장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후에 지눌은 선과 교의 회통을 시도하였지만 궁극에는 미완성에 그치고 말았으며, 혜심은 교학의 측면을 지해(知解)로 간주하고 의리를 통해 선을 이해하는 의통선(義通禪)의 입장에 빠지는 것을 배격하였다.

3. 선주교종의 전개

이와 같이 선교에 대한 융합의 면모 내지 차별에 대한 견해가 공존하고 있던 고려 중기의 시대적인 추이는 이후 후기에 진정 천책(眞靜 天頙, 1206~?)의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에 이르면 선교차별의 모습이 더욱더 심화되어 나타난다. 가령 〈선문보장록〉은 제목에 드러난 것처럼 선문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어록에서 발췌한 것으로 주옥과 같은 글들을 모아 집대성한 책이라는 의미이다. 상 · 중 · 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두에 서문이 있고, 선교대변문(禪敎對辨門), 제강귀복문(諸講歸伏門), 군신숭신문(君臣崇信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3문에는 각각 25칙 · 25칙 · 39칙씩 수록되어 있고, 마지막 대목에는 니파삼칙(尼婆三則)이 있어 총 92칙이 수록되어 있고, 전체에 대하여 각각 그 출처가 밝혀져 있다. 그리고 맨 끝에는 발문이 붙어 있다.

여기에서 선교대변문은 선과 교를 상대시켜 그 우열을 논의한 것이고, '제강귀복문'에서는 강학하는 스님이 선승에게 설복된 일화를 모은 것이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지만 당시의 선교관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가령 선교대변문에 보이는 "대저 교외별전이란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들에게 공통된 법칙이다. 곧 교외별전의 법칙은 문자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외라 말하고, 순서의 차례나 수행의 계급을 거치지 않고 불심종(佛心宗)을 깨쳐 곧바로 법인을 수용하기 때문에 별전이라 한다. 교법은 유언(有言)으로부터 무언(無言)에 이르는 것이고, 심법은 무언(無言)으로부터 무언(無言)에 이르는 것이다. 무언으로부터 무언에 이르는 것은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킨 것으로 억지로 선이라 이름한다"는 것은 선과 교를 상대시켜 선의 우월적인 입장을 논의한 것에 해당한다. 곧 선이 교에 상대하여 그 우위에 있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서 당시에 이미 선법의 흥기로 말미암아 선주교종(禪主敎從)의 성향이 정착되어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한편 선과 교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는 고려 말기에도 지속되었는데, 교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원나라를 통해서 수입된 임제종(臨濟宗) 법맥에 근거한 정통성의 의식은 달마 선법의 정전(正傳)이라는 우월의식으로 다져졌는데, 백운 경한 및 태고 보우 등을 통한 선주교종(禪主敎從)의 입장에서 전개된 선교융합적인 전통이 그것이었다.

백운 경한(1299~1374)은 진정한 설법이란 교학 곧 경전에 있는 그대로를 설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내용을 터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학 곧 경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곧 백운은 삼보에 대한 교학의 입장에 의거한 설명으로서 교학의 불법에 대하여 설법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 이사구절백비(離四句絶百非)하는 정신으로 분별심을 벗어난 직관의 방식을 강조하였다. 태고 보우(1301~1382)의 선관은 화두를 궁극까지 참구함으로써 깨침을 추구하고 경험하였다. 그는 깨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안목이 밝은 선사에게 참문하여 구경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경우 인가의 강조는 교학적인 언설을 초월하여 선법의 방식에 근거한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심법이었다. 보우에게 있어서 경전의 이해는 선과의 대립관계이거나 또는 일여라는 입장이 아니다. 오직 교는 중하근기를 위한 방편이며, 나아가서는 미묘한 심지를 터득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단계였다. 교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편으로 간주하여 사교입선(捨敎入禪)의 입장이었다.

이와 같은 그의 태도는 화엄을 비롯한 갖가지 경전에 의거하여 선풍을 진작시켰던 모습으로 구현되었다. 곧 화엄선(華嚴禪)을 조사선(祖師禪)의 입장에서 수용한 것으로 화엄삼매를 일종의 공안이라는 차원에서 원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태고는 교학을 선법의 보조적인 입장으로 간주하여 충분히 그것을 활용하고 또한 접화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할 수가 있었다. 이후 조선시대의 선법에 이르러서도 이와 같은 선주교종(禪主敎從), 종교입선(從敎入禪), 사교입선(捨敎入禪)의 풍조는 여전히 유효하게 전개되어 갔다. 고려시대 선종사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었던 이와 같은 선과 교의 차별적인 관계는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지속되었다. 특히 선법의 전승시기로 평가할 수 있는 조선시대에는 선교차별의 주장이 선주교종의 융합이라는 모습으로 변용되었을 뿐이지 그대로 존속되었다. 그 까닭은 선법이 토착화되고 발전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교학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학과 대결할 필요가 없었기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고려시대 선법의 선교관에서 선주교종의 입장은 선교차별이면서도 선교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움으로써 교학에 근거한 선법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전개되었던 점이 엿보인다.

〈동국대 HK교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낮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⑮ 〈아미타삼존내영도〉 ②

▶ 한줄 요약
〈아미타삼존내영도〉는 대세지보살-아미타불-관세음보살로 도상이 구성돼 있다. 이는 부처의 본성인 지혜와 자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이다. 부처와 보살의 차이 중 하나는 보관의 유무다. 대세지보살의 보관은 무변광으로 장엄돼 있다.



'장엄 에너지' 분출하는 보살 보관

"인간은 이 세상 애욕의 바다에서 홀로 태어나 홀로 죽어가는 것이다."

〈무량수경〉 '부처님의 권유와 경계' 에는 부처님 눈에 비친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설해져 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저속하고 옹졸하여 하잘 것 없는 세상사에 골몰하고 시기하고 서로 다툰다. 죄악과 고통 속에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생활에 허덕인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결같이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애쓰고 있다."

그래서 재물이 있으면 뺏길까 두렵고 닫힌 마음에, 또 재물이 없으면 궁색하고 불만의 마음에 안달한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부족하여, 가지려 애쓰다가 몸도 마음도 지치고 안절부절한다.

이에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아, 부모와 자식, 형제 간, 부부와 친척 간에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라. 미워하고 시샘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인색하게 굴지 말고, 다투지 마라"라고 하신다. 분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원수가 되고, 마음의 독을 품으면, 반드시 다음 생에 다시 만나 앙갚음하게 된다.

재물과 애욕, 재앙의 근원

사람들이 평생 가장 갈구하는 두 가지, '재물과 애욕' 에 대한 가차 없는 직설이 쏟아진다. "재물욕심 그만 내고, 애욕으로 얽힌 가족과 화목하라"는 요지이다. 젊은이나 어른이나 재물과 애욕을 탐하는 데 만족 못해 평생을 허덕이고, 미움과 분심으로 몸과 마음을 스스로 괴롭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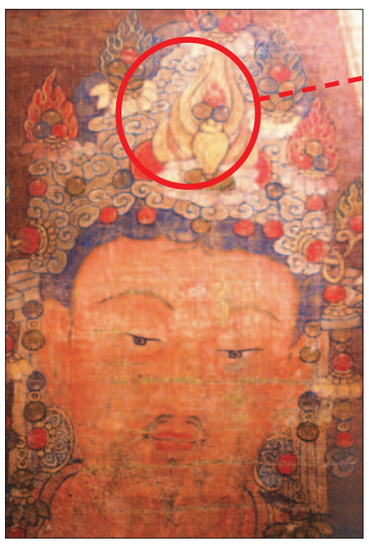
"그래도 끝내 덧없고 너절한 이것 단념 못해, 혼미하고 답답한 미망에 사로잡혀 허둥지둥 헤매다가, 아무 의지할 것 없이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는다."

진리의 길을 닦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결국 탐진치에 평생을 휘둘린 채 살다가 죽어, 다시 기약 없는 사나운 윤회를 하게 된다.

"인간의 재물과 애욕은 아침 이슬 같아서, 모두 덧없이 흩어지고 마는 것. 참다운 즐거움은 거기에 없다. 부처님 법 만났다면,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라!"

진실한 법칙인 윤회와 인과(因果)와 무상(無常)의 도리를 믿지 않고, "삼악도에 떨어져 생사윤회의 고통이 끝이 없으니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다"라고 토로한다. 스스로 한평생 욕망의 고통에 끌탕 하지 말고, 영원토록 편안한 길인 '안락(安樂)하는 법' 을 찾으라고 하신다.

'안락' 은 '극락(極樂)' 과 같은 용어이다. 극락의 어원인 산스크리트어 '수카바티(Sukhavati)' 에서 나왔다. 수카바티는 '지극히 즐겁고 평안하다' 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극락 이외에도 안락국(安樂國), 안락찰(安樂刹), 안국(安國), 안양(安養) 등으로 번역된다. 이때 '지극히 즐겁고 평안하다' 는 것은 감각적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체험할 때 느끼는 법열(法悅)을 말한다. 법열은 감로(甘露)의 맛과 같아서 내 속의 모든 갈애와 욕망의 불을 끄는 역할을 한다.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일본 오사카 호도지(法道寺)에 소장된 고려불화 〈아미타삼존내영도〉의 대세지보살 얼굴과 보관.(전체 그림은 지난 연재 참조)

그림②. 대세지보살 보관에는 보배병이 그려져 있으며, 이곳에서는 무변광이 뿜어져 나온다. 장엄 연기의 풍경이다.

아미타불옆 대세지·관음보살
부처 본성 '지혜·자비' 상징
부처와 달리 보살은 보관 써
대세지 보관엔 '무변광' 장엄

삼존, 삼신불, 삼불: 용어 혼란

〈아미타삼존 내영도〉를 보면 아미타부처의 협시로(정면에서 보아) 왼쪽에 대세지보살, 오른쪽에 관세음보살이 있다. '대세지보살-아미타불-관세음보살' 의 조합을 '아미타삼존' 이라고 한다. '삼존(三尊)' 이란 가운데 부처를 중심으로 좌우 양 보살이 협시하는 형식을 말한다. 대세지보살은 '지혜' 를 상징하고, 관세음보살은 '자비' 를 상징한다. 불성(佛性)의 성품을 두 가지로 말하라 하면, 지혜와 자비이다. 그러니 지혜와 자비를 합치면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을 두 성품으로 나누면 두 보살이 된다. 삼존은 삼위일체처럼 동일한 본질과 그것의 표현이다.

'석가모니 삼존'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석가모니 삼존' 은 보현보살과 문수보살로 구성된다. 문수보살은 '지혜' 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자비' 를 상징한다. 물론, 보현은 '행원' 을 상징한다고 정의되는데, 이는 '행동하는 자비' 를 말한다. 〈화엄경〉 말미에 '보현보살행원품' 이 나오는 이유도, 여지껏 설한 장황한 자비의 보살행을 '원(願)을 세우고 행(行)하지 않으면' 즉, 실천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다. 불성의 두 축인 지혜와 자비를 보처보살(다음 생엔 부처가 될 보살)로 표현하여, '부처님 한 분과 보살님 두 분' 으로 나타낸 것이 '삼존' 이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상에서 삼존, 삼신불, 삼세불, 삼불의 용어 정의가 혼동되고 왜곡되는 경향이 심각하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삼신불(三身佛)' 은, 아시다시피, '법신·보신·응신' 세 분의 부처님을 말한다. 법신 비로자나불을 근본으로, 보신 노사나불이 자수용과 타수용을 겸하는 대(大)통합의 존격으로 제시되고, 응신으로 석가모니불이 현세에 나투신 부처님으로 표현된다. 대승불교의 대표 불신관인 삼신은 '삼신귀일(三身歸一)' 로 결국 하나지만, 교화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나뉘어 표현된다.

그리고 조선시대를 풍미한 조합으로 '삼불(三佛)' 이 있다. '아미타불-석가모니불-약사불' 의 조합이다. 아미타불은 영가천도와 극락왕생을 약속하고, 석가모니불은 불교의 창시자이자 교단의 스승이다. 그리고 약사는 병을 치유해 주는 존격이다. 이 조합은 어떻게 구성된 걸까? 극심한 억불 정책에 왜란까지 겹쳐, 거대한 사원의 영토와 경제는 몰락 일로였다. 재건의 규모는, 예전의 전성기에 비해, 턱없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전처럼 개별 전각은 꿈도 못 꾸는 상황,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여 가장 중요한 부처님 세 분을 한 법당에 모시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신앙 대상, 병과 죽음을 관장하는 약사와 아미타, 그리고 시아본사(是我本師) 석가모니. 이는 숭유억불 정책과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이유에서 탄생하게 된 조합이다. 이를 '삼세불(三世佛)' 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삼세란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개념을 말한다. 그러니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세 분의 부처님' 이란 뜻으로 '삼불' 로 칭하는 것이 맞겠다. 실상, 삼세불의 예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보관, 광배의 본질적 의미

부처와 보살의 가장 큰 조형적 차이 중 하나는 머리 모습이겠다. 부처는 나발과 육계, 육계보주로 간단히 장엄하지만, 보살은 복잡한 보관과 치렁한 머리로 지극히 화려하다.

〈아미타삼존 내영도〉의 두 보살의 경우도, 관세음보살은 보관에 화신불이 있고 대세지보살은 보배병이 있다. 보관의 형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뭉게구름 같은 서기(瑞氣)가 피어오르고, 연꽃들이 피어나고, 무수한 구슬(보주)들이 화생하고, 거기에서 찬란한 불꽃 모습의 빛이 형형색색 솟구친다.(그림1)

편의상 '보관을 쓰고 있다, 천의를 입고 있다. 영락을 걸치고 있다' 등으로 표현하지만, 경전을 보면, 사실상 '보살의 몸체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 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관 따로, 옷 따로, 영락 따로 아니라, 이들 장식들은 보살의 머리와 몸체에서 에너지가 나와 유기적으로 연기(緣起)하고 있는 것이다.

"보살은 중생구제의 공덕으로 스스로를 장엄하고 또 세상을 장엄한다(〈무량수경〉)"고 한다. 중생이 깨닫기 전에는 에너지를 전적으로 외부에서 끌어다 쓰기 바쁘다. 하지만, 깨달은 성자들은 스스로 에너지와 빛을 발산하는 근원 그 자체가 된다.

"(깨닫게 되면) 태초의 신성한 원리와의 합일성을 경험한다. 우리의 개인적인 에너지 장은 우주와 하나가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인식 대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왕관 차크라가 완전하게 일깨워지면 우주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업은 끝나게 되고, 그것은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한다. 하나의 연꽃이 만개하여, 말하자면, 머리 위에서 순수한 빛의 왕관을 형성한다."(샤릴라 샤라먼, 보도J. 베진스키)

〈관무량수경〉에 쓰여진 '자체발광(自體發光)' 의 표현을 살펴보자.

"관세음보살 머리에서는 나오는 마니보주는 천관을 이루고, 그 속에는 화신불이 나타난다. 얼굴은 자마금색으로 빛나고 백호에서는 8만 4천 줄기의 광명이 흘러나오고, 광명 줄기마다 헤아릴 수 없는 화신불이 탄생한다. 80억 광명의 영락, 각 구슬 속에는 온갖 장엄이 일어난다."

"대세지보살 몸에서 방사되는 원광(圓光)은 지름이 125유순이고 250유순을 비춘다. 자마금색의 광명은 지혜의 광명으로 삼악도의 고난을 여의게 한다. 500가지의 보배 구슬은 보배관을 이룬다. 각각 보배마다 보배꽃이 있고, 보배꽃은 500개의 꽃받침으로 되어있는데, 각 꽃받침마다 무수한 불국토가 나타난다. 온갖 종류의 광명을 품은 보배병에서는 '무변광(無邊光)' 이 뿜어져 나온다."

'장엄 연기' 의 풍경이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1800년도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사)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의식교육 28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조석예불 및 불공)	목	2시~3시30분	00명 (2년)
의식 전문반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 법 각종 사찰행사전문반 ・전통예능 (범음범패 :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운심게, 오공양소리, 진령게, 사다라니, 욕건이, 실개수공발보리, 칭양성호, 관욕게, 합장게, 영산작법소리 등 30여곡)	수	2시	
작법무반	작법무(바라, 나비) 불교무용단 환영	수	3시30분~	
국악기반	태평소, 대금		5시~	

■ 개강일시 : 2021년 9월 8일(수) 오후 2시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 나길 80-42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010-2314-1279 010-3156-2211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 추천 (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영남불교예술대학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 육각초 / 연꽃칠성촛대
침향 /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 연꽃 크리스탈 촛대 / 연꽃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010-5848-0189

사찰 맞춤형 이동식 전통하우스
전통성 경제성 佛事는 내구성 효율성
시대에 맞는 신소재, 신기술, 신공법으로 무장한 광명이 佛心으로 채워 드립니다.
요사채, 창고, 삼성각, 기도실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보세요.(컨테이너처럼 간편히 설치)
공간이 바뀌면 사찰내 환경이 바뀝니다.
특허제10-1957831호
특허제10-1957826호
디자인등록 제30-0599196호
광명 문의전화 H·P 010-3401-5633 TEL 041)852-5163



박원자의 母情佛心 ⑮ 텐진 빠모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서구 여성 처음으로 티베트 스님이 된 텐진 빠모 스님은 19세 독일 여행 중 읽은 〈흔들림 없는 마음〉 통해 불교에 귀의했고, 이는 출가로 이어졌다. 이를 지켜본 어머니는 묵묵히 응원했다. 생의 마지막에도 "내생에 너의 어머니가 돼 너의 영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다.

"내생에도 네 어머니 되어 기도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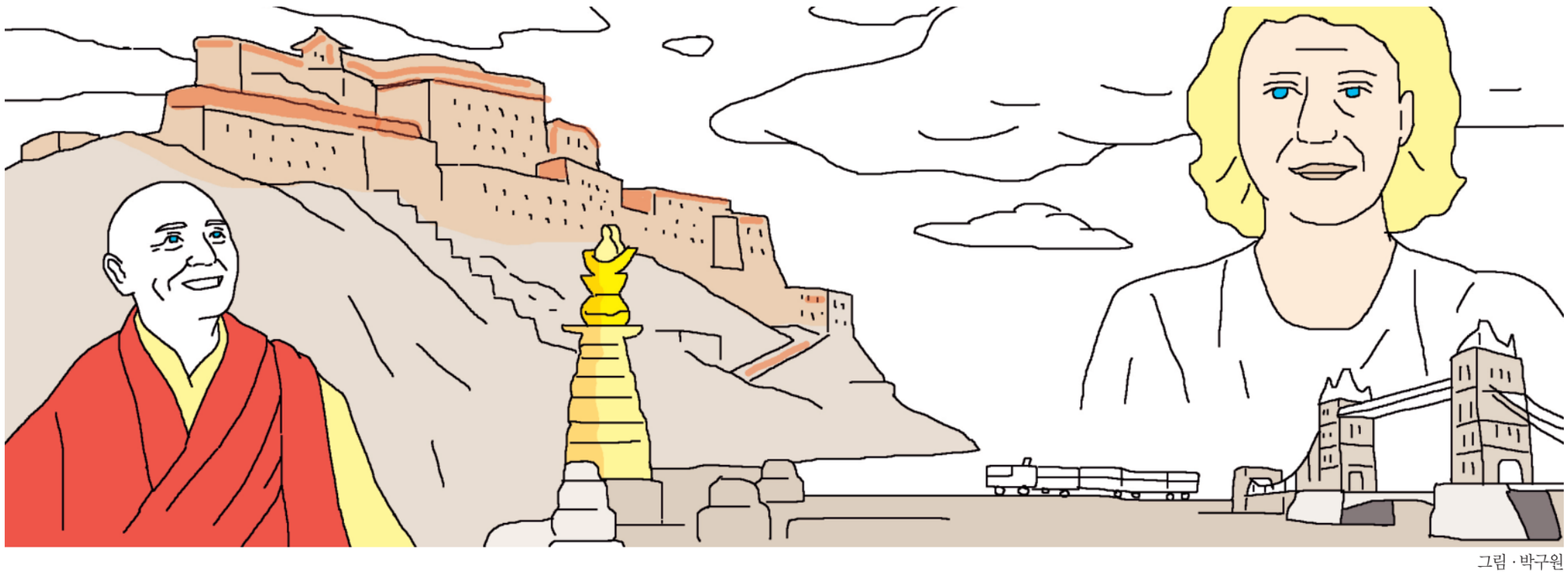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서구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티베트 스님이 된 텐진 빠모 스님이 한국에 온 적이 있다.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당에서 법문을 한다기에 갔었다. 예순을 갓 넘은 그녀는 붉은 가사를 두르고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법상에 앉아 지혜와 자비에 대해 이야기 했다. 법당을 꽉 채운 청중 모두 숨죽여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법문이 끝나고 한 여성이 일어나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며 이런 질문을 했다.

"저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으로 지금 목사가 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살생과 폭력적인 모습의 현재의 기독교를 보면서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 수 년 동안 히말라야의 동굴에서 수행을 했다는 스님의 대답이 몹시 궁금했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할 종교가 살생을 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사랑과 지혜와 자비가 정치적으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지, 중간의 성직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귀 기울이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울먹이며 물었던 질문자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는 모르나 나에게는 그녀의 대답이 대단히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새롭다. 그녀는 그날 자신의 법문을 경청해준 청중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가족에게, 친지들에게 웃어주세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미소를 보내세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많이 웃으십시오!"

그녀가 발견한 성불에 이르는 방법은 '친절과 미소, 마음공부' 같아 보였다. 아름다웠던 그녀의 어머니가 궁금했다.

50여 년 전, 19세의 영국 소녀가 여행 차 독일로 가는 비행기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자신이 근무하는 도서관에서 빌린 세 권의 책 가운데 하나였다. 표지에 붓다의 모습이 그려있는〈흔들림 없는 마음(The mind unshaken)〉이라는 작은 책을 반 쯤 읽고 있던 소녀는 곁에 있던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불교신자예요."

어머니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멋지구나. 다 읽고 나서 네가 아는 대로 불교에 대해 말해주렴."

어머니는 생각했다. 어려서부터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의식(본래마음)은 계속된다고 믿어왔고, 인간은 본디 완벽하고 그 본성도 완전하며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기 위해 산다고 믿고 있던 딸이었다. 또 인간이란 원래 완전한 본성을 다시 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서 방황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딸은 엄마와 성직자들에게 묻곤 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어른들은 한결같이 착하게 살고 남들에게 친절하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총명한 딸은 선함과 친절은 기초가 되는 토대일 뿐 완벽함이란 저 두 가지를 넘어서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딸은 다양한 종교를 탐구했고 13살에는 코란을 읽을 시도를 할 정도로 인간의 완전함에 대한 화두를 풀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실존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르트르와 카뮈의 책을 섭렵했다. 그러더니 드디어 길을 발견했다며 외친 것이다. 불교도가 되었다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붓다가 그 길을 아주 오래전에 제시해놓았다고 외쳤다. 영국 출신의 저널리스트가 불교 수행에 대해서 쓴 그 한 권의 책이 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듯했다.

독일 여행에서 돌아온 딸은 불교 관련 책을 섭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을 버리는 것임을 알았다"며 옷장의 옷들을 다 가져다버렸다. 딸은 화장도 하지 않았고 남자친구와도 이별했다. 책을 읽으면서 승려들이 입는 옷을 상상했는지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오는 윗옷에 검정색 스타킹을 신고 다녔다. 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았다. 6개월이 지났고 매사 낙관적이며 심령술에 밝았던 어머니는 딸을 따라 불교 신자가 되었다.

도서관에 근무하던 딸은 런던에 있던 스리랑카 불교사원을 종종 찾았고 다른 불교도들과 어울려 수행을 했다. 붓다를 사랑했고 붓다처럼 되고 싶어 하던 딸은 드디어 스무 살이 되던 해 인도로 가는 배를 탔다.

집을 떠나기 전 딸이 선언했다. "엄마, 저 인도로 가겠어요."

딸이 두 살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 홀로 생선가게를 운영하며 두 남매를 키웠던 어머니는 생선을 다듬던 칼을 잠시 내려놓은 채 20살의 맑고 아름다운 딸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러렴. 언제 떠나려고 하니?"

〈흔들림 없는 마음〉 읽은 英소녀
불교 귀의 결심… 출가로 이어져
묵묵한 어머니 응원, 딸에 큰 힘
자녀사랑 통해 깨달은바 선지식

1년 후 수계를 한 딸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 편지를 보내 출가를 알렸다. 긴 머리를 말끔히 밀어버린 모습을 본 어머니는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다. "털이 깎여나간 내 가여운 어린 양."

그곳에서 그녀는 스승 캄트룰 린포체를 만났다. 그리고 수 천 명의 수도승 들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그녀는 서구 여성 최초로 수백 년 동안 여성에게 금지된 영역으로 존재해왔던 티베트의 수도원 제도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12년 동안 학업에 정진하다가 집중 수행을 하기 위해 히말라야의 최북단 라홀로 떠났다. 그곳은 히말라야산맥 1만 2천 피트의 고도에 위치해 일 년 중 8개월은 폭설이 내렸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그곳에서 동굴 수행 12년을 비롯해 총 18년 동안을 은거 수행을 했다.

오로지 홀로 기나긴 세월 동안 수행한 끝에 그녀가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버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겨내는 것처럼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야 하는 거죠. 나는 완전성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영성을 탐구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완전성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 한 가지 차원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완전성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바로 착각에 사로잡힌 우리의 인식 때문이에요.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록 깨달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딘가 가야할 곳이 있고, 무언가 성취할 것이 있다는 생각은 모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착각에 불과해요."

극한의 수행을 하고 있는 딸에게 어머니는 편지를 보내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을 전했다. "잠시 휴가를 내서 영국에 들리면 어떻겠니?"

어머니는 당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딸을 도왔다. 생선가게 일을 그만둘 때까지 매달 용돈을 보내주었다. 딸은 10년에 한 번씩 어머니를 뵙게 위해 영국에 머물며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인도를 좋아했다. 인도로 가서 10개월 정도 딸의 스승 밑에서 수행을 하며 티베트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타라(자비로운 여성 붓다)를 흠모하기도 했다. 음식이 맞지 않아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딸처럼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텐진 빠모 스님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 인도에서 수행한지 20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3년 동안 은거 수행을 하기 위해 동굴로 가기 전에 어머니를 찾아 런던으로 갔다. 출가 후 두 번째 런던행이었다. 70대 중반의 어머니와 40세가 넘은 딸은 반갑게 해후했고 다정하게 지냈다. 딸이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 날, 어머니가 고백했다.

"아무래도 너와 이승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구나. 다음 생에도 다시 네 엄마로 태어나서 네가 영성의 길을 계속 가도록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단다."

수행자인 딸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가장 위대한 사랑과 지지의 표현이었다.

텐진 빠모 스님의 책을 번역한 세등 스님은 두 모녀가 헤어지는 이 대목에서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끝내 출가의 뜻을 이루지 못한 자신의 어머니가 '내생에는 너와 도반으로 만나 함께 수행하고 싶다' 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이별하고 1년 뒤, 텐진 빠모 스님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어머니가 암 투병으로 위독한 상황이니 집에 다녀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3년 안거수행에 들어간 스님은 자신의 맹세를 저버릴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다.

"집에 갈 수 없는 이유를 써서 보냈어요. 그렇게 편지쓰기가 어려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설령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동굴을 떠날 수는 없는 처지였어요."

다시 1년 뒤 어머니가 78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편지를 받았다. 텐진 빠모 스님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머니들이 자식의 고통을 대신 받으면서도 그걸 기뻐하는 것처럼 제 어머니도 그런 분이었어요. 불법에서는 세상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라고 강조합니다. 붓다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동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우리의 사랑을 세상 모든 존재에게 넓혀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될 때의 장점 중 하나는 자식을 통해 광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모든 존재에 대해 사랑을 펼쳐가는 기반으로 이 경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 '나'를 발견하고 사랑을 배우는 존재가 어머니 보살인 것이다. 〈작가〉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불기 2565(2021) 십시일반 이주민 돕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법보신문 공동 캠페인

희귀병에 퉁퉁 부어오른
5개월 아기의 사투

쓰나미로 터전 잃은 기달씨 부부 첫 아이 유산 후 얻은 쌍둥이
2개월 만에 발병…간병 위해 휴직, 병원비만 매달 300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삼승법을 설한 '위음왕불'

〈三乘法〉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㉙ 위음왕불

그때 부처님께서 득대세보살마하살에게 이르셨다.

"그대 이제 마땅히 알아라. 만약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를 악한 말로 욕하고 비방하면, 큰 죄보를 받게 되는 것이 앞에서 말한 그대로이며, 이를 받아 지니는 사람이 얻는 공덕도 먼저 말한 바와 같아 눈 · 귀 · 코 · 혀 · 몸 · 의근이 청정하게 되느니라.

득대세여, 옛적 한량없고 가없는 불가사의한 아승지겁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위음왕 여래 · 응공 · 정변지 · 명행족 · 선서 · 세간해 · 무상사 · 조어장부 · 천인사 · 불세존이셨느니라. 겁의 이름은 이쇠(離衰), 나라 이름은 대성(大成)이었느니라.

그 위음왕 부처님이 그 세상에서 천신과 인간, 아수라를 위하여 법을 설하셨는데, 성문이 되기를 바라는 자에게는 사제법(四諦法)을 설하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극복하여 열반에 이르도록 하고, 벽지불이 되기를 바라는 자에게는 십이인연법(十二因緣法)을 설하고 보살들을 위해서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기 위한 육바라밀법(六派羅密法)을 설해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였느니라.

득대세보살이여, 이 위음왕불 수명은 40만억나유타 항하사겁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겁의 수는 한 남섬부주의 작은 먼지 수와 같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겁의 수는 사천하의 작은 먼지 수와 같으니라. 그 부처님이 중생 이롭게 하시고 나서 열반에 드셨고, 정법 · 상법이 다하고 난 뒤, 이 국토에 다시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또한 이름이 위음왕 여래 · 응공 · 명행족 · 선서 · 세간해 · 무상사 · 조어장부 · 천인사 · 불세존이었느니라. 이렇게 차례로 2만억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모두 이름이 같았느니라."

'상불경보살품' 에 들어가면 먼저 위음왕불이 등장한다. 〈법화경〉에는 과거 무수겁 전의 부처님 명호가 많이 나온다. 〈화엄경〉은 수많은 보살들의 이름이 나오고 〈법화경〉은 부처님 이름이 많이 나온다. 위음왕불은 과거 장엄겁 이전의 공겁(空劫) 때의 부처님이신데 본초불(本初佛)이라 말하기도 한다. 본초불이란 밀교에서 주로 쓰던 용어인데 본초라는 말이 원초라는 말이다. 본래 처음부터 부처였다는 말로 어느 시점에 이르러 부처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는 〈법화경〉의 대의 구원실성(久遠實成)을 뜻하는 말로 대통지승여래나 일월등명여래 등과 같이 명호를 달리하여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부처님이다. 위음왕불은 최초의 부처님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위음나변(威音那邊)' 이라는 말은 선가에서도 써온 말인데 공겁이전(空劫以前)이란 뜻으로 위음왕불이 출현하기 이전이란 말로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과 같은 뜻이다.

위음왕불이 사성제, 십이인연, 육바라밀 법을 설했다 하였다. 이른바 삼승(三乘)의 권교법문(權敎法門)을 근기에 따라 설했다는 것이다. 이를 밝힌 이유는 〈법화경〉의 대의인 회삼귀일(會三歸一)의 뜻을 천명하기 위해서이다. 불교 공부의 처음과 중간은 대부분 삼승법을 배운다. 교리는 이해하는 것이고 수행은 실천하는 것으로 해행(解行)이 갖춰져야 수행의 지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법화경〉의 일승법(一乘法)인 실교(實敎)가 삼승법(三乘法)인 권교(權敎)를 결코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권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실교에 나아가라는 것이다.

이 장(章) 내용이 특이한 점은 위음왕불이 같은 명호로 계속 출현하여 2만억 부처님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홀로 부처가 아닌 다수 부처란 말이다. 이 역시 부처의 영원성을 시간적인 측면에서 나타낸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천태지의의 〈법화현찬(法華玄贊)〉에는 "여러 부처님에게 위음왕이란 동일한 명호를 붙인 것은 〈법화경〉을 설하는 부처님 음성이 왕처럼 존귀하고 뛰어나 큰 위세를 가지고 있어 중생들로 하여금 큰 이익과 즐거움을 얻도록 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보살 마음 번뇌에 물들지 않아야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㉙ 보살계의 실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대승 경전에 설해진 보살계가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을 것이다. 때로는 장밋빛 희망이 잿빛 절망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보살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야만 한다. 한두 번의 좌절이나 실패에 주저앉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거듭된 실패로 무력감에 빠질 때마다 자신의 결심을 되새겨야만 언젠가 자신의 최종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패배감에 젖어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것보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살계, 특히 유가계(瑜伽戒)에서는 보살의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감각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까닭에 보살은 자신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야만 하는데, 그 결심을 밖으로 드러내는 절차가 수계(受戒)일 것이다. 다시 말해 보살로서 살아가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다른 이에게 표명함으로써 보살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중기 대승 경론에서는 스스로 맹세해서 보살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로부터 보살계를 받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아마도 대승불교도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승 보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가계에는 계를 주고받는 의식작법이 갖추어져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보살계갈마문(菩薩戒羯磨文)〉이다. 이 문헌은 현장(玄奘)이 한역한 〈유가론(瑜伽論)〉의 보살지(菩薩地)에 나오는 보살계의 수계작법(受戒作法)을 발췌한 것이다. 이 문헌은 세 부분, 즉 수계갈마(受戒羯磨), 참죄갈마(懺罪羯磨), 득사차별(得捨差別)로 구성되어 있다.

수계갈마에서는 보살계를 주고받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재가이든 출가이든 삼취정계(三聚淨戒)를 받으려는 보살은 큰 서원을 일으키고 나서, 공덕을 갖춘 뛰어난 보살에게 세 번을 청한다. 계를 주는 보살은 계를 받는 보살에게 법을 설하면서 보살계를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지를 불상 앞에서 묻는다. 계를 받는 보살이 그렇다고 대답하면, 이를 세 번 반복한다. 그리고 이것을 불상 앞에서 세 번 보고하고, 증명해주기를 원한다.

그런 다음에 율의계(律儀戒)인 4가지 타승처법(他勝處法)과 43가지 범계(犯戒)가 설명된다. 여기서 타승처법은 바라이(波羅夷, ⓢpārājika)라고도 한역하는데, 보살이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중죄(重罪)이다. 이런 까닭에 부파의 율장에서는 중죄인 4가지 바라이를 범하면 교단에서 추방되었다. 반면에 보살계에서는 중죄인 4가지 타승처를 범하더라도 다시 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공덕을 갖춘 뛰어난 보살을 만나지 못한다면 불상을 향해 스스로 보살계를 받을 수도 있다.

참죄갈마에서는 참회하는 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만약 계를 범했다면, 보살은 반드시 참회해서 죄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만 그의 마음이 다시 청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살이 다른 이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는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만약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면, 그의 마음은 번뇌에 물들어서 청정해질 수 없을 것이다.

득사차별에서는 계를 버리는 경우는 2가지라고 설한다. 첫 번째는 무상정등보리(無上正等菩提)의 서원을 버리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상품전(上品纏)으로 타승처법을 범한 경우이다. 또 일단 계를 받는다면 죽은 후에도 계속되며, 다른 생에서 거듭 받아도 그것은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⑤ 괴로운 이 세상 어떻게 살까요?

괴로움 원인, 충족되지 않는 갈애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불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인간의 괴로움은 탄생의 괴로움, 늙고 병듦의 괴로움, 그리고 죽음의 괴로움 등 생로병사(生老病死)의 네 가지 근본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애별리고(愛別離苦)의 고통과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원증회고(怨憎會苦)의 고통이 있습니다. 또 몸과 마음이 항상 욕망과 번뇌를 일으켜 심신을 괴롭게 하는 오온성고(五蘊盛苦)의 고통도 있고 또 원하는 것을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하는 구부득고(求不得苦)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을 인생의 8가지 근본 괴로움이라고 불교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어찌 인간의 고통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윤회하는 삶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갈애

불자 여러분! 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갈애(渴愛) 때문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 가지 세계 중에서 욕계에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은 모두가 욕망이 주원인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욕망과 욕구들을 통틀어 '갈애'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얻고자하는 욕망이 끝없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재물, 권력, 명예 그리고 편하고자 하는 욕망, 성적인 욕망, 식욕에 대한 욕망 등 이러한 욕망은 인간의 다섯 가지 근본 욕망입니다. 이 외에도 인간은 크고 작은 많은 욕망 속에서 그 욕망을 이루고자 끝없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러한 본능적 모든 욕망을 통틀어 '갈애'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갈애가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워하며 고통에 빠집니다. 그래서 갈애를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8苦 등 수없이 많은 괴로움을 기다려
갈애 원인은 세상에 대한 사견(邪見)때문
마음의 장애 인한 '無明'으로 괴로움 겪어

갈애의 원인인 사견(邪見) 때문

불자 여러분! 인간에게 이 갈애가 생기는 원인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릇된 사견(邪見) 때문입니다. 잘못된 견해 즉 사견이란 첫째는 자기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견해입니다. 이것을 '유신견(有身見)' 또는 '아견' 이라고 말하는데, 이 몸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몸의 감각기관이 인식하는 바깥 대상 세계가 실제로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견해인 '법견(法見)' 이 있습니다. 이 아견과 법견은 모두가 잘못된 사견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몸과 마음 그리고 바깥 경계인 일체 세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으킨 그릇된 견해를 모두 사견(邪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와 마음의 장애는 무명(無明) 때문

불자 여러분! 이 사견이 왜 생기냐 하면 무지(無知)에서 생깁니다. 무지란 말은 '모른다' 는 것인데, 왜 모르냐 하면 마음의 장애로 인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장애는 왜 생기느냐 하면 무명(無明) 때문에 일어납니다. 결국 이 무명 때문에 마음의 장애가 일어나고, 마음의 장애 때문에 무지가 생겨나고, 무지로 인해 사견이 생기며 사견으로 인해 온갖 욕망인 갈애를 일으키고, 그 갈애가 충족되지 않아서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51호 | 17 | 전면광고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



부처님 말씀 읽기 - 《신심명》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속성 5개월 과정 •한문 몰라도 됨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불 교 용 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신문사 양도
• 등록된 ○○신문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종단, 연합회, 사암에서 신문사 운영하실 분
010-5412-8040

사주명리학·성명학 수강생 모집
❊ 3개월 완성 ❊
❊ 왕초보자 환영 ❊
1:1 특별과외도 해드립니다.
일주일에 2~3회 강의
강의 장소 : 부산시 또는 경주시
※ 카드결제가능
010-2523-7771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보시금 35만원
010-2204-8375

★검 색★
G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합
010-5412-8040 법광

天門祕法전수
백운곡 저서 100여권
◈ 장애스님 무료 ◈
◈ 대학역학교수 3명 엄선 ◈
Daum 역학대통령 ▼ 최다목록 무료검색
Tel. 02)907-5858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공양주 모심
숙식제공
포천 천주사
010-3220-2915

공양주 모십니다.
양산 소재
010-3534-2378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모든지
성취시키는 기도법을 전수 (승려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易(역) 수강생 모집
•왕초보반 : 명리 · 육효 · 영가 찾는 법
YouTube 백암TV 구독 누른 후 시청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오시는 곳 : 2, 4호선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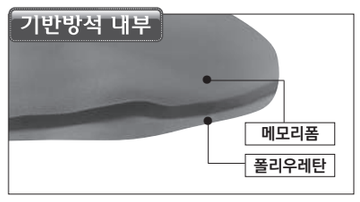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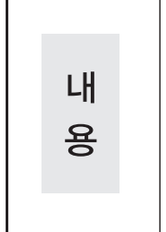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51호 | 18 | 전면광고

여러 악한 종류에 무리들이 많지 않게 하며
모든 악이 다하고 스러져서 스스로 사람을 여의게 하며
모든 악한 생각들은 생각함이 없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부지 : 3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협의

◎위치 : 경기
◎부지 : 150평
◎건평 : 120평
◎신도시중심
◎매가 : 9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올창, 편백나무 5천그루 ●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 대지 230 평
● 법당 20평, 산신각, 공양간, 찻방, 아담한 산밑자락
● 가액: 3억(대출5천만원) 절충가능

010-9389-74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15년 기반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 제반시설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 60평
● 2층건물, 옥상 60평 사용
● 보증금 1000만, 월세, 관리비 60만원
● 일체 인수 가능하신 분

010-3452-11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인천 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창고형, 1층: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방3, 화장실, 3층: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 5천 (시세이하, 급양도합, 사찰연력 40여년) ● 답사 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 중구 보문산5거리 (당산나무옆 2층)
● 시설 : 삼불전, 약사전, 요사채(2) 42평
● 권리금 : 1천5백만원(바로 법회 가능)
● 임대보증금 : 3백에 월 30만원, 절 이전으로 시설권리금을 저렴하게 책정하였음.
● 서기가 있어 영험한 기도도량입니다.
● 기도가 아름다운 절 보문산 지장사

주지 무진 010-3049-5816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 부지 : 1천평(또는 4백평)
● 가액 : 상담(방문)후 결정
● 부산 최고 명당자리
● 전시컨벤션 ● 복지시설

010-2822-10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100평 ● 건물:법당25평.요사채 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간.화장실2개) ● 해수 관세음보살 입불상(7m) ● 부처님 진신사리3과(기증) ● 가액:2억8천만원(대출6천만원 포함)절충가능 ● 전.월세가능
●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불교용지76평, 대지800평, 전체 계획관리
● 대웅전, 연못, 요사채, 산신각, 대형휴게실, 대형 찜질방3개, 종각, 전각8채, 감곡천척역10분, 대웅전 대형 잔디광장, 요사채별장, 대형정원, 전원주택별장은 신축, 540평 건물, 정원 연못, 생광석 찜질방 다양하고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양원하고 같이 운영하시면 됩니다. ● 상담 : 이미정

010-5883-2255,010-3564-6881

사찰터 안 내

●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1구 산30-3
● 임야 12,429m^2, 가액 1억 8천 8백이면 사찰 판넬로 건물 지어줄수 있음
● 농림지역, 전기, 도로 포장 되어있고 토굴, 암자터 최고, 두릅나무 심어져 있음

010-5454-831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전망좋은 사찰
● 대지 : 28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
● 많은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0억 5천만원

010-3269-10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독채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45만원
● 시설금 1천3백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포 교 원 안 내

● 부산 수영구 광남로(50평 이상)
● 3층 건물/2층(큰방 2, 화장실 2, 넓은 거실)/약사부처님 3자반/일광월광/호신불 약사 관음 108불/영단/지장 108불 영단 잘 되어 있음.
● 보증금 1천만원/월세 7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스님 건강상으로 양도함

010-3700-3628

사찰 안내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탑산 밑(중앙시장 300미터) ● 대지 : 220평-법당15평, 요사채 20평, 텃밭 80평 ● 삼존불, 칠성 산신, 용왕, 에어컨 5대, 냉장고 3대, 신도 약 200명, 공기좋고 조용함,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전세 5백만, 월세 30만 시설비 2천만(절충가능) (스님이 산청군으로 이사를 감)

010-5229-8445

성 배 기 획

● 사찰·부동산 전문
● 급하신분
● 빠른부적
● 산신 도통 하실분

010-4490-3544
010-4912-3544

토 지 안 내

● 위치 : 괴산 토굴 지을만한 토지
● 2차선 도로접, 산밑
● 주변시세 평당25~30만원
● 급매 5백여평, 8800만원
● 주인직접

010-4687-148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안양시 관악산 (관악산 둘레길 참배객 많음)
● 대지 : 360평 외 국유지 약 200평
● 건물 : 6동 외 미륵전
● 가액 : 18억

010-5330-8599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4억 8천만원 (절충가능)

010-7710-8334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지장보살

(地藏菩薩, 끄씨띠가르바, kṣitigarbha)



지장보살은 대지를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장보살의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월륜 또는 일륜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의주로도 설명한다. 대일경소에서는 지장삼매에서의 여의주는 무한한 공덕을 낳는다고 하며, 무량의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맡는다고 한다.

지장보살의 형상은 후세에 위경들이 생기면서 두건을 쓰고 석장을 든 사문(沙門)상과, 육도중생을 관장하는 육지장과 승군지장 등이 출현기도 하지만, 본 지장원에서는 보살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형상: 백 살색, 오른손에는 보주를 가슴 앞에 들고 있으며, 왼손에는 광염가운데 보주를 얹은 당번을 자루가 긴 연꽃위에 세워들고 있으며, 적 연화좌에 가부좌를 하고 있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⑮ 뇌병변장애 김준엽 씨

입에 문 막대기로 자판 치는 시인

현재 일본에서는 2021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이 경기에 이어 8월 24일부터 세계장애인 선수들이 모이는 제16회 도쿄 패럴림픽이 열린다. 우리나라는 패럴림픽 정식경기 종목 중에 보치아경기 강국이다.

보리수아래에도 보치아선수인 김준엽 씨가 있다. 김준엽 씨는 25살 때인 1993년 보치아선수를 시작했다. 각종 국내대회에서 맹활약하며 1998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1999년도에는 방콕 아시아태평양 장애인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그 후 다시 2014~2015년, 2017년 다시 국가대표로 각각 선발돼 2014년 인천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 각각 금메달(2관왕) 획득, 2017 보치아 방콕 월드오픈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각각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 획득 등 큰 활약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개인시집 4권을 발간한 시인이기도 하다.

경주 불국사 근처에서 태어난 김준엽 씨는 생후 4개월 쯤 심한 황달로 장애인이 되었다. 열 살이 넘어 한글을 깨우쳐 펜을 입에 물고 글자 쓰기를 시작하면서 책도 읽어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시인이 되게 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글씨 연습 삼아 써가다 보니 시가 되고 세상과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고 하이텔 등 PC통신에 자신의 시를 연재하기도 했다. 그 당시를 회고하며 "입에 막대기를 물고 컴퓨터 자판을 쳐서 글을 쓴다고 하면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오랫동안 막대기를 입에 물고 있어 잇몸이 짓물러서 받는 고통보다 내가 쓴 시에 읽은 사람들이 반응해준대서 오는 희열이 컸다"고 말했다.

활발한 보치아선수 생활을 하며 배움에 대한 열망도 커져서. 2006년에는 37세의 나이에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고. 다음해 특수학교인 울산 메아리학교에 입학하였다. 경주 외동읍의 집에서 울산의 학교까지 전동휠체어로 1시간 30분 거리를 통학하며 하루의 결석도 없이 5년만에 중 ·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2010년 "SBS 세상에 이런 일이"에 학교생활이 소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5년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시인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해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반추하다〉 등 4권의 개인 시집을 냈다. 운동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작가로서도 인정을 받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 솟대문학상,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난 3월 모 일간지에서 이승하 시인(중앙대 교수)이 쓴 김준엽 씨 관련 기사를 안타깝게 읽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첫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시 '내 인생의 황혼이 들면' 이 연변 조선족 학교 교과서인 '조선어문' 9학년 하권에 윤동주의 시로 소개가 되어있어 빠른 시일 안에 교과서 개편 작업을 통해 바로잡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이 시 제목을 검색하면 윤동주의 시로 소개되어 있다.

이미 이 시의 저자권 문제는 2013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장애인계와 기타 많은 언론에서 저작권에 관한 기사를 실었으나 김준엽 씨의 시로 인정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 어떤 이는 자신의 블로그에 윤동주 시인의 시로 올렸다가 김준엽 씨의 시임을 늦게 알고 미안함을 전하는 글을 올려놓기도 했다.



패럴림픽 보치아 국가대표선수이면서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준엽 씨.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보리수아래에도 시를 쓰는 작가와 음악인, 사진작가, 화가 등이 여럿 있어서 종종 느끼는 일이다.

김준엽 씨에게 2021년 세종도서 교양부문(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 도서)에 보리수아래 감성시집 세 번째 홍현승 시집 〈등대〉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는 책을 낸 출판사에서 작가들을 장애작가로 한정하지 않고 바른 대접해준 데서 시작되었고 장애를 앞에 내놓지 않고 공모에 참여한 모든 책과 공정한 심사로 경쟁하여 선정된 데 의미가 있다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또 내년에도 다른 시인이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 인식개선은 "너와 나는 다르지 않아"라고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빼고 장애인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잘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김준엽 씨는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직장부 보치아 선수로 있으면서 보치아 경기 훈련을 하고 시인으로서 작품을 꾸준히 쓰고 있다. 김준엽 씨는 장애인들에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장애인인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 하지 말고 무엇이든 행동에 옮기세요.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성취하면서 살아있음을 느껴보세요"라는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불자들에게는 장애인들의 스포츠와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했다.

오늘도 평범하고 진솔하게 사는 장애인들의 일상을 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김준엽 씨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는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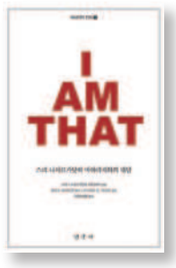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⑮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의 '아이 앰 댓'



▶ 한줄 요약
스스로를 한정짓지 말자

그대는 색깔이 아니라 빛이다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는…

1897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으며 평생 뭄바이 뒷골목에서 잎담배를 말아 파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 스승을 만났고, 스승의 인품과 가르침에 감명을 받아 명상을 시작했다. 40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후 담배 가게 2층의 다락방에서 그를 찾아오는 구도자들에게 40년 넘게 가르침을 베풀었다.

스크린 위의 영상들에 의해 스크린이 손상을 받을 수 없듯이, 우리 모두의 본질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의 대담집 〈아이 앰 댓〉이 발간된 이후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구도자들이 그를 찾아왔다.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방문객들을 가르치기 위해 애썼다. 그의 가르침을 소개한 다른 책으로는 〈담배 가게 성자〉가 있다.



빛이 만드는 색깔의 세계
빛속에는 여러 영역 존재
스스로 한계 인식 말아야

'태어나지 않는 자아'에 대하여

세상살이의 모든 괴로움은 꿈이요 환(幻)이요 물거품이요 아지랑이 같은 것을 실재라고 여기고 집착하는 데에 있고, 세상사 모든 일이 인연 따라 지어지는 것일 뿐 '붙잡을 만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야말로 '번뇌의 불'을 끄는 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살이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은 무엇일까? 온갖 조건 지어진 것들 속을 헤매게 하는 주체는 무엇일까?

부처님은 조건 지어지지 않은 절대의 무엇이 없다면, 온갖 조건 지어진 것들 속에서 헤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 부처님은 우리의 불성에 대하여, 우리의 '태어나지 않는 자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수행자들아! 여기에 태어나지 않는, 생겨나지 않는, 만들어지지 않는, 그리고 조건 지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만일 이 태어나지 않는, 생겨나지 않는, 만들어지지 않는, 그리고 조건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면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조건 지어진 것들로부터의 도피는 불가능할 것이다." -우다나 (Udāna) 8품 3.

태어나지도 않고 어떠한 조건에도 매이지 않는 '그것'을 우파니샤드는 이렇게 말한다. "그의 안에 모든 존재들이 살고 있고, 그 또한 모든 존재들 안에 살고 있는 자, 모든 것에 은총을 주는 자, 우주의 지고한 영(靈)인 무한한 존재-내가 그것이다(I Am That)." -암리뜨빈두 우파니샤드

만물의 근원이라 할 '그것'은 만물과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 두루하고, 우리 주위에 편만한 허공과 같이, 안팎으로 일체를 채우고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이별할래야 이별할 수 없는 불가분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데도, '그것'과 따로 떨어져 '그것'이 없는 것인 양 실체 없는 거짓 그물망에 갇혀 살아가거나, 여기가 아닌 어딘가에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 한, 삶은 문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깨달은 자는 계속해서 '그것'을 가리켜 보일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40세에 갑자기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서서 감옥문이 활짝 열려버린 마하라지 또한, '지금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는 자아'를 깨닫는 '자아탐구의 길'을 줄기차게 가리켜 보인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것만이 죽지 않습니다. 결코 잠을 자지 않고 결코 깨어나지도 않는 그것, 그리고 그것의 희미한 반사가 우리의 '나'라는 느낌인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십시오."

세계의 비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태어나지 않는 '그것'에서 왔지만 '태어난 것들'은 무엇보다도 이름과 형상에 매달린다. 이름과 형상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이 없으면 자기 존재가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자승자박이다. 실상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집착하는 것들이 허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름과 형상은 전혀 아무런 내용물이 없는 텅 빈 껍질이며, 실재하는 것은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는 순수한 생명 에너지이자 의식의 빛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대는 평안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실재의 깊은 침묵 속에 잠긴 채."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실재로 착각하는 것이야말로 통탄할 만한 죄이고 모든 재앙의 원인이다. 이름과 형상을 지닌 개체는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에 싸여서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욕망한다. 그리고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지구는 만원이다.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갈등과 투쟁으로 가득 차 있는 삶,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일이기에 지구촌 전체가 사실은 감옥 자체이다.

이 소동, 이 괴로움, 이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갈등과 투쟁 속에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세계의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세계의 비극은 외부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외부의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 바라고 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채워준다고 할지라도, '사로잡힌 자'는 결코 욕망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더 오래 오래 갖고 싶어 하고 누리고 싶어 할 것이다. 아무리 효과 좋은 의약품이 등장하여 생명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늘여도 개체는 결국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금방이라도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은 '내일'은 계속해서 내일을 노래 부르며 오늘을 살지 못하도록 이끌어갈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능자가 세상에 와도 주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세계의 비극은 본질적으로 스크린 위의 모습들에 실재성을 부여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망각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이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구해 줄 수가 없다.

"그대는 자신이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태어났고,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가 있고, 한 몸뚱이와 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이것이 그대의 죄이며 그대의 재앙이지요!"

다시 쓴 '존재의 주소'

니사르가닷따는 '태어난 개체'의 허구성을 인식하라고 말하고, '태어나 본 적이 없는' 실재를 줄기차게 가리켜 보인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태양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태양을 비난할 수는 없다. '빛은 꽃의 색깔을 피워내지만 그것을 제어하지도 않고 그것에 직접 책임이 있지도 않다.' 빛은 색채 안에 있지만, 빛이 색체인 것은 아니다. 수없이 많은 색깔들이 있고, 저마다 자기에게 비추어진 색깔을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지만, 모든 색깔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

"빛만이 존재하며, 그 빛이 전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빛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 그림은 빛 안에 있고, 빛은 그림 안에 있습니다."

물이 용기에 따라 모양 지워지듯이, 모든 것은 조건들에 의해 결정된다. 물이 그릇들과 무관하게 물로 남아 있고, 빛이 색깔들과 무관하게 빛으로 남아 있듯이, 실재도 그것이 반사되는 조건들과 무관하게 실재로 남아 있다. 왜 빛의 반사물에만 집중한단 말인가? 왜 실재 자체에는 의식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단 말인가?

"빛이 색깔이 아니듯이, 세계는 그대에 의해 야기되지만 그대는 그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의 색깔이 된 빛이 자기 자신을 색깔로만 한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왜소한 이미지 안에 구겨넣어 버리는 일인가?

자신이 색깔이 아니라 빛임을 알고 '존재의 주소'를 다시 쓴 깨달은 자는, 그동안에는 꿈도 꾸어 보지 못한 존재의 높이와 깊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에야 비로소 '세계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색깔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죄수인 동안은 어느 누구도 세계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스스로 묶여 있는 죄수이면서 누구를 풀어줄 수 있겠는가? 그는 결국 상대를 위한다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다.

"그대의 세계라는 감옥 안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그대가 창조한 고통스러운 모순들의 세계는 지속이지도 않고 영구적이지도 않으며 하나의 착각 위에 기초해 있다고 그대에게 말해 줍니다. 그는 그대에게, 그 세계에 들어갈 때와 같은 방법으로 거기서 나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대는 본래의 그대를 망각하여 거기에 들어갔고, 있는 그대로의 그대 자신을 알면 거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탄생과 죽음을 넘어서 있는 '그것'

어느 날 방문객 중 하나가 그에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제 스승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해 드리지요. 당신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나서 그분은 식사를 그만두셨지만, 일상생활의 일과는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열하루째 되는 날, 기도 시간에 당신은 힘차게 노래하고 박수를 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지요! 두 동작 사이에, 마치 촛불이 훅 꺼지듯이 바로 그렇게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고 있으면서 죽습니다.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행복한 죽음을 죽을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태어나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대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아는 순간 두려워할 것을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하고, '세상 안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한다'고 말했던 그는, 평생 잎담배를 팔며 생계를 유지했던 그의 카르마가 작용한 탓인지, 말년에는 후두암에 걸려 고생했다.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서도 의식은 명료했으며, 거의 마지막 날까지 하루 중 몇십 분이라도 방문객들을 맞아 가르침을 베풀며, "탄생과 죽음에 굴하는 것은 오로지 개체적 허상일 뿐 참나는 탄생과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보여주었다. 〈작가〉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51 호 현대불교
2021년 8월 4일(음 6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5년

포괄적인 한마음은 우주 법계를 두루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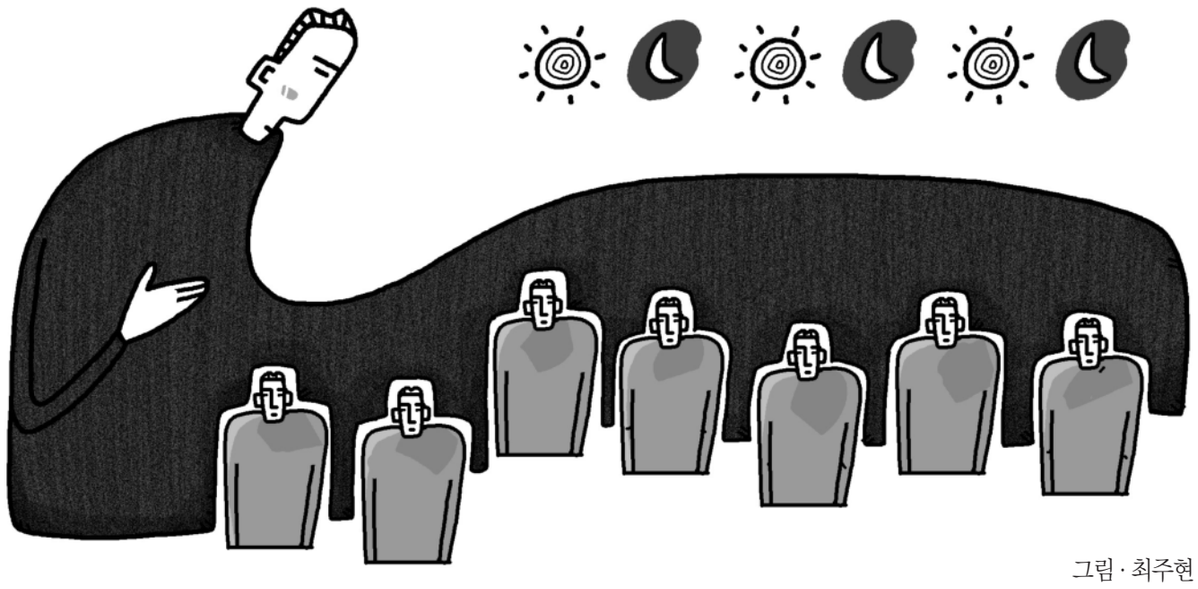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도량이 좁은 데다 더워서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생하면서도 이렇게 너가 있고 내가 있듯이, 헤어졌다가도 서로 한마당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법에 의해서 한마음이고 한도량이고 한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입산한 사람이든 유발 제자든 다, 생활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속에 천체 과학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곧 한마음 속의 보배이므로 그 보배 속에서 일체 만법이, 즉 말하자면 천문학이라든가 지리학이라든가 공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방출됩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팔자 운명도 없느니라. 너희들에게도 부처가 있느니라. 부처 있는 데 중생이 있고 중생 있는 데 부처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뚱이 속에 그 여러분이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사시고 계십니다. 거죽만 여러분인 줄 알지 마시고 여러분 모습 속에 또 여러분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많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건 왜냐고요? 여러분의 몸뚱이는 전자의 인연으로 인해서 인과로 인해서 뭉쳐진 것입니다. 지구라는 껍데기와 같이 여러분 몸뚱이도 혹성의 껍데기입니다. 지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인으로서 살고 있듯이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서도 소임을 맡아 가지고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천차만별의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묘하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기로 인해서 자기가 한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차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전부터 내가 말을 했죠. 인간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재료로 충만하게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로 인해서 오신통이라는 자체가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현대 말로 한다면 큰 컴퓨터죠. 과거에 살던 모든 것, 인과의 인연이 된 그 모두가 거기 입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입력된 컴퓨터에서 전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컴퓨터를 큰 숙명통이라고 본다면 타심통이니 천이통이니 신족통이니 천안통이니 하는 것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한 부분으로만 있다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시스템이 항아리라면, 아니 팔 수레, 수레라고 한다면, 돌아가는 그 수레 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굴릴 수 있겠습니까? 항아리 속을 나와야 항아리를 굴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종합된 시스템의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붙인 겁니다.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과로 인해서 유전성으로 인해서, 영계성으로 인해서 세균성으로 인해서 또는 그 모든 업보성으로 인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빈집이 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게 죄가 돼서 거기에서 지금 현실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다시 입력을 해 넣는다면 앞서 입력된 과거가 무너진다 이 소립니다.

덧붙여 또 한마디 튕겨 줘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수박이라면 과거 씨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과거 씨는 현재의 몸뚱이가 됐고 몸뚱이 속에는 바로 그 과거의 씨와 둘이 아닌 수박씨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를 또 심어서 또 먹이고 또 심어서 또 먹일 수 있는 겁니다. 끝 간 데 없는 그 모든 생명들을 기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지마는 부처님께서도 "밥 한 그릇 가지고 일체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밥 한 그릇이 되남았느니라." 하신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는 또다시 심어져서 또 수박을 열리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먹고 또 되남아서 또 먹고 또 되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진리도 그러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아온 차원대로 입력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한테 팔자 운명이 있고 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붙을 자리가 없다 이 소립니다. 현재의 여러분이 과거를 짊어지고 나왔으니 지금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가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해 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첫째 가져야 합니다. 입력되어 있는 데에 다시 입력이 들어간다면 다 없어지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놓고 가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카세트테이프로 노래를 듣다가 거기에다 새로운 노래를 녹음시킨다면 앞서 넣은 노래는 없어지듯이 그건 사실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놓는 게 뭐냐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 한마디를 하죠. 용광로에 쇠를 넣었으면 나중에 재생되어 가는 거는 생각지 마셔야 합니다. 넣는 작업만 한다면 쇠는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죄지 죄가 어디 있으며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팔자나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또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세 번 죽어서 사람이 돼야만이 이런 인연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인연을 만나서 서로 자기 마음을 계발하면서 자기 마음이 오신통에서 벗어나고 마음에서 누진을 통해서 모두…. 누진은 지금 현재의 용어로 따진다면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됩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거, 바깥에서 오는 거를 다 책정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 불교를 왜 불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거기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이나 오하이오 주립 대학이나 또는 뭐, 나는 아까 얘기를 하고도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그런 대학에서 선생님들 32명이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여북하면 이 도리에 관한 논문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들이나 박사 석사 이런 분들이 말을 하는데, 생물학에 있어서 진화론이라는 그 자체를 실질적으로 연구해 들어가다 보면 막히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하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이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리가 터져서 마음대로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 태어난 거지 마음이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마음의 영력, 정신력을 길러 재생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은 인간에게 그 묘한 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꼭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길 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전체가 인간의 근본에 직결돼 있고, 모두가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할 수 있는 삶이 전부 가설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느냐. 2차원이면 2차원, 3차원이면 3차원, 4차원이면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이렇게 차원대로, 지금 현실의 내가 아는 대로 죽어도 그 의식이 그냥 남아서, 요다음 생에 다시 금 모습을 바꿔 가지고 나올 때도 그 차원을 가지고 그냥 나올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농촌에서는 논꼬를 보러 가는 일이 많죠. 어느 농부가 논꼬를 보러 가다 보니까 큰 뱀 하나가 쭉 늘어져 있어서 그것을 삽으로다가 자끈자끈 찍어서 죽였답니다. 그런데 그 뱀이 대가리가 잘라지니까 머리가 그냥 펄떡 뛰어서 삽으로 찍고 있는 사람의 가슴을 탁 치고 떨어지더니 그냥 꿈틀꿈틀하면서 죽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그 농부는 정신 이상이 돼서 20년쯤 살다가 그냥 죽었거든요.

그것이 옛날 얘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당하

☞ 22면으로 계속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항아리 속을 나와야 항아리를 굴릴 수 있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 그 집안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어서 어느 큰스님을 찾아갔는데 그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지금 뱀 속에 들어 있던 천차만별의 생명들의 의식이 사람의 의식 자체를 집어 먹었어! 집어 먹었으니 그 뱀은 뱀대로 사람의 의식이 되고 그 사람은 그냥 뱀으로 돼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 뱀이 그 사람 전체를 빼앗은 거죠. 이렇게 악에게 뺏기는 것도 있지마는 선에게 뺏기는 것도 있죠. 하지만 보세요! 이 물을 갖다가 이쪽에 부어도 한 그릇입니다. 이쪽에 부어도 한 그릇이죠? 예.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뱀에게 잡아먹히느냐, 뱀을 내가 잡아먹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죽였고 뱀은 그 죽는 순간에 악이, 독이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독이 들어 있는 이상 그 사람을 그냥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그 뱀이 그냥 독을 주어서 사람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않고 그냥 사람을 빼 먹었습니다. 빼 먹었으니 그 뱀을 자꾼 자꾼 짓이겨 죽이는 순간 바로 이 사람은 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뱀이 돼서 뱀 소굴로 이끌려서 들어간 겁니다. 그 스님의 말씀이 "내일 모레면 뱀의 소굴로 들어가게 생겼네." 하거든요. 그런데 다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 보십시오, 엄청난 문제가 아닌가. 뱀의 소굴로 들어가서 뱀이 돼 가지고서 새끼를 낳았단 말입니다. 새끼를 낳았는데 그냥 오물오물하게 낳았거든요. 사람 속이든 뱀 속이든 전부 오물오물하게 들어 있는 생명체, 그 의식들이 수효대로 그냥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런 둥우리에다 그냥 오물오물하게 낳아 놨단 말입니다. 그 사람 하나가 뱀이 돼 가지고 뱀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낳아 놨으니 인간으로 올라오려면 얼마큼 해야 올라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뱀 모습이 돼 가지고 살아나가다 보면 뱀이 사는 의식을 가지고서 수차적으로 돌기 때문에 그 의식, 습이, 뱀이 하는 놀음이 아주 박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깡패 소굴에 들어갔는데 나쁜 일을 해서 잡혀 들어갔다고 합시다. '인제 좋은 생각을 하고 좋게 살아야겠다. 좀 사람답게 살아 봐야겠다.'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빠져나와도 벌써 거기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너, 와! 할 일 있어." 안 하면 죽이는 겁니다.

이렇듯이, 뱀의 소굴에 들어가거나 개구리 소굴에 들어가거나 돼지, 소, 말, 어느 짐승의 소굴에 들어가도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새끼들이 많은 것은 자기 인과에 의해서 그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숫자대로 낳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대로 낳은 낱낱 새끼 속에 인과가 숫자대로 또 있으니 어떡합니까, 글쎄. 그게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한 번 잘못해서 범한 이 살생의 업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크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 마음공부를 해서, 즉 말하자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참선하는 수행을 해서, 뱀을 죽인 거든지 개구릴 죽인 거든지, 사람 사는 거든지, 과거에 나쁘게 했든지 좋게 했든지 전부 거기다 맡겨 놓고 걸어가라. 그래야 과거의 업보가, 어저께도 과거니까, 과거의 업보가 다 녹아서 없어지느니라. 그러니 그렇게 된다면 저 뱀 새끼 낳은 것이 다 죽고, 물로 그냥 돼 버리고 사람으로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도리를 모르는 겁니다.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알아들어야 할 텐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은 근본을 잡지 않고 지금 바깥으로만, 기복으로만 좇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귀신 노릇, 미신 노릇을 하니까 귀신, 미신이 있지, 사람이 미신 노릇을 안 하는데 왜 미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업보가 되고 인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맡겨 놓고 '한마음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과거의 모든 것을 녹여 줄 수 있고, 또 위로는 부모의 묵은 빚을 갚게 해 줄 수 있다. 앞으로 2세들한테 햇빛을 줄 수 있는, 뿌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것도 내 주인공밖엔 없다. 참나가 있다는 증명도, 공한 것이 공했다는 증명도 바로 주인공만이 해 줄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참 묘한 것은, 여러분 속에 지금 천차만별로 모습을 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한생각에 모두가 따르고 있습니다. 한생각에 그 수많은 세포 하나하나가 따르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막 해 나가다 보면 안에서도 파워를 일으켜요. 장에서도 파워를 일으키고 간장에서도 파워를 일으키고 위장, 콩팥, 방광, 이자, 심장 이런 데서 파워를 다 일으켜도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걸 한마음으로 가라앉힐 수가 없는 거죠. 모두 자기인데 각각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따로 있고 여러분 속의 세포 생명들 하나하나가 따로 있다고 알기 때문에 누가 거두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 죽어 줄 수 있겠습니까? 대신 똥 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 잠자 줄 수도 없고 아파 줄 수도 없고 또 먹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이 길은 바로 끝없는 길이요, 영원한 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한 철 나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죠. 그것을 그렇게 비유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에 그렇게 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달마 대사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뭡니까?" 하는 말이요. 그런데 나는 '서쪽으로 간 까닭은 또 무엇이냐' 고 묻고 싶습니다.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이며, 서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이냐. 이 선(禪)이라는 것은 허공에 그림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 떠다 대도 맞지 않는 게 없습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 자체가 개별적인 마음 하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한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죠. 여러분이 혼자 사시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포괄적인 한마음은 우주 법계를 두루 한다 이 소립니다.

내일이 칠석이고 또 며칠 있으면 백중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병고 액난이 깃들고, 그 여러 가지 고난이 용도대로 있어도 여기에서는 그걸 재료로 삼으시라고 합니다. 어떤 고통이 닥치든지 그것을 재료로 알고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하시라 이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고통을 면해 주려고 밥이나 놓고 떡이나 놓고 목탁이나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연구하셔서 체험을 하시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한테만 미룬다면 안 되겠어서, 보이지 않는 데 50%의 충전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충전을 해 드려야 전기가 들어와서 연구를 할 테니까 말입니다. 안 그럴까요?

그래서 역대의 조사, 선지식들께서 "지식으로 아무리 말을 잘하고 또 경서를 아무리 위로 꿰고 바로 꿰고 잘 맞춰서 설명을 잘해 준다 하더라도 50% 충전이 없다면 자기를 깨닫기는 극히 어려우니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선맥이 이어지듯이, 보이지는 않지만 전력을 쓰듯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온 것은 볼 수 있는데 전력이 들어오는 과정은 못 보시죠? 한 찰나니까요. 그게 보이기나 합니까? 그런 거와 같은 것이 바로 선(禪)입니다. 또 우리가 광력을 쓰는 데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는 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한 발 내려딛고서 행을 했는데 그걸 이보경계의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 군수 물자를 이리 옮기기도 하고 저리 옮기기도 했다 이 소립니다. 참 어마어마한 문제지요. 그러나 그땐 그런 상황이니까, 칼, 창, 활 이런 걸로 쏘고 그렇게 하던 때니까 몸을 피해도 되고 몸이 안 보여도 쓸 수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물품을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옮긴 대로 알게 되고 저쪽으로 옮기면 저쪽으로 옮긴 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럴까? 컴퓨터로 알게 된다고 할까요? 그 레이더망에 전체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물건을 못 쓰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세력이 센 데를 못 쓰게 만드는 것보다도 인간에게 이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편이 돼 줄 수 있거나, 또 상대 쪽은 상대 쪽대로 편리하게 이끌어 줄 수 있어야죠. 이렇게 하려면 높은 거는 낮추고 낮은 거는 높여야 이게 평등하게 된다 이겁니다.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도 잘못 그리는 게 하나도 없고 생각을 해도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한생각이니까요. 대를 위해서 한생각으로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죠. 이 공부가 어마어마한 공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아프면 주인공 속에서 의사가 되는 거고, 또 가난하면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고, 또 좋은 데로 못 갔으면 지장이 되는 거고 명이 짧으면 칠성이 되는 거고, 또 일이 생기면 산신이 되는 거고 독성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길을 가다가 잘못될 것 같은 의려가 생긴다면 바로 지신이 돼 주고 물에 가서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용신이 돼 준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부처님 한생각으로 동방에 아촉을 해 놓고 서방에는 아미타로 이름을 해 놓고, 사바세계에는 관세음으로 이름을 해 놓고 지천국에는 지장을 해 놨다 이 소립니다. 한 부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건 이름일 뿐이지 다 한마음이란 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만날 속아요. 여기 와서 이름이 다른 부처님이 있으면 그 부처님 따로 있는 줄 알고, 저기 가면 저기 따로 있는 줄 알고 이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묘한 마음의 도리가 성성하게 있는데도, 여러분 앞에 있는데도 여러분은 그냥 거기에 속고 가는 겁니다.

이성계가 그렇게 흉악한 꿈을 꾸었는데도 무학 대사한테 가서 여쭤 보니까 "야! 까마귀가 까옥까옥한 것은 네가 궁 안에 들어갈 꿈이고, 꽃이 다 진 것은 열매가 열릴 징조니라." 허허허…. 그 얼마나 꿈 해몽을 잘했습니까? 해몽이라는 그 자체는 한생각으로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색경이 떨어져 깨져서 소리가 와랑창 나는 것은 국민들이 큰 소리로 추대하는 징조고, 허수아비가 문간에 데룽데룽 매달려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이 우러러보는 꿈이니 꿈이 아니라 생시니라. 생시가 꿈이요, 꿈이 생시니 한생각 잘해서 마음을 큼직하게 내라." 이랬단 얘깁니다. 마음이 옹졸하면 소견이고 마음이 넓으면 지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좋게 생각해서 내 앞에 사탕이 들어오게 할 줄 모르고 조그만 것 가지고도 오히려 고통이 들어오게 만든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산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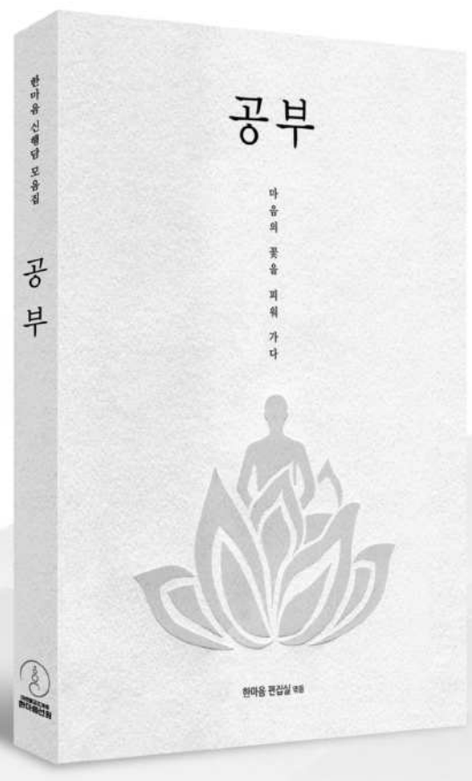
그러니 불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 불(佛)은 여러분의 생명이요, 교(敎)는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하면서 사시는 그 자체가 바로 교란 말입니다. 그러니 가톨릭교나 기독교나 불교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도 그랬죠. "가톨릭교라는 거, 불교라는 거, 기독교라는 거, 그것은 가게 상표와 같다. 당신네 가게만 가게고 딴 사람의 가게는 가게가 아니냐?" 그랬죠. 그래서 딴 스님네들은 거기서 설법하다가 내쫓기기도 했다는데 내쫓기길 각오하고, 뭐, 각오하나마나죠. 내쫓겠으면 쫓고 말겠으면 말아라 이거지 뭐가 그렇게 겁납니까!

다음 호에 계속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이 길은
바로 끝없는 길이요 영원한 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한 철 나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 법문은 1990년 8월 25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마하몰 www.mahamall.co.kr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 현불 논단 |

간절히 오늘을 살라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느슨해진 우리의 방역 습관틈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본격 시작

도쿄올림픽 출전한 17세 신유빈양
"최선을 다해 도전하겠다" 큰 울림
우리 모습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

"스스로 지키고 바른 생각을 지녀라"
주변 탓만해선 상황 나아지지 않아
오늘 하루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레 새로운 델타변이라는 것이 등장하며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장마를 보내고 한창 여름휴가를 준비하고, 더운 날씨를 피해 강이나 산 등으로 외부활동이 많아질 시기에 이러한 코로나19 확산은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현실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이어 비수도권도 이제 거리두기 3단계를 시작하고, 가야산 깊은 산골의 해인사에도 다시금 방역근무를 시작하며 작년 이맘때 느꼈던 긴장감이 꿈틀대기 시작한다. 2년 가깝게 지속된 마스크 착용과 비대면 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과 같이 익숙해지고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는 관념이 생겨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그러나 작년과 지금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다시금 찾아온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또한 다시금 지나갈 것이고 그 안에서도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이제 우리에게는 있다. 잠시 지쳐있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되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로부터 변화를 시작하고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어디를 가도 당연하게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며, 어디를 들어가도 누구 한 명 불평 없이 출입기록을 작성한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모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견디고 지나보내려 하는지가 전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2020도쿄올림픽이 개최됐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자국민들조차 반대하던 올림픽을 여러 가지 이유로 강행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수들도 오랜 시간 준비했던 올림픽이었기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올림픽에 참여하여 열띤 시합을 펼치고 있다. 유례없는 무관중 경기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올림픽을 했어야 하나라는 의구심도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지난 시간의 땀과 노력의 결실을 얻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보다 큰 감동과 환희를 전해 받는다.

특히 탁구 국가대표 선수 중에 17세의 어린 나이로 출전한 신유빈 선수의 공항패션이 화제였다. 마치 우주라도 떠나듯이 온 몸을 하얀 방역복과 마스크, 헬멧까지 착용하며 일본으로 떠나던 그 어린 선수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다.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올림픽 출전이었기에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일본으로 가서 도전하겠다는 그 어린 선수의 한 마디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다. 수많은 비난과 반대에도 결국 열린 올림픽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도 어디선가 최선을 다하는 선수의 모습은 부정적인 상황을 어느 샌가 잊게 만들고, 그 모습에 동화되어 힘차게 응원하고 그 힘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와 일상의 설렘이 되어준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을 산다. 그 오늘이 주변 상황에 의해 어려워질 수도 좋아질 수도 있으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스스로 자신을 경책하라.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라.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을 지닌다면, 수행자여, 그대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법구경〉에 나온 가르침과 같이, 주변의 탓만 하고 현실을 부정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주인공의 삶을 살며 한 걸음씩 우리의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社 說

'화쟁연구소' 설립에 거는 기대

원효 스님의 주요 사상인 '화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영산대에 설립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영산대는 올해 하반기부터 '화쟁 인문학' 구현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인 '화쟁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

영산대 화쟁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는 원효 전문가인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가 취임한다. 올해 정년을 맞은 박 교수는 영산대로 자리를 옮겨 연구를 총괄 진행한다. 박 교수는 지난 2018년 울산대에 '원효학토대연구소'를 설립하고 〈원효 전서〉를 발행하는 등 원효 스님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영산대 화쟁연구소는 '화쟁 인문학'의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차이들의 배타적 분쟁'을 해소·화해시키는 한국적 자생 인문학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시작은 오는 10월과 12월 두 차례 열리는 학술대회로 알린다. 학술대회는 불교와 동·서양철학에서 화쟁 사상과의 접점을 모색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돼 기대를 모은다.

연구소는 향후 '화쟁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창설, 〈원효 전서〉 영역(英譯) 사업, 화쟁 인문학 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원효 스님 관련 연구소는 울산대 원효학토대연구소, 분황사의 원효학연구원 등 여럿 있어왔다. 하지만 원효 스님이 주창한 화쟁을 전문 연구하는 기관은 영산대 화쟁학연구소가 처음이다.

원효 스님의 '화쟁'은 정치·경제·문화·종교 등 현대사회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담론이 될 수 있다. 그만큼 불교계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할 사상이라는 것이다. 화쟁연구소가 이 시대의 화해를 주도하는 담론의 장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불교영화 중흥의 장 만들자

'아제아제 바라아제' '오세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우리나라 현대 영화 중흥기에는 불교영화가 있었다. 최근 불교영화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날로 줄어드는 가운데, 국내외 불교영화를 망라해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제영화제가 준비돼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 대한극장에서 여는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에는 15개국 영화 62편이 초청돼 상영될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 출품영화는 총 5개 섹션별로 나뉘어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부처님 일대기와 큰 스님의 일화를 다룬 '연꽃', 자유와 지혜를 찾아 구도의 길을 걷는 스님과 일반인들의 이야기인 '라일락', 일상에서의 연대와 박애 등을 담은 '동백', 불교와 과학 등 최신 트렌드를 담은 '수선화', 미얀마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미얀마 특별전' 등이다.

지금까지 불교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나 전주국제영화제와 같은 대형국제영화제에서의 초청작 수준으로 대중에게 소개됐다. 유명 영화들 사이에서 일종의 맛보기 형식으로 소개돼 왔다. 이번 국제불교영화제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불교인들의 문화축제이자 불교영화를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하나의 창구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보다 양질의 영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출품하게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영화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21세기는 문화 창달의 시대다. 한편의 영화가 세상을 바꾸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불교영화 중흥의 장이 될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에 불자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모든 존재는 행복 원한다

요즈음 연일 학교 폭력이 큰 뉴스거리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여중생의 사진을 보면서 온 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연민이 밀려옵니다. 나와 너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타인을 향하여 폭언과 폭력을 가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군요.

코살라국의 파세나디왕은 말리카왕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그대는 누가 그대보다도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보다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의 생각은 일치했지만, 어딘가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림 · 최주현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파세나디왕과 왕비는 기원정사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저와 말라카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붓다는 왕과 왕비의 결론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사랑스러운 것을 찾을 수는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이 더없이 사랑스럽다. 자기가 사랑스럽다는 것을 아는 자는 결코 남을 해쳐서는 안된다."

내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듯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불살생(不殺生),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지요. 불살생이란 생명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억압하고, 폭언을 퍼붓는 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주에 몸담고 있는 것은 모두 자기의 분신과 같습니다.

남을 괴롭히면 나의 마음도 편하지 않기에 결국은 자신을 헤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다면 그만큼 자신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자연에서 찾은건강

"고객님의 건강을 생각하며 담은 건강한 자연! 믿고 드셔도 됩니다."

300BOX 한정특판 특별보급

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백두대간에서 재배한 돌배 세월담은 도라지 스틱 液



[제품용량] 10ml x 30포(300ml) / 액상차
[원재료명 및 함량]
도라지추출물(고형분8%이상, 도라지뿌리 11.11%)56.9%,
배추출물(고형분4%이상 / 돌배나무열매11.11%)12%,
배농축액(고형분60%이상)8%

인터넷에서 도라지 추출물 성분인
NAVER 플라티코딘D효능 ▼ 을 검색하세요.

백두대간 재배 약도라지, 돌배 제품은 이런 점이 다릅니다.

- 무농약, 유기농 재배, HACCP 인증
- 백두대간 800m에서 이식 재배한 8년근 약도라지 사용
- 다양한 영양성분과 유기산이 풍부한 유기농 돌배 사용.
- 평창 동계올림픽 면세점에서도 판매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도라지에 함유된 "플라티코딘 D"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제17303135호
GAP (우수관리인증) 농림축산식품부 제1010417호

자연에서 찾은 건강 진액골드 노루궁뎅이버섯 津液



[제품용량] 80ml × 30개입 / 1일 1~2회 /1회 (80ml)
[원재료명 및 함량]
노루궁뎅이버섯추출액88.9%(노루궁뎅이버섯 고형분 2%, 국산), 배농축액10%(국산), 오미자청(국산),
생강농축액(국산)

인터넷에서 NAVER 노루궁뎅이버섯효능 ▼ 을 검색하세요.

노루궁뎅이버섯은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합니다.

- 실버식품으로도 불리우는 노루궁뎅이버섯은 인지개선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헤리세논, 에리나신 함유.
- 위산분비 조절, 염증개선 및 위장운동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올레아놀릭산" 함유.
-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 제거 역할.
- 베타글루칸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인체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

문의 : 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